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0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16일)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보금자리 마련

동국대 재학생 불자들의 학생신행연합체 '불교학생연합'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9월 10일 교내 혜화관 7층 옥상정원에서 재학생 불자 2000여 명이 소속된 학생신행연합체 '불교학생연합'을 위해 동아리방 '가람당'을 마련하고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행사 후 단체 기념촬영 모습.

글 · 사진=김민재 기자

조계종, 30년 만에 '1원 체제'로 변화

9월 10일 중앙종회 임시회서
'총무원법 개정안' 상정 가결
진우 스님 "운영 효율화" 강조
본사 '문화국' 신설안도 통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10일 조계종 중앙종회 제231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참여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이후 30년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제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제로 탈바꿈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현행 총무원·교육원·포교원 12부실 17개국에서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단 개혁 30년 성과 계승과 미래지향적 종단 조직 혁신을 위한 '총무원법 개정안'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통합하는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다.

단일한 통합 종무행정 시스템 전환 및 효율적 종단 운영을 위해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책임성 있는 종책 시행 △대사회, 세무, 콘텐츠, 종책 연구 등 시대 변화 대응을 위한 대응적 역량 확보 △불교의 미래와 뉴미디어 시대 대응을 위한 홍보 기능 확대 △전통 문화유산의 국민적 향유, 한국불교의 대사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총무원 조직 산하 기관 및 종무원장 직속에 대해 종령으로 명시(제2조)하고 총무원장 권한 대행 순위를 총무부, 기획실, 포교부, 교육부, 재무부, 문화부, 사회부, 호법부 순으로 정하는 것(제5조), 전법 포교 및 교육 현안에 대해 종무회의를 통한 단일 의사 결정 체계 구축(제8~9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단 전법 포교시스템 재구축 및 강화, 스님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일원화와 함께 미래 불교 대비를 위한 연구 조직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진우 스님은 제출한 총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종회의원 스님들이 총의를 모아 개정한 종헌 개정의 후속 조치"라며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통합이라는 종헌 개정 틀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거친 회의와 공청회 개최, 총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혜를 모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각 부서의 업무효율을 최대한 기하면서 총무원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종무행정 업무 전반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시대에 부응하도록 진취적으로 부서 조정을 했다"면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있을 테지만 이번 종회에서 꼭 통과해 달라. 종단 의사 결정 체계와 교구 행정 강화, 교육과 전법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종단 운영을 효율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은 불교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앙종무기관(문화부)과 체계적인 업무 협의와 불교문화유산 향유확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 전문적인 업무관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방종정법상 교구본사에 '문화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시회에서는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 촉구 성명서'도 채택됐다. 김천 갈항사지 삼청석탑은 김천 남면 오봉리 일원인 갈항사터에 세워져 있는 탑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될 위기에 처하자 1916년 경복궁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종회의원 현무 스님의 대표 발의에 의해 갈항사지 삼층석탑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김천 시민과 불교도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김천 시민과 불교도들에 의해 세심히 관리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천여 동국불자 한자리에 포교·전법역량 결집한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9월 24일
'2024 영캠프: 주인공' 개최
장충체육관서 수계법회 봉행

2000여 동국대 청년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법역량을 결집하는 대규모 전법 행사가 열린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학위원회(위원장 윤재웅)는 "오는 9월 24일(화) 오후 5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24 Young Camp(영캠프): 주인공'을 개최한다"고 9월 10일 밝혔다.

'영캠프'는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염원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로, 대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청년 불자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어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지원으로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동국대 불교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축제로, 지난 5월 발족한 학생기획위원단이 주도한다. 불교와 페스티벌이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힙한 불교, 젊은 불교'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총장, 불교동아리 학생 등이 참석 예정인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2000여 명 이상의 청년 불자들이 동참하는 수계법회다. 돈관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법인 이사·감사스님, 불교대학 강사와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의 스님들께서 연비를 내릴 예정이다.

또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대규모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하는 예불의식은 수계식의 장엄함을 한층 더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전통 불교의 가르침을 잃지 않으면서도, MZ세대가 불교에 공감하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캠프 대미는 청년 불자들을 위한 페스티벌로 장식한다. 유튜버 섭이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뉴진 스님의 디제잉 공연 및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24인조 걸그룹 트리플 에스, 가수 케이윌, 힙합듀오 다이나믹듀오가 무대에 올라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동아리들은 올해 창립됐다. 현재 2400여 명 회원이 각 단과대학·일반대학원 불교동아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채 용 공 고

신심있고 역량있는 경력기자를 찾습니다

- 모집분야 : 신문 취재 기자
- 모집형태 : 경력 ○명
- 응시자격 : 대학 졸업 이상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모집마감 : 10월 12일(토)까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유양식) / 자기소개서 (경력위주) / 기명기사 3건 이상 첨부 필수
- 접수방법 : E-메일 지원(motp79@naver.com) 및 잡코리아 · 사람인 지원

*모든 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합니다.

- 문 의 : (02)2004-8258

현대불교신문사

추석연휴 관계로 다음 주 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대한불교조계종

2024 불교도 대법회

수계법회 · 승보공양법회
광화문광장 특설무대

- **수계법회 / 9월 28일(토) 오후 2시**
-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수계
(8월 31일까지 사찰별 접수, 교구본사 제출)
- **승보공양법회 / 9월 28일(토) 오후 3시**

승보공양 ARS 060-700-7070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후원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께 공양을 올립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
9월 28일(토) 오후 4시 /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 선포**(총무원장 진우스님)

2024 불교도 대법회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음악회
9월 28일(토) 오후 7시 /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 내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

- **출연진**
: 비텐스(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최예림(JTBC 풍류대장 출연), 김태연, 이승기, 최정원(뮤지컬 배우), 마이클리(뮤지컬 배우), 윤하(대중가수), B1A4(남자 아이돌)

전통문화(전통등) 전시 및 체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광화문광장 옆)

- **전통등 전시 / 9월 23일(월) - 28일(토)**
- **전통문화 체험행사 / 9월 25일(수) - 27일(금)**
: 명상체험,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체험 등

덕일 총인 "내가 깨치면 세상이 正道 찾는다"

진각종 총인원서 추대법회 봉행
덕일 총인 법어서 '심원공적' 강조
"마음의 제 모습 회복하자" 당부
윤 대통령 "행복한 나라 만들자"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이 9월 10일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봉행한 '제14대 총인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에서 덕일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고 있다.

진각종이 종단의 신성인 제14대 총인예하 덕일 대종사의 추대를 기념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총인 덕일 대종사는 "내가 깨치면 세상이 정도(正道)를 찾아간다"는 첫 가르침을 대중에 전했다.

진각종은 9월 10일 서울 성북구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4대 총인예하 덕일 대종사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국가와 종단의 여러 사정을 감안해 형식보다는 의미에 집중하자는 총인예하의 뜻에 따라 외부인사 초청을 자제하고, 축전과 화환을 사절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졌다.

지난 8월 1일 법통승수식을 통해 진각종 제14대 총인으로 취임한 덕일 대종사는 1970년 종비장학생으로 종단에 입문했다. 1986년 최정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상석·원선·대원·보원심인당 주교와 홍교부 문화국장, 심인고등학교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유지재단 이사, 제9, 13, 14, 15대 종의회 의원, 제14대 종의회 의장, 위덕대 불교대학원장, 위덕대 정교실장,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등단정좌'하며 법상에 오른 총인 덕일 대종사는 첫 대중 법어를 통해 '심원공적(心源空寂)'을 강조하며 본래 마음 자리를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덕일 대종사는 "마음의 근원은 허공처럼 고요하니 대일광명은 심원에서 이미 빛나고 있다"면서 "마음의 제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내 탓을 찾아서 바로 잡고 이웃에 힘써 소생의 생활을 하도록 정성을 다하자"고 설했다.

이어 "내가 먼저 깨치고 참회해 실하면 상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정도를 찾아간다"면서 "심인공적의 자리에는 세사(世事) 갑론을박의 아우성도 화음을 이루려는 몸부림도 돌아간다. 안으로 제 몫을 다해 화합하고 밖으로 평화와 번영이 깃들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추대법회 봉행위원장 도진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봉행사를 통해 덕일 대종사의 총인 추대로 "진각종문의 새 장이 열릴 것"을 선언했다.

도진 정사는 "종단 백년대계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총인예하의 이러한 수행이력은 진언행자들로 하여금 자비와 희사의 실천적 삶을 이끄는 원력이 됐다"며 "우리 종도들은 제14대 총인 추대법회를 봉하며 이 인연으로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께서 증득하시고 가르치신 길을 따라 심인진리의 대도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종단 안팎의 축사도 이어졌다. 불교계를 대표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오늘 진각의 법통을 새로이 승수하시는 총인 덕일 대종사의 추대는 참으로 뜻 깊은 의미가 있다"며 "진각종은 복혜많으신 덕일 대종사를 총인으로 추대하는 만큼 스승님을 닮아 항상 밝은 지혜와 용맹심으로 한국불교 발전에 계속 힘 써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광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진각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의 생활에 깃들게 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면서 "오늘 추대되시는 덕일 대종사님은 밀교학의 체계를 세우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함과 더불어 틈틈이 펴낸 저서들을 통해 원력을 보여주셨다. 대종사님의 삶이 신교도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밝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사(사진 왼쪽)와 봉은사가 '2024 불교도대법회' 원만봉행을 기원하며 성금을 쾌척했다.

"전 국민에게 불교 참모습 전하겠다"

불교도대법회 기금 전달 이어져
조계사 · 봉은사 · 제16교구본사 등

'2024 불교도대법회'의 원만 봉행을 기원하는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와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9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각기 성금 3억원을 쾌척하며 불교도대법회의 여법한 봉행을 기원했다. 뒤이어 해상 관음기도도량 강화도 보문사(주지 선조 스님)도 9월 10일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는 9월 11일 주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동 봉정사(회주 호성 스님)와 서울 도안사(회주 선묵혜자 스님)은 각각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탰다.

선묵 혜자 스님은 "마음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중과 함께 불교도대법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은 "법회를 통해 전 국민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불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키우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환아 치료지원

국내외 어린이 52명 지원
모금캠페인 9월 30일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난치병을 앓는 국내외 어린이들을 위해 2억7천만원을 지원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9월 4일 전법회관 3층 보리수에서 '제24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를 열고 지원 금액과 대상자를 선정했다.〈사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린이의 나이와 중증도, 가정 경제력 등을 고려해 국내 22명, 해외 3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치료비가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리는 '제24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모금캠페인'에는 현재까지 총 3억원 상당의 성금이 모연됐다. 캠페인에는 안동불교사암연합회, 의성불교사암연합회 등 41개 사찰 및 불교계 단체와 하나금융나눔재단, BBS불교방송 등 기업체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금을 통해 난치병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나눔과 자비의 마음을 모은 덕분이었다"며 "지원금이 어려운 가정의 난치병어린이들의 희망이 돼 쾌유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정위원이었던 안동불교사암연합회장 도륜 스님은 "재단의 난치병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은 부처님의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시"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많은 난치병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재가 불자 연예인·셀럽 조직 관리 필요"

현주 스님, 교육원 전문연구자 세미나서 주장

16세기 민간 수륙재 확산에
민간 '거사' 유랑단 역할 커
"연예인 신행담 SNS 홍보를"

"연예인들과 셀럽들의 파급력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막강해졌다. 불교가 좋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연예인과 셀럽들을 통한 홍보로 이어져야 한다."

재가 불자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리를 통한 불교 홍보 및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은 9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법'을 주제로 열린 전문연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은 '조선 후기 유랑연희집단 거사의 활동을 통해 본 뉴진 스님 성공사례 고찰'을 통해 조선 후기 유랑집단 거사와 뉴진 스님의 포교 사례를 비교하고, 향후 연예인 포교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현주 스님에 따르면 조선 전기 왕실의 주도로 설행되는 수륙재는 명종 대인 16세기 중반 이후 유교식 의례인 여제(厲祭)로 대체됐다. 하지만 수륙재는 조선 후기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봉행되기 시작했다. 이 같이 민간 수륙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현주 스님.

데에는 '거사(居士)'로 불리웠던 유랑연희집단의 역할이 컸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비승비속의 무리로, 마을에서 세운 염불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불교의례를 주관한 전문 예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면서 현주 스님은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 '뉴진 스님'이라는 포교 사례를 분석했다.

현주 스님은 "작금의 한국불교는 타종교의 선교행위와 양적 팽창으로 힘겨워하지만 대중들의 호감도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조선 성리학 사회에서 '거사'들이 자구책을 모색해 대중친화적인 전법활동을 전개한 모습과 닮았다"고 분석하며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비승비속의 뉴진 스님이라는 캐릭터"라고 평가했다.

뉴진 스님의 성공사례를 통해 현주 스님은 △'힙함'의 극대화 △연예인·셀럽 신도 조직 관리 △불교문화 DB 작업 및 무료 제공 △불교 부정적 이미지 모니터링 등을 포교 전략으로 제안했다.

신중일 기자

2024
국제선명상대회
9. 27(금) - 10. 01(화)

전국 선명상축제 프로그램

모두 함께 선명상 즐기기 : 해외 전문가 초청 명상토크와 선명상 체험


로시 조안 할리팩스 —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우파야 선센터 설립자
툽텐 진파 — 마인드 & 라이프 의장
차드 멩 탄 — 前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팝루스님 — 플럼빌리지 전통의 미국 수행자
직메 린포체 — 전 세계 티베트 불교의 명상과 철학 지도자

서울	조계사	9/29(일) 11:00	직메 린포체	02-768-8580
	봉은사	9/29(일) 15:00	툽텐 진파	02-3218-4815
경기	남양주 봉선사	9/29(일) 10:00	호산스님	031-527-1951
	김포 중앙승가대학	9/30(월) 15:00	툽텐 진파	031-980-7713
영남	부산 범어사	9/30(월) 14:00	조안 할리팩스	051-508-3122
호남	전주 서고사	9/29(일) 14:00	차드 멩탄	063-212-7709
강원	평창 월정사	9/29(일) 10:00	팝루스님	033-339-6615
충청	대전 보문고등학교	9/30(월) 14:00	차드 멩탄	042-620-6600
청년·외국인	서울 홍대선원	9/29(일), 9/30(월)	준한스님	010-5707-2423
예술인	부산 쿠무다	9/27(금) 17:00	주석스님	051-702-1300
군인	논산 호국연무사	9/29(일) 10:00	곽정은·뉴진스님	010-2559-0336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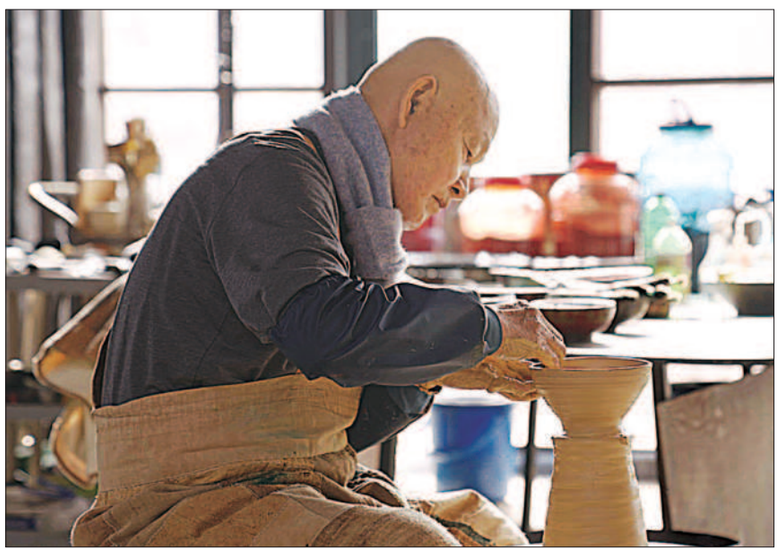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성파 종정예하 40년 '禪藝'를 망라하다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
'선예 특별전 COSMOS' 개최

3m 옻칠 조각, 수중설치회화
금니사경 등 작품 120점 선봬
연계 학술세미나, 다도체험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을 이끄는 정신적 지도자이며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화업을 펼친 예술가이기도 하다. 사진제공=예술의 전당



태초, 삼베에 옻칠, 2024, 가변설치_1. 사진제공=예술의 전당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종단의 신성이자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정신적 지도자이며 통도사 주지와 종단 원로의원을 역임한 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소임을 맡아 수좌들을 제접하는 선지식이다. 하지만, 성파 대종사에게는 또 다른 이면이 있다. 바로, '불교문화' 바탕으로 서예, 민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화업(畫業)을 펼치는 예술가이기도 하다. 대종사가 40여 년 동안 쌓아올린 화업의 정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술의전당(사장 장형준)은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성파 선예(禪藝) 특별전- 코스모스(COSMOS)'를 개최한다.

불교에서 선(禪)수행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모든 예술을 의미하는 '선예(禪藝)'가 전시 주제로 명명된 만큼 이번 특별전은 성파 대종사의 40여 년간 보여준 독창적 예술세계가 담겨있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서 성파 대종사는 1980년대에 선보였던 금니사경과 최신작은 물론 옻칠 회화와 설치 작품을 중심으로 평생 화업을 총망라하는 120여 점을 선보인다.

성파 대종사의 선예에 있어 '재료에 대한 연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대종사는 전통 한지 제작부터 안료와 염료의 재배 및 가공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물감과 바탕이 되는 재료들을 직접 다뤘다.

특히 '옻'이라는 물성의 활용한 대종사의 작품은 회화, 도자, 섬유, 조각 등에서 독자적인 옻 예술 장르를 만들어 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성파 대종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한국적 재료 탐구를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된다. 실제 전시장 내부에는 3m 높이의 옻칠 조각, 수중 설치 회화 등 시선을 사로잡는 대형작이 소개되며, 성파 대종사의 작업 과정과 통도사 장경각 내 수중 암각화 작품을 담은 영상이 함께 상영돼 주목할 만하다.

전시는 △태초(太初) △유동(流動) △꿈(夢) △조물(造物) △궤적(軌跡) △물속의 달 등 총 6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섹션인 '태초'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상징하는 암흑물질과 태초의 에너지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시의 시작을 알린다. 검은 기둥은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상징적 오브제로, 초월적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시각화했다.

두 번째 섹션 '유동'은 물과 바람 등의 유동성과 에너지의 옻칠로 형상화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서양의 마블링 기법과는 달리 물질 너머의 에너지와 기운을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세 번째 섹션 '꿈'에서는 대종사의 초현실 세계와 마주한다. 추상과 구상이 혼합된 인간, 동물, 기하학적 형태들이 혼재하며 무의식 속에서 펼쳐지는 꿈의 세계를 탐험한다.

'조물' 섹션에서는 성파 대종사가 도자와 옻칠을 결합하고 공예와 미술을 넘나들며 '칠예 도자' 장르를 개척한 과정을 보여준다.

'궤적'은 성파 대종사의 생애와 예술적 발전 과정을 추적하는 섹션으로, 대종사가 걸어온 예술적 궤적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유교의 시서화를 시작으로 불교의 사경과 도자, 그리고 추상적인 옻칠 예술로 확장되는 예술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섹션인 '물속의 달'에서는 물질과 정신, 실재와 비실재의 경계를 초월하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상(相)에 대한 집착을 떠나 옻의 물성이 성파의 수행과 철학을 만나 조형 언어로 승화되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들도 눈길을 끈다.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파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심은록(미술평론가), 이동국(경기도박물관장), 이영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인범(미술평론가), 정종미(한국화가, 전 고려대학교 교수), 마엘 벨렉(세르누치미술관 큐레이터), 버지니아 문(LA 카운티미술관 큐레이터)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시선에서 대종사의 예술관을 논한다.

관객참여형 프로그램 기획된 '다도 프로그램'은 전시 기간 중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로비 내 특별 마련된 다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네이버 예약으로 선착순 운영되며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668-1352

"기후위기 극복하자" 환경보살들의 호소

9월 7일 '기후정의행진'
불교계단체 300여명 참여



"기후재난 못 살겠다. 안전한 삶 보장하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불교계가 동참해 힘을 보탰다.

불교계 단체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등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은 9월 7일 서울 강남대로에서 열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참여 단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사진〉

행진은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환경보살이 돼 정토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성명서에서 "'삼계가 불타고 있다'는 〈법화경〉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가 불타고 있는데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며 "부처님의 생명존중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들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뭇생명의 안락을 위해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종교계 탈핵기도에서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이기적 욕망 없는 세상이 구현되길 발원했다.

이날 불교환경연대는 '환경5계'를 통해 기후위기시대 삶의 자세를 제안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9월 6일 추석을 앞두고 흑석복지관에서 자비나눔 봉사를 베풀었다.

"어르신들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묘장 스님), 서울 달마사(주지 일행 스님)는 9월 6일 흑석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에서 '추석맞이 자비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진우 스님은 흑석동 지역 어르신 130여 명이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를 바라며 추석 선물을 전하고 대중공양 봉사에 참여했다.

이날 식사는 어르신들의 몸보신을 위한 찰밥, 갈비탕, 동태전, 콩나물냉채, 섞박지, 송편, 식혜 등으로 구성됐다.

김가령 기자

관음종 면면 조명 학술심포지엄 열린다

9월 27일 종로 낙산 묘각사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120주년
종단 창종 60주년 즈음 기념해

관음종(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과 창종 60년을 기념해 다례재와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관음종은 오는 9월 27일 오후 1시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 및 창종 60년에 즈음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경내 원통보전에서 열리는 태허 조사 탄신 120주년 다례재는 총무부장 홍경 스님의 사회와 예경실장 법관 스님의 집전으로 봉행된다.

다례재 이후에는 '관음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대불보전에서 열린다.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허남결 동국대 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관음종의 종헌과 역사, 사회실천사업 등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관음종의 종헌 변천 연구'를, 장미란 동국대 교수는 '탈종교화시대, 관음종의 전지구적 공생 행보'를, 문현공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한국불교 관음신앙 현황과 미래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이명호 동국대 교수는 '태허 스님의 사상과 관음종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을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관음종 입종과 그 실현'을 대중에게 전한다. 종단사 관련 논문으로는 총무부장 홍경 스님이 '관음종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Taste of Nature Heart of Sharing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

2024.10.4(금)~10.5(토)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일정표

시 간	10월 4일(금)	10월 5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09:30~10:00		금비라 졸업식 09:30~10:00 야외무대
10:00~10:30	비빔밥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차명상 ① 10:00~10:30 야외무대
10:30~11:00		차명상 ② 10:30~11:00 야외무대
11:00~11:30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11:30~12:00	사찰음식 실습특강(성견스님)	사찰음식 실습특강 (법송스님)
12:00~12:30	11:30~12:20 야외무대	11:30~12:20 야외무대
12:30~13:00	차명상 ① 12:30~13:00 야외무대	탁발순례 12:30~13:10 도량 내
13:00~13:30	차명상 ② 13:00~13:30 야외무대	무아차회 13:10~14:10 금탑 앞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14:00~14:30		시상식 준비 · 공연 리허설
14:30~15:00	무아차회 14:30~15:30 금탑 앞	14:10~15:00 야외무대
15:00~15: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15:30~16:00		2부 : 비천무 공연 / 우담화합창단 공연
16:00~16:30		15:00~16:30 야외무대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

사찰의 발효음식, 김치만들기 체험 : 10월 4~5일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일 6회)

| 주최 |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 주관 |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 후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 |

‘국민화합’ 태고종 영산재, 종로를 수놓다

태고종, 9월 7일 영산재 봉행
종로 서울공예博 공예마당서
정관계 인사 등 500명 참석
“국민화합 문화 물길이 되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9월 7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무대에서 ‘동행 · 매력 시민과 함께하는 2024 태고종 영산재’를 봉행했다.

국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기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가 서울 종로에서 펼쳐졌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9월 7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 무대에서 ‘동행·매력 시민과 함께하는 2024 태고종 영산재’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5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영산재는 올해로 3회를 맞았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설행 장소를 기존 광화문광장에서 서울공예박물관으로 옮겨 설행됐다.

영산재는 오후 1시 30분 부처님과 신중들을 모시는 시련(侍輦) 의식으로 시작됐다. 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이 각종 번과 연을 들고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출발해 송현녹지광장을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무대까지 이운했다.

이어 영산재는 산중작법-천수바라-도량게-법고-거불-축원- 향수나열-향화게-가지게-축원화청으로 진행됐다.

앞서, 개막식에는 국민화합을 위한 영산재를 축하하기 위한 내외빈들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영산재는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가운데 불교 무형문화예술의 백미를 이루는 수준 높은 전통의례”라며 “이번 2024 태고종 영산재 개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잇는 이념과 세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소통과 국민화합, 세계적 화합을 향한 문화의 물길이 트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영산재보존회장 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회 주제인 ‘동행·매력’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 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며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즐거움과 영감을 선사하고 ‘동행·매력’이라는 주제 아래 서울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봉행되는 영산재를 마중물로 신구세대가 함께 숨쉬고 공감하는 전통문화유산의 장이 널리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으며, 호법원장 혜일 스님도 “동행·매력,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영산재를 통해 생명존중 정신이 널리 고양되기 바란다”고 서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불교문화의 백미, 영산재가 민족의 축제로 가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영산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산재와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문화행사도 서울공예박물관 일원에서 진행됐다. 체험·전시프로그램으로는 가사·장삼 전시, 석용 스님 지화 전시, 연꽃만들기 체험 등의 부스가 운영됐다.

영산재 설행 이후에는 문화예술공연행사가 진행됐다. 행사는 봉원사관음합장단·백련사불음합창단·청련사심향합창단·용궁사해조음합창단으로 구성된 태고종 연합합창단의 공연과 불자가수 박희진·신지혜·조재우, 장하은 기타리스트, 풍물밴드 이상의 공연으로 꾸며졌다.

한편, 태고종은 영산재에 앞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일원에서 태고종의 근현대사 면면을 담아낸 ‘한국불교역사문화사진전’을 개막했다. 사진전은 9월 11일까지 전승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오늘 사진전은 근현대 한국불교사와 문화의 자취를 살피고, 종단스님들의 행적과 수행 정진, 부국안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의미 있는 사진을 담았다”며 “민족 종교로서 불교가 걸어왔던 보살행을 되돌아보며 우리 불교의 문화적 물줄기를 설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美위앙종 영화 스님, ‘선정쌍수’ 방한 법회

9월 29일부터 한 달여간
선 · 정토 닦는 ‘선정쌍수’
관음칠 및 경전 강설도


지난 3월 방한한 미국 위앙종 영화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위앙종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영화 스님이 한국에서 한 달간 방한 법회를 연다.

미국 영화 스님이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청주 보산사, 서울 탄허박물관, 전국비구니회관, 길상사 등에서 선과 정토를 함께 수행하는 ‘선정쌍수’의 정수를 한국의 수행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방한한다.

첫 법회는 9월 29일 청주 보산사에서 ‘관음칠(觀音七)’ 수행으로 법석의 막이 오른다. 관음칠은 7일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및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불하는 집중 수행 기간을 의미한다. 영화 스님은 매일 저녁 법문을 통해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수행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선 수행자를 위한 법회와 경전 강설 시간도 마련된다. 10월 12일과 19일, 서울 탄허박물관에서 그룹 좌선 및 선 명상을 주제로 한 ‘다르마톡’과 12일에는 화엄경, 19일은 유마경 강설이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선명상의 기초를 시작으로 〈아미타경〉 독송 및 아미타불을 염송하는 정토법회와 영화 스님의 ‘정토왕생과 염불’ 법문이 이어진다.

마지막 법회는 10월 20일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에서 영화 스님의 ‘미국 위앙종의 정수’ 법문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영화 스님은 지난 20년간 미국,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세계 곳곳의 수행자들에게 선정쌍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봉녕사, 사찰음식 축제 한마당 연다

10월 4~5일, 수원 봉녕사서
‘사찰 자연발효음식’ 주제로

봉녕사가 사찰음식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을 연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10월 4~5일 경내에서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해 ‘2024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발효음식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을 주제로 열려 눈길을 끈다.

4일 첫날에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를 시작으로 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어 육법공양, 성견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 차명상, 탁발순례, 무아차회 등 사찰음식이 가진 불교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둘째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야외무대에서는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고 비천무, 우담화합창단 공연으로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경내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에서는 ‘사찰음식 특강’이 개설돼 기대를 모은다. 특강은 10월 4~5일 양일간 하루 6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김민재 기자

다양한 명상 만나보려면 ‘동국대’로 오세요

동국대, 제5회 국제명상엑스포
9월 24~26일 서울캠퍼스 일원
한의학 · 오일 · 죽음 체험 등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 선봬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펼쳐질 20개의 명상 체험 부스가 대중에 공개됐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9월 11일 동국대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2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서 진행될 명상 체험 부스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명상엑스포는 종학연구소가 주최하며 9월 24~2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된다.

명상 체험 부스는 총 20개로, 9월 24~25일 양일간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주목할 만한 부스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아로마 향기로 치유하는 ‘아로마 명상오일 DIY’가 있다. 아로마 오일을 시향하고 자신에게 맞는 명상 오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의학과 명상이 결합된 부스도 마련됐다. ‘전통한의학과 명상’은 호흡 관련 혈자리에 침을 놓아 명상 수행을 돕고 뇌파검사를 실시해 명상의 효과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뇌파검사, 침 시술 또는 단전호흡 시행, 뇌파검사, 검사 결과 설명으로 진행된다.

죽음을 인지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되찾는 ‘메멘토 모리: 죽음 체험 명상’도 눈길을 끈다. 입관 체험 및 백골관 명상을 통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산란해진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타 부스와 달리 체험하는 동안 상시 상담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명상 관련 기기를 직접 체험하는 ‘명상 첨단 테크기기’, 불교 사경(寫經) 수행 원리를 차용한 ‘명상 캘리그라피(손글씨 명상)’, 꽃잎으로 만다라를 그리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나를 만나는 꽃 만다라 체험’ 등 다채로운 명상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명상엑스포) 1회부터 3회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위주로 진행했지만, 작년부터는 다양한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들로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방문해, 명상엑스포를 충분히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이번엔 40대다! ‘나는 절로’ 6기 모집

화계사서 10월 5~6일 개최
40대 미혼남녀 누구나 환영

범국가적 관심을 받으며 인연맛집으로 등극한 ‘나는 절로’가 오는 10월, 40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10월 5~6일 양일간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에서 ‘나는 절로, 화계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이전과는 달리 미혼의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나는 절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한국사회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긍정적 결혼관 형성 교육,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남녀 10쌍, 총 2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화계사 참배,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연애 특강, 레크레이션, 1:1 로테이션 차담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서울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사찰 화계사에서 40대 특집 ‘나는 절로’를 준비하게 됐다”며 “40대를 위한 40번째 만남 템플스테이(나는 절로 6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나는 절로, 화계사’는 참여를 바라는 40대 미혼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20일 오후 1시까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구글폼을 통해 접수 받는다.

한편, 서울 화계사는 서울 강북 포교 중심 도량으로 불자와 지역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김가령 기자

종평위 “홍주·해미읍성, 카톨릭 성지화 유감”

9월 5일 홍주 · 해미읍성 현장답사
官주도 가톨릭 성역화 진행 확인
“지역불교사 재조명” 공감대 형성


조계종 종평위는 9월 5일 ‘제4차 회의 및 홍주읍성 · 해미읍성 현장답사’를 개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가 홍성군 홍주읍성과 서산 해미읍성에서 이뤄지는 특정종교 편향적 행정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종평위는 9월 5일 ‘제4차 회의 및 홍주읍성·해미읍성 현장답사’를 개최하고 현장에 남은 사찰 유적·유물 등을 확인했다. 현장답사에는 종평위원장 향문 스님, 종평위원 도심 스님(조계종 사회부장), 포교부장 남전 스님, 법륜 스님, 금해 스님, 이병두·이종수 위원을 비롯해 수덕사 총무국장 정경 스님과 홍성지역 스님들,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개심사 주지)과 회원스님들이 동참했다.

종평위원들은 홍성 홍주읍성 복원 현장에서 과거 일대에 규모 있는 사찰이 소재했음을 확인했다. 홍주성벽부터 외곽지까지 1km 범위에 분포한 고려시대 사찰 석재와 석탑 기단부를 비롯해 석탑의 몸돌, 불상의 연화좌, 오관리 당간지주 등은 읍성 일대가 사찰지였음을 보여준다.

이어 홍주읍성에 구성된 6개 순례길 코스를 방문하고 순교기념비와 박해사 위주로 기술된 안내판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특정종교 성지화를 종교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기도 했다.

위원장 향문 스님은 “‘홍성 천년여행’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홍주읍성에 산재한 불교유물들을 방치하고 특정종교 성지화를 진행하는 건 매우 유감”이라며 “전문적인 사지(寺地) 연구를 통해 학술적인 지역 불교사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산 해미읍성에서 종평위원들은 읍성 내 순교기념비, 감옥터, 십자가의 길 조형문 설치 현장 등을 확인하고 특정종교 성지화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서산주지협의회장 혜산 스님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국제성지’ 사업을 서산시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현장답사를 마친 뒤 종평위는 서산주지협의회 사무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답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홍성군과 서산시 ‘관(官)’ 주도 사업이 ‘관광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형평성 없이 추진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종평위원들은 그동안 미진했던 내포지역 불교사 학술연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종평위는 올해 내로 홍성·서산 지역에서 불교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 김가령 기자

강남불교대, 9월 입학생 모집

스님 · 스님 희망자 대상으로

적멸보궁 태황사 부설 강남불교대학(대표 군맹서진 스님)이 스님 또는 스님 희망자를 대상으로 9월 학기 입학생을 모집한다.

1, 2학기로 나눠진 강의는 매주 월·수·금 수업이 진행된다. 1학기는 9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불교근본 교리와 사찰 예절을 배운다. 2학기는 2025년 3월 3일에 개강해 중국과 한국의 불교 역사를 공부한다. 입학금은 10만원이며 수업료는 한 학기당 50만원이다.

스님 희망자는 9월 학기 수료 후 면접에 통과해야 하며, 2025년 11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천 태황사에서 연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서품식은 동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봉행될 예정이다. 연수 비용은 승복과 장삼 비용을 포함, 총 100만원이다. 02-532-0012 김민재 기자

“생명나눔 행복여정 30년, 행복나눔 미래 30년”

30 생명 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⑨

30돌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 대종사

불교계 유일 정부 지정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올해 10월,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생명 살리기 불사’에 진력해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30살 청년이 되기까지에는 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원)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2005년부터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일정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해 희망등록을 직접 권선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며 “쉼 없이 달렸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일면 스님을 9월 9일 서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국에서 만났다. 일면 스님은 그간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30년을 위한 계획을 풀어냈다. 〈편집자 주〉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든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미래 30년도 희망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시작은 199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처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보자는 원력으로 몇몇 스님과 재가자가 뜻을 모았고, 제31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한 ‘생명공양실천회’가 탄생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임에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오직 ‘장기기증’만을 위해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렸다.

법장 스님이 2005년 갑작스럽게 원적에 들면서, 일면 스님이 후임 이사장이 됐다. 일면 스님은 2000년 1월, 간 이식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만큼 생명나눔의 산증인이었기에 의미가 컸다.

일면 스님은 1982년, 지속적으로 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스님은 당시 조계사 재무 소임을 맡고 한창 일에 빠져 있을 때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1993년, 간경화 판정을 받았다. 회복 불가능하게 악화된 것이다. 젊었고, 또 종단의 주요직책을 맡아 한창 바쁘게 일할 때였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소임에만 열중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98년, 2개월 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다. 1년 동안 1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수차례, 얼굴은 검게 변하고 복수가 차올라 거동을 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주변을 정리하고 기도만 하며 세상을 떠날 날만 기다리던 중 스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뇌사 장기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당시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았지만 앞에 기다리던 네 사람 모두가 이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스님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었다. 성공적인 간 이식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스님은 마취에서 깨어난 순간 “남으로부터 덤으로 얻은 삶, 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처음 이사장을 맡았을 때 2000여 명에 불과했던 회원이 지금은 25만명이 넘었으니 수치상으로만 봐도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알 수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기와 생명나눔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을 위해 달려왔다. 많은 이들이 모인 장소라면 어디든지 달려갔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불우이웃돕기 등을 전개하며 생명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일면 스님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눔”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30년 동안의 발자취에서 가장 큰 성과로 불교계와 국민들 사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를 바꾼 것을 꼽았다.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8만명, 조혈모세포 희망 등록자는 6만여 명에 달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힘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 것도 빠질 수 없다. 1200여 환자들에게 약 45억여 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만 총 32명의 환자에게 약 8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연간 1억원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교육을 200여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생명나눔이죠”

일면 스님은 “미래의 희망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꺼져가는 희망불씨를 되살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는 이유”라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구호분야에도 첫발을 뗐다. 지난 4월,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지원했고 7월에는 직접 캄보디아 현지에 방문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실천했다.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거듭 성장 발전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후원과 헌신을 잊지 않았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후원자, 봉사자, 직원 등이 생명나눔의 주인공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는 후원자들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든든한 힘이다. 일면 스님은 “신도도 거의 없는 강원도 산골 한 사찰에서의 꾸준한 후원과 매체를 통해 연락이 온 동참자 등으로 매번 큰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기부천사’ 배수지 배우와 후원 어플인 ‘리매치앱’의 이현진 대표는 빼놓을 수 없는 후원자다. 배수지 배우는 2014년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며 숭고한 생명나눔 정신을 실천했고 2016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에 5억원 이상을 기부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해 겨울 진행하는 ‘따뜻한 정나누기 캠페인’에는 1억원이 넘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트롯 투표 리매치 앱 이현진 대표도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억3000여 만원을 후원했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 ‘내일은 국민가수’ 등에 출연한 가수의 팬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된 가수 이름으로 투표와 후원을 하면서 스타를 향한 팬들의 성숙한 응원 방법이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자비나눔으로 생명나눔의 30년 성과가 눈부시기에 앞으로의 30년도 기대를 모은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할 계획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부터 희망이 만들어지고 그 희망으로부터 우리들은 행복해진다”면서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나는 나눔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30주년 기념식

생명의 빛 희망의 빛

일시 | 불기 2068(2024)년 10월 12일(토) 14:00

장소 | 동국대학교 중강당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1길 30)

행사안내
1부 오프닝 공연
기념사 및 격려사
표창장 수여
비전 선포식
본 행사의 1부는 TV, 라디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2부 문화공연
감사인사

지난 30년 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많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시어, 30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축하 화환 대신 쌀로 보내주시면 소외된 이웃을 위해 좋은 날 잘 사용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문 의 02-734-8050

통도사, 개산대재로 '젊은 세대' 소통 나선다

10월 11일까지 개산 1379년 영축문화축제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 열어
'통도툰' 웹툰으로 만나는 통도사
10월 11일 자장 율사 영고재 봉행
제1회 통도사 합창제 새롭게 선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총림 통도사의 개산 1397년을 기념하는 영축문화축제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주제로 열린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로 통도사의 가치를 디지털 기술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조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들과 연결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과 '통도툰'이 핵심이 되어 대중을 만난다. '인터랙티브 종이 공예 체험'은 전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2024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10월 11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운영되며 통도사의 주요 유산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이 통도사 유산이 그려진 종이에 색칠하고, 이를 화면에 비추면 색칠한 그림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을 포함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웅전과 삼성반월교 등 통도사 주요 건축물을 주제로 한 3D 도면을 색칠하고 조립할 수 있으며, 해장보각 외부 호랑이 벽화와 명부전 용 벽화는 염서 형태로, 대웅전 꽃살문 문양과 대광명전 연꽃 문양은 주사위 형태로 제작된 종이를 색칠하는 체험이 제공된다.

이 체험을 통해 방문객들은 전통적인 사찰의 예술적 가치를 배우는 동시에, 현대 기술과 결합된 전통 예술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 통도사 방문객 전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웹툰으로 만나는 통도사 이야기 '통도툰'은 '2024 세계유산 통도사 홍보 지원사업'의 일환이며 통도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총 12편의 웹툰으로 풀어냈다. 젊은 세대에게 보다 쉽게 통도사의 유산을 알리고자 마련됐으며 10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통도사 홈페이지에서 연재된다. 연재 후에는 책자와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통도툰'은 통도사의 창건 설화부터 주요 건축물과 신앙, 탱화와 보물, 벽화까지 6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주제인 통도사 창건 설화는 3편의 웹툰으로 구성돼 통도사의 기원을 소개하며, 그 외에도 대웅전과 금강계단, 문수신앙, 통도사의 대표적인 보물들과 벽화를 다룬 이야기가 차례로 연재된다.

통도사는 "이번 사업들은 전통 사찰과 젊은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산 1397년 영축문화축제는 다양한 세대를 위한 문화 전법의 장으로 마련된다. 스님들이 일상 가운데 찍은 승가의 생활과 통도사의 경치를 볼 수 있는 '나도 작가다'는 감로당 앞에서 상시 전시된다. 국화장엄도 진행돼 가을 국화가 경내를 꾸미며, 9월 27일부터 10월 11일 까지 문수법당에서 '통도사 승가대학 서예전'도 열린다. 제3회 초·중·고 사생실기대회는 9월 28일, 제1회 통도사 합창제는 10월 6일 오후 2시 삼성반월교 옆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 및 어르신을 위한 영축문화축제'는 10월 8일이며, 괘불특별전은 10월 5일 진행된다.

개산조 자장 율사의 공덕을 기리는 영고재 및 개산대재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설법전과 개산조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10월 5일 부도헌다례, 10월 9일 영축삼보 이운식과 괘불헌공, 10월 11일 자장율사 가사배견도 진행된다.

"파도 같던 번뇌, 근본인 '바다'로 되돌리니 편안"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9월 7~8일 '바다마음 템플스테이'

인하대 등 대학생 30여 명 참여
윤회담, 촛불재 등 프로그램 다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지원 일원에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대학생 불자들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의 명상 프로그램 '바다마음'을 경험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9월 7일부터 8일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일원에서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인하대와 대동대, 부산대 등 대학생 불자 30여 명이 동참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입재식 및 '따뜻한 만남(윤회담)'으로 시작해 바다마음 체험 및 촛불재, 예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바다마음은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이 근본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 파도처럼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번뇌를 근본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바다는 참나인 근본을 상징하며 파도는 물방울, 즉 생각과 감정 등 번뇌를 말한다. 모든 번뇌도 참나에서 나온 경계이니 불성으로 되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내도록 돕는다.

바다마음 명상은 △바다마음 법문 정진(대행 선사 법문)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 △바다마음 컬러링(스님과의 대화)으로 나눠 진행됐다.

법문 정진은 블로그에 담긴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는 몸에 항상 단주를 지니고 다니며 잊어버리기 쉬운 참 자아를 챙기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바다마음 컬러링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물방울 그림에 색을 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스님과 대화하며 최근에 자주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참가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들은 지도법사 혜벽 스님은 "분노와 우울 등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일은 바다에서 나온 물방울과 같다"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한마음으로 되돌려 다시 바다와 같이 넓은 한마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 가르침을 일상 속에 적용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바다처럼 시원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를 마친 후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유진 학생(인하대)은 "바다마음 단주 만들기를 하는데 모든 감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두 나에게서 왔다고 하셨다. 최근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어서 놀랍기도 했고 좀 더 나에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입재식에서 "3000년 전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마음 심(心)'"이라며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쓰는가에 따라 물질계가 달라지고 바뀐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나를 바로 알고, 밝은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학술대회 연다

범어사 · 대각사상硏, MOU 체결
근대불교 금정총림 위상 재조명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와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이 9월 6일 범어사 주지실에서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 기념 범어사·대각사상연구원 학술대회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을 통해 범어사와 대각사상연구원은 다가올 동산 대종사 60주기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학술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열반 60주년에 맞춰 '근현대불교 범어사의 위상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백용성 선사의 전법과 동산 선사, 불교정화운동과 범어사, 범어사와 경허 선사 등에 대해 연구 발표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총무국장 대방 스님을 비롯해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전 동국대 특임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학술대회는 용성 스님의 대각사상과 그 정신을 이은 동산 스님의 정화 사상 및 역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남구불교聯, 일제 희생자 합동위령재

9월 5일 일제강제동원역사관서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가 9월 5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7층 추모공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최한 '2024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전국합동위령재'에서 남구불교연합회는 불교의례를 담당했다.

남구불교연합회는 능후 스님이 낭독한 발원문에서 "산과 강을 빼앗기고 국토는 유린되어 주인을 잃어버린 조국에 이름없는 조선의 남녀노소는 징병으로, 징용으로, 원자폭탄으로, 위안부로, 강제동원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해방이 된 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한 채, 한을 풀지 못한 영원들은 우리의 가슴에 아픔으로 남았다"고 추모했다.

한편,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9월 5일 남구청장실에서 한가위 자비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비암, 한가위 맞아 자비나눔 실천

백미 20kg 100포 후원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이 9월 9일 경내 일원에서 추석을 맞아 사랑의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자비암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백미 20kg 100포(600만 원 상당)을 동래구청에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주지 자관 스님은 "한가위 추석은 무엇보다 한해의 결실을 축하하고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소중한 명절이다"며 "어려운 이웃들은 축제 기간에 오히려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들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잘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영화선사 방한법회

1차 10월 12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화엄경〉 강설

2차 10월 13일(일)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일원역)
1:00~2:40 정토법회(〈아미타경〉 독송 및 염불)
3:00~5:00 '정토왕생과 염불' 법문

3차 10월 19일(토)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서울 수서역)
1:00~2:00 영화선사와 그룹좌선 (또는 선명상 기초교육)
2:00~3:00 선명상 다르마톡
3:30~5:00 〈유마경〉 강설

4차 10월 20일(일) 서울 길상사
11:00 '미국 위앙종의 정수' 초청 법문



7일 집중 수행 '관음칠'
■일 시 : 9월 29일(일) ~ 10월 6일(일)
■장 소 : 청주 보산사(오송역)
7일간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및 관세음보살 염불 집중 수행

■문 의 : 대지스님 010-6788-8451 / 현공스님 010-6351-6391
■주 최 : (사)위앙종

사단법인 위앙종
네이버카페 웹사이트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숏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봉녕사 청년회 재창립…“불자로 살겠습니다”

9월 7일 대적광전서 창립법회
2013년 쇠퇴 후 28명 재가입
진상 스님 비롯 대중스님 축하
9월 28~29일 템플스테이 예정

수원=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수원 봉녕사는 9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 이후 가진 기념촬영 모습.

조계종 봉녕사 청년회가 오랜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청년 불자들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웃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는 9월 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청년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청년회에는 수원 지역 인근 대학생·청년 불자 28명이 가입했다. 이 자리에는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 율주 적연 스님, 최지곤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회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봉녕사 대중스님 전원과 신도회 임원진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봉녕사 청년회는 2006년 당시 주지를 맡았던 묘엄 스님에 의해 창립됐다. 활발한 운영을 이어오다 2013년, 환경적 어려움으로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재창립에 원력을 낸 건 지금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이다. 청년 불자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 몇몇은 부설 거사회 소속으로 활동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청년회 재창립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렇게 인스타그램 등 SNS로 청년 불자들을 모집했고, 1달 여만에 28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중에는 제2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에 참여했던 어머니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가입을 결심한 청년도 있었고, 불교가 궁금해 처음 불교를 접한 이들도 여럿이었다.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각양각생 청년이 모였지만,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는 의지만은 하나였다.

이날 청년 불자들은 발원문을 봉독하며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난 인연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바라건대 법우들 모두 항상 따뜻한 마음과 고운 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법의 도반이 돼 정법 속에서 정진하게 하소서.”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다. 그와 동시에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또한 같이 안고 있다”며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온 여러분은 이 시대의 행운아”라고 격려했다.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통해 여러분은 확신과 신념에 찬 미래를 걸어가길 기원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고정불변의 실체에 포박당하지 말고,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가라”고 주문했다.

이어 스님들은 청년들에게 책 ‘연꽃으로 오신 묘엄 스님’ 상·하권과 합장주, 꽃다발을 선물했다. 창립법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일우실로 이동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청년회 지도법사를 맡은 봉녕사승가대학 학감 도연 스님이 자기소개와 향후 일정을 공지했다. 청년회는 9월 28~29일 봉녕사에서 템플스테이로 첫 활동을 펼친다. 불교 명상, 경전 독송, 사찰음식 배우기, 불교 다례, 차담,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불교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거사회 소속으로 신행활동을 이어왔던 임경찬(31) 씨와 정송담(29) 씨는 또래와 함께할 수 있는 청년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임경찬 씨는 “청년회에서 젊고 효율적인 신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봉녕사 청년회가 널리 알려져 도반들도 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송담 씨는 “청년회가 없어, 거사회 회원들과 함께 활동했는데 많이 조심스러웠다. 청년회에서는 주체적으로 또래들과 신행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교가 알고 싶어 직접 회원 신청을 했다는 박현호(32) 씨는 “올해 봉녕사에서 처음으로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다. 그 인연으로 불교에 호감이 생겼고, 궁금했다”며 “어떻게 불교를 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청년회가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경주 흥륜사, 이차돈 1497주기 추모다례

9월 7일 경내 특별법단서



경주 흥륜사(주지 법진 스님)가 이차돈 성사 1497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흥륜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흥륜사 옛 법당터가 발굴조사 중임을 밝혔다. “학계의 연구와 고증을 거쳐 조사를 마치면 도량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조사와 더불어 흥륜사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한 선방 운영과 이차돈 성사 추모다례재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의현 스님은 “이차돈 성사의 순교로 신라에 불교가 공인되고 융성할 수 있었다”면서 “신라에 불교를 전하고자 했던 이차돈 성사의 원력을 인간의 사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래지에 들어서야 그 원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법장 대종사 19주기 다례재

9월 10일 경내 대웅전서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9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대종사 열반 19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추모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학술원장 정묵 스님 등 문도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이 좀 더 오래 계셨다면 우리 산중과 종단에 큰 보탬이 됐을 것”이라며 “어려웠던 시기에도 수덕사가 기반을 만들 수 있던 것은 법장 스님의 신심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추모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법장 스님의 기일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대중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창원불교聯,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

9월 11일 창원 성주사서



창원시 불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일구기 위한 자비나눔법회를 개최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는 9월 11일 창원 성주사 설법전에서 제33회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추석 선물도 전달했다.〈사진〉

장학금 전달식에는 신다혜 마산제일여고 학생 등 학생 70여 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35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한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학생들에게 500만원 상당의 자비선물세트와 햅쌀 4kg, 두유 세트 등을 선물했다.

창원불교연합회장 법안 스님은 “나눔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행”이라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주불교합창단聯 제5회 합창제 성료

청주시불교합창단연합회(단장 홍정선)가 9월 8일 청주 예술의전당 대강당에서 올해로 5회를 맞는 청주시 불교연합합창제를 성료했다.

합창제에는 △관음사 무디따 합창단 △마야사 룸비니 합창단 △평화사 가릉빈가 합창단 △태고종 연꽃합창단 △풍주사 아사미 합창단 △월명사 달빛소리 합창단 △용화사 바가바 합창단 △명장사 관음합창단 △제주 보림사 금강불음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부처님 법음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밀양 금토산 약수암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

밀양 금오산 약수암이 천일기도 법회를 회향하며 불사리대탑과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약수암은 9월 8일 경내에 새롭게 조성한 불사리대탑 앞에서 대탑과 문수·보현보살 점안법회를 진행했다.

약수암 회주 환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출가한지 54년의 세월동안 많은 불사를 해오다가 오늘 불사리대탑과 문수·보현보살의 점안식을 봉행하게 됐다”며 “크고 작은 불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불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 ‘깨달음 사회화’ 위해 머리 맞대다

9월 8일 전주 수현사서
8차 사부대중 원탁회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깨달음의 사회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 사부대중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불교미래본부(공동본부장 평상·화평 스님)가 9월 8일 전주 수현사에서 제8차 사부대중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주창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 금산사 부주지 덕림 스님, 금선암 덕산 스님, 정수사 효진 스님, 남원사 관성 스님, 남고사 석초 스님, 심곡사 정안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송재면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안수빈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재가불자들이 동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만곤 사부대중 원탁회의 사무국장이 발표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보고’를 통해 △우리는 왜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를 준비하는가? △1995년 월주 대종사가 주창한 ‘깨달음의 사회화’ 정의 △제2의 깨달음의 사회화 방향성 등이 논의됐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승가와 재가불자들이 한 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른 교구에서는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며 “전북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포함해 환경과 기후변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의 마중물이 되자”고 밝혔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은 축사를 통해 “월주 대종사의 유지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사부대중 원탁회의 의장 도법 스님은 “전북미래본부는 사부대중이 더 다양하고 개방적인 시도로 미래를 희망차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사부대중도 관심과 협력으로 전북불교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불교미래본부는 오는 10월 19일 금산사 개산대재에서 ‘깨달음의 사회화’ 시즌2 선포식을 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학위수여·평화기원 법회

9월 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서



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대승통)이 9월 7일 캘리포니아 국제대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및 국태민안 국난극복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구 인터불고호텔 즐거운 홀에서 열린 1부 캘리포니아 국제대 학위수여식과 2부 국태민안 국난극복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방종석 캘리포니아 국제 총장은 세계불교교황청 대법황 향덕 존자에게 아시아 태평양 명예총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법홍 법사에게 한국명예총장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 향덕 존자, 법홍 법사 등 스님 14명이 명예박사 학위증서와 학위패를 받았다. 대봉 스님과 법성 스님이 감사장을 받았고 인연 스님 등 17명의 불자가 캘리포니아 국제대 표창장을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오케스트라 선율로 늦여름을 물들이다

9월 7일 완주 송광사서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늦여름 밤, 완주 송광사가 오케스트라 선율에 흠뻑 젖었다.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 스님)는 9월 7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송광백련나비채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권민식)가 출연해 송광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늦여름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다.〈사진〉

지난 2011년 칠석 사랑 음악회로 시작된 ‘송광백련나비채 음악회’는 그동안 국내외 저명한 음악가들이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지역주민들은 클래식 음악으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이웃들과 소통해왔다.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으로 막을 연 이날 음악회는 피아니스트 박연민, 바리톤 김성결, 첼리스트 윤석우 등이 연주에 나섰다. 이들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비제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2번,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마단조 등 명곡을 연주해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은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욕망을 비워내며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길이 행복의 길”이라며 “나비채 음악회가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나누고 비우고 채우는 ‘나비채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악회에 앞서 경내 사운당 앞마당에서는 지역 기관장과 주민들을 초청해 연 음식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 행사도 개최됐다. 송광사 연밭에서 채취한 연을 주요 식재료로 준비한 ‘아름다운 연음식 만찬’은 즐거울 소(笑), 적을 소(小), 푸성귀 소(蔬)의 3가지 ‘삼소식’을 주제로 한 사찰음식이다.

한편 이날 음악회에는 김제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 완주 송광사 주지 법진 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유남희 송광사 신도회장, 유인태 완주군수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은사, 아미타불 조성불사 회향

9월 7일 경내 극락보전 일대서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9월 7일 경내 극락보전에 아미타불을 새롭게 조성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화엄사 문장 종국 스님을 증명법사로 아미타불 점안식을 봉행한 후 보물 제1340호로 지정된 천은사 괘불탱화(모사본)을 박물관에서 이운해 ‘2024 천은사 괘불재 및 아미타불 조성 복장불사’를 진행했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천은사가 100~200년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과 함께 기도정진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양행선 전남지사장

中, 티베트불교 환생자 제도에 개입 시도 '논란'

박영빈 객원기자

9월 3일 비공식 세미나 개최
중국 종교사업, 정책 이행 요구
티베트불교계 반발 · 비판 이어져
달라이라마 "정치적 이용 불가"

티베트불교에 다방면의 규제를 가하는 중국이 최근 티베트불교 고유의 환생자 제도 개입을 시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 논란이다.

중국의 온라인 티베트 뉴스 서비스 '중국서장망(中國西藏網)'은 9월 3일 간쑤성 란저우에서 열린 '티베트불교 환생자를 공인하는 방식' 의제의 세미나에 대해 보도했다.

세미나에는 중국 종교 전문가, 정부당국자, 티베트 자치구 불교 지도자 등 50명 이상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옛 티베트 지역인 암도, 캄을 포함해 티베트 자치구, 쓰촨성, 간쑤성 등 티베트불교 영향권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세미나의 공식 주제는 '티베트불교 환생자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정책법규 연찬 토론'이었다. 중국정부가 공인한 티베트불교 출가자 교육·양성 시설 중국고급티베트불교대학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연설과 토론의 세부 내용은 비공개됐다.

공식적인 세미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서장망 측은 "세미나에서는 티베트불교계가 시진핑 사상에 따른 공산당의 종교사업 및 티베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세미나를 계기로 티베트불교의 건강한 전파와 중국 사회주의와 양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 티베트불교 고유의 환생자 제도에 있어 환생한 불교스승은 반드시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환생자를 찾아내고 공인하는 전반적인 체계에 중국당국이 개입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란저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중국불교계 인사들. 사진출처=중국서장망

세미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와 해외 각국의 티베트 불교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망명정부 측은 "이런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불교의 중심인물 달라이라마의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외신들은 "세미나에서 현 14대 달라이라마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이 세미나는 분명히 현 달라이라마와 그의 환생에 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의 티베트 전문매체 '티베탄 리뷰(Tibetan Review)'는 "현 달라이라마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세납 90세가 된 후, 즉 내년 7월 6일 이후에 자신의 환생을 수색하고 인정하기 위한 지침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최근 달라이라마의 무릎수술 등 건강 문제가 이어지자 중국당국이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달라이라마는 지난 2011년 성명을 통해 "나의 환생자에 대한 수색과 선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달라이라마의 공식 사무국인 간댄포당의 관련 임원에게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환생자에 대한 명확한 서면 지침을 남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누구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달라이라마 후보자를 인정하거나 공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印배우 가간 말릭, 스리랑카 불교 순례 나서

9월 4일 불교순례자 65명과 함께
"전 세계 불교 홍포에 앞장설 것"

183cm의 훤칠한 키에 에메랄드 색깔의 꾸르타(kurta, 인도 전통 의상)를 입은 한 남성이 스리랑카 도심의 한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마치 스크린을 뚫고 나온 듯한 차림새에 여유 넘치는 얼굴. 강력한 왕족의 기운을 내뿜는 그는 65명의 순례자를 이끌고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순례에 나선 인도의 영화배우 가간 말릭(Gagan Malik)이다.

영화 '고타마 싯다르타 부처님(Sri Siddhartha Gautama)'의 싯다르타 왕자로 등장했던 가간 말릭이 '포교자'로서 불교순례자 65명과 함께 스리랑카 순례를 시작했다.

스리랑카 온라인 매체 '이코노미넥스트(EconomyNext)'는 지난 9월 4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의 시나몬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말릭과 함께 한 인터뷰를 게재했다. 말릭은 인터뷰에서 "2013년 싯다르타 왕자를 연기하며 처음 접한 불교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과 열반에 대한 교훈을 접하고 보물 같은 지혜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말릭은 불교가 자신을 자비롭고 차분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음을 챙기면 고통에 맞설 힘이 생기고 인생의 어려움이 쉽게 지나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불교도와 불교유적이 있는 인도는 불교 순례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인도의 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고 스리랑카와 우호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를 순례에 나선 인도 영화 배우 가간 말릭. 사진출처=이코노미넥스트

말릭은 깊이 있는 불교 공부를 위해 2014년 포손 포야(Poson Poya, 스리랑카에 불교가 전해진 날)에 스리랑카 미힌탈레(Mihintale)에서 수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불교를 전파하는 비영리재단 '가간 말릭 재단(Gagan Malik Foundation)'을 설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다. 특히 재단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앞장선다.

같은 날, 말릭과 순례단은 콜롬보의 템플 트리 리조트에서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를 만났다. 구나와르데 총리는 "불교는 인도와 스리랑카를 묶는 가장 강한 유대감"이라며 "인도 아쇼카 왕과 그의 아들 아라핫 마힌다가 스리랑카에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전해준 데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례단의 샤시칸트 완카데(Shashikant Wankhade) 씨는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에서 웅장한 차이티야(Caitiya, 스투파의 시초)를 보고, 신성한 스리마하보디(Sri Maha Bodhi, 인도 보드가야에서 스리랑카로 이운한 보리수 나무)를 숭배했다"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도 스리랑카 불교 순례를 하라고 권장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니타 프라모드(Anita Pramod) 씨도 감상을 남겼다. 아니타는 "아름다운 도시 캔디(Kandy)의 사원을 방문해 기억에 남는 경험을 했다"며 "두 자녀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의 도시를 보고 경함할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낙시터에서 발견된 '당나라 불두' 〈佛頭〉

허난성 뤄양시서 주민신고
룽먼석굴 유실 불상 추정

고대 중국의 수도로 유명한 허난성 뤄양시(洛陽市) 강가에서 당나라 시기 불두(佛頭)가 발견돼 화제다. 지역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이 불두는 룽먼석굴(龍門石窟)에서 유실된 불상의 일부로 추정 중이다. '베이징청년보'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들은 지난 9월 1일 이와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뤄양시 주민 마씨는 8월 30일 친구 2명과 함께 지역 낙시터 이허(伊河)에 갔다가 불두를 발견했다. 낙시 지점은 룽먼석굴로부터 약 1km 떨어진 강의 하류였다.

지역 토박이로 룽먼석굴을 자주 방문하는 마씨는 "낚시 도중 물이끼가 잔뜩 낀 불두처럼 보이는 돌이 보였다"며 "이끼를 물로 씻어내자 얼굴과 명문이 제대로 보였는데, 룽먼석굴의 불상들과 매우 유사했다"고 말했다.

불두로 보이는 돌이 문화재라고 판단한 마씨와 친구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동행한 전문가들은 현장 기초조사에서 해당 불두가 당대(618~907년)에 제작됐다고 추정했다. 뒤이어 불두를 인수받은 룽먼석굴연구원 측은 긴급조사를 거친 뒤 불두가 당대 유물임을 확인했다.


이허 강변에서 발견된 당대 석조 불두. 사진출처=베이징청년보

불두의 높이는 약 60cm, 무게는 15kg로 목부분에 절단흔이 남아있다. 룽먼석굴연구원 역사인문연구센터 로웨이 주임은 "이허는 고대에 수량이 비교적 많아 룽먼석굴에 홍수 피해를 자주 입혔다"며 "이 불두의 경우 홍수 피해로 떨어진 불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로 주임은 "당대 기록에 따르면 개원 10년(732년) 2월 이허가 범람해 룽먼의 천축사와 봉선사를 파괴했다고 한다. 이 영향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국가유산수리기능
목조각 제 1728호
소 목 제 5972호
www.dongbangart.co.kr

동방예술원

사찰 내부불사 _ 수미단, 닫집, 목창호, 인등장, 현판, 주련

전통 꽃살창호 및 각종 한식창호 제작



동방조형예술원 489-30-01174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여양1로 612-18 010-7581-1010

미래사회 과학과 마음 조명한다

한마음과학원,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10월 5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한마음과학 세계화 교류 일환
독일 후터 교수 기조강연 진행
대행 선사 조명 연구논문 발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래사회 과학과 마음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재)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 스님)은 오는 10월 5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이라는 주제로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행 선사가 1996년 설립한 한마음과학원은 한마음과학의 체계화, 세계화, 생활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대회와 연구회 운영 및 학술세미나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2027년)을 앞두고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대중화를 주창한 대행 선사의 뜻에 따라,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불교와 한마음사상을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적용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 학술대회에는 대만 자제공덕회의 치엔 테린 교수를 초청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에는 베트남의 호치민대 '종교와 신앙연구소' 소장 호앙 티 란 교수를 초청해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독일, 캐나다 등 해외학자들의 논문 발표를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제학술대회는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트 후터 교수의 '대행 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기조강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세션1에서는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 한마음선원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유정오 이반성초등학교 교사, 진복선 한마음과학원 회원, 허기준 전남대 교수)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 '지혜로운 마음'을 중심으로(최명희 경북대 강사)가 발표된다.

세션2에서는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위빠사나를 중심으로(이광숙 동방문화대학원대 미래교육원 책임교수)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 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박소진 신한대 교수) △마음챙김과 대행 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글렌 최 세네카 폴리테크닉 교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세션 발표 토론자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한스욕 에플레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부교수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4편의 포스터 발표가 이뤄진다. 한마음과학원이 주인공 관법을 활용해서 진행해 온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가자의 경험과 진행자의 경험을 각각 질적 연구한 결과가 2편 발표된다.

또한 교사들이 직접 초등학교 현장에서 주인공 관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 온 경험에 대해서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연구한 결과도 발표되며, 한마음과학원의 교육학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고 있는 '한마음 교육학 이론화' 연구는 올해 교사론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한마음과학원장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은 "한마음과학원에서는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심포지엄과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최근 젊은 세대들이 명상과 불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주제들 또한 명상을 통해 대행 선사의 법을 전하고자 하는 발표자들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 있다"고 기대했다.


명승 지정 예고된 영취산과 흥국사 전경.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 명승 지정된다

국가유산청 9월 9일 지정예고
진달래 군락 경관 높게 평가

진달래 군락지와 어우러진 경관으로 유명한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9월 9일 밝혔다.

'여수 영취산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기암괴석, 수계 등 빼어난 지형이 진달래 군락지와 조화롭게 어우러져 그 자체로 뛰어난 경관을 이루고 있다. 산 정상부에서 골명재 벚나무 군락지와 남해안 다도해의 해상풍경, 여수반도의 전경 등 다양한 풍경을 함께 조망할 수 있어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영취산 기슭에 위치한 흥국사(興國寺)는 '나라를 흥하게 한다'는 흥국의 염원을 담고 있는 호국불교의 상징적 장소로,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여수 흥국사 홍교' 등 다수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여수 흥국사 일원은 영취산의 지형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식생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선명상, 선사 진영 통해 마주하다

홍나연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
'선명상과 함께한 선사진영전'
9월 23일~10월 1일 전시 열려



홍나연 소장이 복원·재창작한 '원광 법사 진영'.

고승진영은 불교 전래 이후 덕망이 높은 고승을 추앙하는 숭배신앙으로 중국 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에 걸쳐 성립되고 발전했다. 한반도의 고승진영은 9세기 중엽 당에서 귀국한 도의 선사(道義禪師)에 의해 선종이 전래하면서 진영의 제작과 봉안이 성행했다.

특히 선종은 선사의 진영을 봉안함으로써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조사력을 기원했다. 그러기에 선사의 진영은 사자상승(師資相承)의 증표로써 법통의 확인과 수계(授戒)의 목적, 역대 스승의 체계를 세움으로써 종파와 사찰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널리 봉안됐다. 선종 고승진영의 맥을 계승한 진영 전시가 열린다.

홍나연 불교미술문화연구소장은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선사진영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불교 선지식의 선 수행법을 현대적 정서로 새롭게 정립한 '선명상 프로그램'의 탄생을 기념하고 오랜 역사의 위기에서도 불법을 지키고 소아를 넘어 대중을 위한 '이고득락'을 실천 수행한 우리 선지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6~7세기 파격적인 계율과 방편으로 통일을 견인하고 '자리이타'의 대승사상을 구현한 원광법사를 역사적인 사료와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재창작했다. 이는 홍 소장의 박사학위 논문인 '〈원광법사진영〉과 그 복원 연구(2022)'의 소산으로 복원하기까지 근간이 되는 대승사상 연구와 출초, 채색에 이르는 과정을 불교교학, 고고미술사학, 불교회화의 전공 심사위원으로부터 검증을 거쳐 복원됐다. 이와 함께 전시회에서는 조선 후기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고 진작시킨 근현대 선사들의 진영과 수월관음보살도 등 총 17개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다.

홍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법은 형체가 없기에 신영(神影)을 남겨 지계와 선정의 귀감으로 삼는다'는 옛 선현의 가르침대로 새롭게 궁구한 선지식들을 관조하며 그 정신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금의 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홍 소장은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와 불교회화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불교미술학 석사, 불교학 박사를 취득했다. 개인전을 12회 개최한 홍 소장은 현재 불교미술문화연구소·한국전통진영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세계불학硏 '원효 단간본' 학술대회

9월 21일 동국대 법학만해관서

원효 스님(617~686)의 저서 가운데 단간본을 중심으로 저술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 9월 21일 동국대 법학만해관 163호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제26차 학술대회 '분황 원효의 단간본 연구 II'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학의 지위를 국학 혹은 한국학의 지평 속에서 확립하고, 우리 인문학의 위상을 불교학의 지형 속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원효 스님의 현존 20여 종의 저술은 1700여 년 동안 한국인들이 저술한 불교 전적을 집성한 '한국불교전서' 제1책(신라시대편)과 '한국불교전서' 제15책(보유편 제5책)에 불완전한 단편잔간(短篇殘簡) 즉 단간본으로 수록돼있다. 하반기에는 '반야심경소' '해심밀경소'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이장의' '대승기신론별기'를 중점으로 다룬다.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반야심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이수미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해심밀경소〉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김영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초빙교수가 '분황 원효 〈십문화쟁론〉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고은진 제주대 철학과 학술연구교수가 '분황 원효 〈대승기신론이장의〉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분황 원효 〈대승기신론별기〉의 중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주제로 발제한다. 논평은 김은서 한국불교사연구소 연구원, 박서연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학술초빙교수, 배경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학술초빙교수,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 도욱 스님, 김영미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상담심리학과 교수가 각각 맡는다.

김내영 기자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4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4.9.1 - 10.25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hfm@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논문접수 '24.9.1~'24.10.25 → 1차심사 결과발표 '24.11.4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24.11.15

우수논문 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접수 및 문의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 학회 사무국
이메일 : tosok.hfm@gmail.com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1~9/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2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	운주사	7	자아와 명상(2) 대학생을 위한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동국대학교출판부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초기불교입문:초기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스님 지음	초기불전연구원
4	위빳사나수행 28일	자나까비왐사/케마	한국빠알리성전협회	9	예수님은 법 받은 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5	구루빠드마쌈바와 기원문(연꽃에서 화생한 불사의 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10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책세상

人無我 증득, 유부 수행도의 궁극적 목적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

김경희 지음
운주사 / 2만3천원

'현관'에 주목 제법과 현관 관계 검토
법의 이론 · 실천의 이론 관련성 고찰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 수행의 중심 사성제는 초기경전에 이어 설일체유부로 계승된다. 사진은 부처님이 사성제를 처음 설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초전법륜' 벽화(수덕사).

설일체유부에서 수행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현관(現觀) 개념에 대해 초기경전과 아비달마 논서를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설일체유부의 이론과 수행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한 책이 나왔다. 〈설일체유부의 수행도론〉이다.

불교의 실천적 수행의 중심에는 붓다가 깨달은 진리인 사성제가 있으며, 이는 초기경전에 이어 설일체유부로 계승된다. 유부의 사상가들은 성자의 단계인 견도에 도달하고자 제현관을 수행의 핵심 개념으로 채택했다. 현관은 초기불교에서 존재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여실지견의 경험인식과 같은 의미이다.

이 책은 명상관찰자가 분석과 통찰의 대상이 되는 존재 요소인 5온의 특징을 '무상·고·무아'로 이해하고 '자아'와 관련짓지 않은 점진적 과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중요한 유부 논서에서의 현관 개념에 주목하여 제법과 현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법의 이론'과 '실천의 이론'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유부 수행도의 특징과 기존의 연구를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정통 유부 문헌을 중심으로 현관 개념을 살펴보고, 현관의 대상이 되는 사성제법, 법을 관찰하는 혜(prajñā)에 대한 유부의 이해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견도 이전 가행위에 속하는 부정관과 지식념, 사념주, 사선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법의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유부의 수행체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 같은 수행체계는 일체법에 대한 수행자의 인식이 변화 발전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기도 하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비바사론〉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수행체계를 비교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부의 번뇌 개념이 두 가지 관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존재론적 관점은 5위 가운데 마음(心)과 상응하는 심소법의 범주 내에서 오염된 심리작용을 총칭하는 일반명사로 번뇌의 법상(法相)을 분류 체계화한다. 둘째로 실천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유부의 수행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수면(隨眠)이란 개념을 사용하여 수행력으로 단절하기 어려운 번뇌의 특징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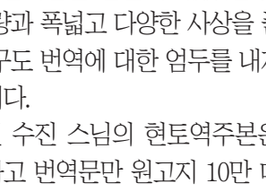
제7장에서는 〈심론〉 계열의 논서를 계승하는 〈구사론〉과 정통 유부 계열 논서의 수행 순서가 다른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행의 차이점보다는 혜가 통찰하는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부가 제시하는 수행체계는 수행자가 명상체험에서 인식하는 궁극적 실재인 일체법의 변화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제8장에서는 고(苦)의 주요한 원인인 유신견을 존재론과 인식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존재의 특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유부 수행도론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고찰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이 책은 5취온의 특징이 무상·고·공·무아라고 깨닫는 인무아(人無我)의 증득이 유부 수행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유부가 제시한 수행체계의 검토를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아비달마 사상가들의 일체법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는 실천수행자가 선행해야 하는 중요한 학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청량국사화엄경소초〉

5차분 42권~53권 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 42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운주사 / 2만7천원

청량 징관 스님의 〈화엄경소초〉를 수진 스님이 현토역주한 〈청량국사화엄경소초〉 42권~53권이 최근 출간됐다. 전체 100권으로 기획된 역주본 중 이번 책은 1차분(2020년) 〈화엄현담〉 10권과 2차분(2021년) '세주묘엄품' 7권, 3차분(2022년) '여래현상품'~'보살문명품' 13권, 4차분(2023) '정행품'~'십행품' 11권에 이은 5차분으로 십무진장품, 승도솔궁게찬품, 도솔천궁게찬품, 십회향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80권본 〈화엄경〉에 소(疏) 60권, 초(鈔) 90권을 붙인 것으로 그 분량이 방대하다. 대소승의 경(經)과 논(論)은 물론이고 유가와 노장까지 종횡으로 넘나드는 상세하고 치밀한 해설을 붙여 가장 뛰어난 〈화엄경〉 주석서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제껏 그 완역본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방대한 분량과 폭넓고 다양한 사상을 품고 있어서 누구도 번역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수진 스님의 현토역주본은 원문을 제외하고 번역문만 원고지 10만 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원문 현토와 함께 원문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한 상세한 각주로 한국불교의 사상적 근간인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진 스님은 1971년 문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4년 수계, 해인사 강원과 금산사 화엄학림을 졸업하고, 운성 운기 등 당대 강백 열 분에게 10년간 참문수학했다. 1984년부터 수선안거 10년을 성만하고, 1993년부터 7년간 해인사 강원 강주로 학인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교육위원, 역경위원,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및 율주를 역임했다. 현재 부산 승학산 해인정사에 주석하면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박재완 기자

목전 경계서 '무아' 깨쳐 자증하라

〈自證〉



반야의 달 띄워보세

옥당 일휴 지음
운주사 / 4만원

"반야월을 / 제대로 보려는가
비 갠 뒤 맑은 바람에 / 창공의 달을 보라
마음을 텅 비우면 / 부처인들 조사인들 있겠는가"

-옥당 일휴, '능허 거사에게'-

책 〈반야의 달 띄워보세〉는 저자인 일휴 스님이 그동안 쓰거나 번역한 시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스님이 추구하는 수행과 공부의 견처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곳곳에 붙인 여적과 평은 시를 이해하는 또 다른 경지다. 책은 '게송시 / 솔바람 일자 풍경 울고', '번역시 /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한시 작법 격율론 일부' '자유시 / 그래도 세상에는 꽃 피고지고' '주석 / 징검다리 또는 뗏목이려니' 편으로 구성했다.

저자는 불교는 논리라고 규정한다. 선(禪) 불교도 당연히 '선의 논리'를 적용해야 '선적 깨달음'의 취지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법의 오묘한 교리를 배제하고, 선정의 신비적인 현묘한 경지를 배척한다. 저자에게 불교가 주는 대명제는 목전 경계에서 '무아' 또는 '공함'을 깨쳐 자증(自證)하라는 것이며, 그 자증은 곧 붓다의 초전법륜에서 제시하는, 인생의 전반에 걸쳐 수시로 나드는 삶의 괴로운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보아[正見] 현장에서 해탈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괴로운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본다[正見]'는 것은 '심리적·물리적 생멸 변화[無常]를 지각하고 인식함에 그 연기(緣起)하여 변화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지견[知見]을 확립하고 자증하는 것이다. 이 자증처를 다시 말한다면, 변화하는 심리적·물리적 사상은 무아요 무자성이요 무자체인, 즉 공성인 존재요, 통찰하는 인식의 '논리적 귀결처'임을 명징하게 증득하는 것이다.

이렇듯 수행자가 이 법계의 본지풍광을 정견한다면, 마음은 밝고 맑아 치우쳐진 변견(邊見)에 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번뇌에서 해탈하고 새로운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서, 삶의 터전에서는 하는 일마다 자유롭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행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깨달아야 할 불교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스님, '광우 스님' 신간 출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불보살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



삶이 힘겨울 때,
눈앞의 역경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바로 '기도'하라!

지극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이들의 신비로운 가피담과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깨닫게 하는
광우 스님의 감동적인 설법!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신묘한 기도의 힘

광우 지음 | 368쪽 | 20,000원



광우 스님 전국 불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수행자. BTN불교TV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세 시즌째 진행하고 있는 스님은 옛이야기를 듣는 듯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법,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공감의 이야기들로 많은 시청자들의사랑을 받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당신의 인간관계는 안녕합니까?"

완벽한 혼자로 살아갈 수 없다면
이 책이 전하는 '지혜'에 주목하라!



세계적 베스트셀러 『붓다 브레인』의 저자, 릭 핸슨.
그가 고전의 지혜와 과학적 연구,
그리고 임상 체험에서 길어 올린
'인간관계의 베테랑이 되는 법'

관계에
능숙해지는 법

쿨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위한
신경심리학자의 지혜

릭 핸슨 Ph.D. 지음 · 김윤종 옮김 | 344쪽 | 21,000원



틱낫한 스님의 14가지 현대 계율



틱낫한 인터빙
허우성 · 허주형 옮김
불광출판사 / 1만8천원

틱낫한의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 소개
팔정도 정념(正念) '마음챙김'으로 현대화
초기불교 10개 계율 14가지로 재구성해
"개인의 내적 성장이 곧 사회변화의 씨앗"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틱낫한 스님.

베트남 출신의 틱낫한(1926~2022)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팔정도의 하나인 정념(正念)을 '마음챙김'으로 현대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행공동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세계 불교계와 다른 영적 전통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신간 〈틱낫한 인터빙〉은 틱낫한 스님의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각 수행법의 의미와 그에 대한 해설 등 구체적인 실천법을 모두 담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풀럼빌리지에서 사용하는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을 받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틱낫한 스님의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의 기원은 초기불교 경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10개의 계율이다. 이것들의 목표는 인간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십악(十惡)을 버리는 것이다. 십악은 탐욕, 화냄, 삿된 견해, 거짓말, 양설, 욕설, 과장, 살생, 절도, 사음이다.

틱낫한 스님은 이 시대의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도록 10개의 계율을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핵심 가르침인 '상호존재'라는 개념을 통해 세상 만물의 연결성을 강조한 이 수행법은 단순한 명상 기법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는 종합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지침이자 현대인을 위한 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이다. 하지만 불교 탄생 이후 2천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탓에 붓다의 가르침과 수행법은 현대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공부일 수 있다. 틱낫한 스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스님이 창안한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은 일반인들이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구체적인 설명으로 만든 수행법이다.

'마음챙김'은 '매 순간 알아차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을 내거나 짜증을 내기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설거지 자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걷기, 앉기, 먹기와 같은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님의 '마음챙김'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마음의 개방, 견해에 대한 무집착, 사상의 자유, 고통의 자각, 자비롭고 건강한 생활, 화 돌보기,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게 머물기, 진정한 공동체와 소통, 진실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기, 공동체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바른 생업, 생명 존중, 관대함 기르기, 진정한 사랑이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했다.

매 순간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의 고통과 대면할 수 있다.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 중에는 원인조차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 이유는 괴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순간순간 천변만화하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로 보려면 자신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챙김 수행이 몸에 배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비로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독자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을 안고 사는 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대안과 의미 있는 통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틱낫한 스님은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을 통해 개인의 내적 성장이 곧 사회변화의 씨앗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는 하나의 명상 기법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천명인 것이다. 고통받는 인류에게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수행법을 실천한 많은 사람들은 "이 수행법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제적 차원의 평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수행법이 어렵지 않아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며, 이로써 장기적인 성장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윤리적인 마음챙김 생활을 통해 평화와 고요함을 기르며, 궁극적으로 사회를 탐욕과 소비주의에서 사려깊고 자비로운 행동이 가치 있는 사회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성장이 곧 사회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4가지 마음챙김 수행법'은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사회변화, 그리고 이를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세상을 더욱 이롭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일어나는 '기적'



기도 가피 이야기
광우 지음 · 소리여행 그림
불광출판사 / 2만원

"기도의 오묘하고 진실한 힘
진정한 기도는 마음 닦는 것"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위한 기도로 성장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정성입니다. 그 정성에 우주가 진동하고, 불보살님들이 찬탄하십니다."

신간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기도 수행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통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도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역경 앞에 선 막막한 대중을 위한 광우 스님의 공감의 설법이다.

책은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전한다. 염불, 오체투지, 사경, 진언 수행 등 지극한 기도 수행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꾼 이들의 영험담 92개를 소개한다. 저자인 스님이 직간접적으로 듣고, 옛 문헌을 통해 공부한 것들로부터 길어 올린 고래의 영험담에는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가족과의 갈등을 치유한 이야기, 원인 모를 병을 극복한 이야기, 빙의에서 벗어난 이야기 등은 그동안 궁금했던 '기도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 수행의 불가사의한 힘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비록 이 기적적인 일들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신비로운 이야기라 할지라도 수많은 스님, 불자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는 데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불상을 향해 절을 하거나, 사경을 하는 등 단순해 보이는 일에 어떻게 그런 힘이 담겨 있는지 궁금해진다.

저자에 의하면 기도는 염불, 오체투지, 사경 등 무엇이 되었건 악업을 단속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스님은 기도 수행엔 업장을 녹이는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농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런 기도에 정성과 간절함이 더해지면 우리 곁의 불보살님이 자연스레 감응하여 영험담의 주인공들처럼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책은 기도가 처음인 대중에게는 수행에 대한 열망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이들에게 수행에 대한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인 광우 스님은 방송과 유튜브는 물론, 전국 사찰을 다니며 많은 불자들에게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어릴 적부터 부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접해 온 스님은 열아홉의 나이에 가야산 해인사로 입산 출가했다. 이후 전국의 여러 선원에서 참선 정진하며, 좋은 스승과 도반들을 만나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다. 사찰의 불교대학에서 오랫동안 경전 강의를 해 온 스님은 우연한 인연으로 시작하게 된 BTN불교TV 프로그램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세 시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옛이야기를 듣는 듯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법,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공감의 이야기들로 현재도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람이 동물로부터 받는 '치유'



나보다 널 더 사랑해
발터 뫼비우스, 아름가르트 베란 지음 / 양삼승 옮김
불광출판사 / 1만6천원

어린 소녀의 당뇨수치를 관리해주는 당뇨경보견 샤페이, 선천성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년이 아기 흑돼지와 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 자폐스펙트럼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달팽이, 치매로 고통받는 노인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는 말, 시력을 잃은 베두인 유목민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낙타, 학대받는 어린 소녀의 동반자인 고양이 등 스무 편이 넘는 이야기들은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독일의 저명한 대학병원 내과·신경외과 의사인 저자는 환자를 치료하고,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접한 사람이 동물을 통해 아픔과 불행을 치유하게 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나보다 널 더 사랑해〉는 동물이 주는 치유 효과들에 대한 생생한 사례집이다.

'동물매개치료'라는 다소 생소해 보이는 분야의 외국 사례들이 거부감 없이 따뜻한 에세이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저자가 오랫동안 환자와 소통해 온 경륜 있는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환자를 위해 교도소를 찾아 교도소장을 설득해 재소자를 면담하는 장면은 환자의 병을 치유하려면 의사의 경청과 환자의 신뢰가 가장 소중하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책을 읽다 보면 그의 글에서 독일 사회의 지식인으로, 참된 의사로서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는 현재 우리 삶의 다양한 장소와 환경에서 개, 고양이, 말, 돼지, 낙타, 달팽이, 박쥐 등 여러 동물들을 만나며, 동물들이 각자의 특별한 능력으로 불편한 사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 〈나보다 널 더 사랑해〉는 "말 없는 동물과의 교감은 최고의 대화이자 위로이며, 큰 행복"이라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쉽고 재미있게, 염불명상 A에서 Z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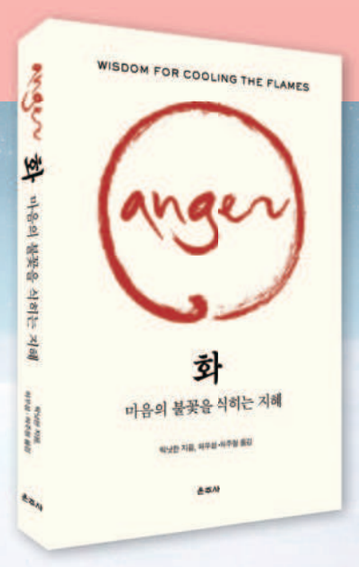
염불명상이란 무엇인가? 염불명상을 왜 하는가? 염불명상은 어떻게 하는가? 염불명상의 개념, 원리와 종류, 실천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는 입문서 겸 실천가이드북!

방경일 글, 정기영 그림/사륙배판/192쪽/값 20,000원

틱낫한 스님의 『화』, 20여년 만에 온전하게 번역되다!

원서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으로 비로소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접하게 되었다!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anger



화, 절망, 좌절감 등에서 벗어나 나와 상대가 행복해지는 가르침!

'화'의 본성을 이해하고 '화'에서 자유로워져야 행복할 수 있다.
'화'는 우리가 내쳐야 할 대상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도 아니다.
'화'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돌보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주요 원인은 외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화의 씨앗'이다. 그러므로 화를 발산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으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안아주고 미소를 보내면 된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 허주형 옮김/국판변형/252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명상, 생명을 행복하게 일궈나가는 방법”

‘몸 마음 쉼’ 생명살림법회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은 9월 1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법왕루에서 ‘2024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법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몸 · 마음 · 쉼 생명존중 · 자살예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법사로 나섰다. 이날 법문 내용을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이 9월 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몸 · 마음 · 쉼 생명살림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봉은사

지금 우리는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시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쭉 살아온 역사를 가만히 보면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산다고 하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귀한 휴일을 반납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훌륭한 불자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신비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회에 오기위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문득 지하철을 타고자 계단을 오락가락 하는 게 신묘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행동은 누구나 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일이지만 가장 신묘한 일이더군요. ‘걷는다’는 단순한 행동으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는다면 법회라는 자리도 만들어질 수 없고 만약 내 몸이 불편했다면 걷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무릎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아프면 서서 걸어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걸 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뭘 하고 사는지 잘 몰라서 멍하게 산다고 합니다. 산을 보면서 멍 때리는 ‘산멍’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물멍’ 온갖 멍 때리는 건 지금 다 발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절 보면서 멍 때리더라도 나가서 5분만 지나면 제 얼굴, 제 이야기 전부 산으로 가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같이 행복하고 잘 사는 때면 즐거운 이야기가 가득해서 생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잘 사는 요즘 주변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눌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자신이 뭔가를 누르면 편하고 좋은데 세상의 뭔지 모르는 것에 의해 눌린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내가 좋아하는 걸 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달리는 걸 좋아해서 마라톤 대회에 나가 42.195km를 1시간 안에 들어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전 세계가 여러분한테 집중하고 뭇 사람이 칭찬하겠죠. 이렇게 내가 잘 하는 어떤 일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최고라 하면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조금씩 쌓여 복합적으로 변화합니다.

뜻대로 안 되다보면 처음엔 기분이 조금 안 좋다 정도인데 조금씩 보태지기 시작하면 욕구불만으로 바뀝니다. 욕구불만이 자꾸 쌓이면 타인과 자신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지죠. 이런 변화를 의식해서 남 탓, 자기 탓만 덜해도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 ‘반추(反芻)’하길 권하고 싶습니다. ‘반추’란 ‘반복해 추억한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과거라는 것이 자신의 발목을 움켜잡고 놓지 않게 되는데 꼭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기분이 약간 안 좋을 때 역으로 과거에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면 빠르게 기분을 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전환이 가능한 반추는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명상법 중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대치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추억을 많이 떠올리는 사람을 꼰대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이 즐겁지 않아서 수시로 ‘그때 그랬지’를 꺼내는 행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기분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때가 있다면 종종 즐거웠던 과거를 반추해보는 게 좋습니다.

감정 나빠지면 좋은 추억 ‘반추’를
힘든 순간, 좋았던 기억으로 대치
내 무의식 변화 주는 방법이 ‘명상’
명상으로 편견 초기화… 안목 확장

반추와 함께 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산을 타다보면 중간부터 죽겠다 싶은 느낌이 들어요. 죽은 것과 비슷하지만 죽은 건 아닌 경험을 하는데 이때부터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현듯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너무 몸이 힘드니까 ‘살아야겠다’는 무의식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힘든 게 좋은 것으로 대치됩니다. 마라톤에서 ‘러너스 하이(Runners’ High)’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35km, 42km쯤 뛰다가 더 이상 못 뛰겠다 싶은 순간에 갑자기 근육이 쫙 이완되면서 어디서 나왔을지 모를 힘으로 더 힘차게 나아갑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생명력이 갑자기 발동하는 거죠.

너무 힘든 순간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기억, 향기가 떠오르는 순간. 우리에겐 그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세상 참 힘들다 싶다가도 무의식이 살짝 건드려지면 더 열심히 파이팅해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건드려주는 것 중 최고가 명상입니다. 명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상에서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명상은 들숨과 날숨의 조화로 만들어지는데 지역이나 사람마다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더울수록 날숨이 길고 추울수록 들숨이 길어요. 게다가 국내와 해외의 숨 길이도 달라요. 나에게 맞는 숨 길이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명상의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명상이 꽃 피는 시기예요. 스님들은 명상을 해라, 묻지 말고 그냥 해라 등 가르침을 받으면서 스스로 좋으니까 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인 중에 명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종단에서 명상을 주도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명상의 참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명상을 시작할 때 먼저 이완하라 합니다. 많은 분들의 어깨가 대개 생각보다 훨씬 긴장돼 올라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수록 더더욱 긴장하게 되죠. 신경을 쓸수록 긴장하고 피로도도 올라갑니다. 박진감 넘치는 영화를 보면서 긴장감 속에 자극을 받다가 이후 푹 쉬면서 이완하면 참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긴장을 한 뒤 충분히 이완하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두 팔에 무쇠가 든 양동이를 하나씩 들면 어떻게 되나요? 어깨가 지금보다 아래로 쑥 내려가죠. 이것이 바로 긴장하지 않은 어깨 상태라 생각하고 명상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말씀하신 명상 중 ‘무시로(無時로) 명상’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명상이라서 ‘무시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은 ‘연기성공(緣起性空)’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뭔가 행동이나 감정에 몰입하면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도 잊게 되죠?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정삼매(禪定三昧)의 기본입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건 내가 우주 공간 어디에 어떻게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 공간의 국소성이 사라지는 걸 공무변처(空無邊處)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아 의식이 대상을 파악하는 기능까지 사라지는 것이 식무변처(識無邊處), 의식이 무엇을 대상화시키지 않는 것이 무소유처(無所有處). 또한 유무까지 분별하지 않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지 않음을 전제합니다.

또한 아는 것을 전부 잊는 제로베이스, 무(無)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살이 하면서 겪은 모든 것을 리셋 시키는 공성(空性)을 거치면 앞서 말한 것들을 재밌게 이어가실 수 있어요. 또 세상이 납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나의 경험과 배움이 자동센서가 돼 세상 모든 것을 파악해서 하나를 들어도 판단이 계속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피로도가 쌓여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한 사찰에서 자기 직업군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분들을 대상으로 명상교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에 오래 종사해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분들인데 법조인,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여러분은 지금 7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판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생겼다, 발음이 이상하다, 옆 사람이 어떻다 등의 다른 생각을 끊어내는 사전작업이죠. 그게 안 되면 자신에게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승대덕들의 법문을 들어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은 것은 각자 자신만의 잣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자신이 만든 기준인데요, 명상을 통해 이것을 초기화 시키면 새로운 견해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로로 돌아가면 새로운 사유의 체계 확보도 가능합니다. 흔히 내면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남은 못 이룬 꿈, 응어리 등도 해소될 수 있죠. 이런 작업은 쉽지 않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조금씩 바꿔나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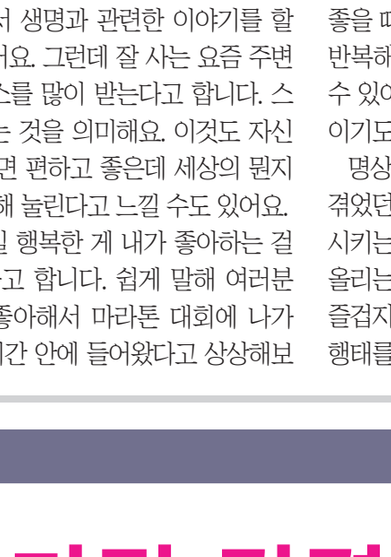
스스로 마음을 개선할 수 있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지럽거나 무거울 때 절에 방문해도 좋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눠도 좋습니다. 혹은 늘 우리를 기다리는 큰 부처님 앞에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됩니다.

생명을 행복하게 일궈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명상이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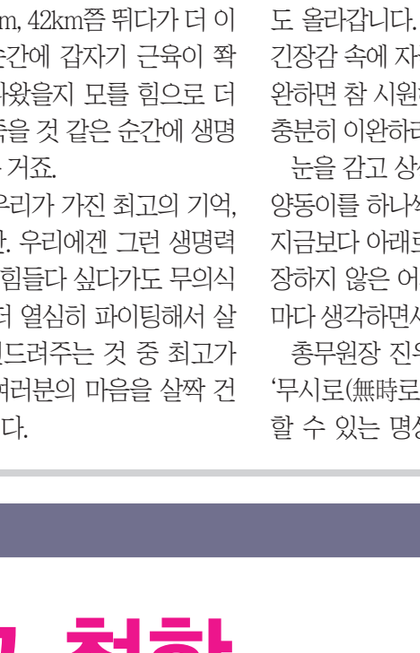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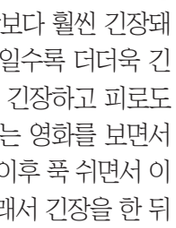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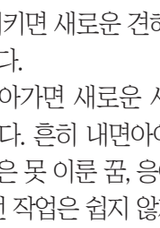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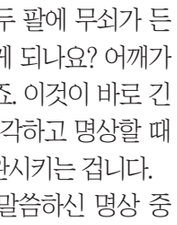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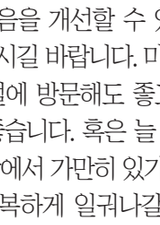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만해 문학엔 '대승불교사상'이 담겼다

주목! 이 논문

한용운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대승사상

만해 한용운 스님은 근현대 역사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가이자 불교계몽운동가였고, 민족의 아픔을 시로 풀어낸 시인이었다. 김형중 문학평론가는 8월 29일 '제9회 만해평화문학축전'에서 발표한 '한용운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대승사상'을 통해 만해 스님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대승불교사상에 대해 조명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한다.

정리=신중일 기자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동안의 만해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만해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독립운동가, 둘째 민족 저항시인, 셋째 계몽 사상가이다. 이 셋의 관계는 삼위일체이고 회삼귀일(會三歸一)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시문학 장르(자유시, 시조, 한시 등)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작품을 뽑아 거기에 나타난 만해의 대승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님의 침묵'과 대승사상

〈님의 침묵〉에서 '님'의 정체는 '부처' '중생' '조국' '깨달음' '불성' '애인' '자유' '독립' 등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상징어이다. 〈님의 침묵〉은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의 침묵'에서 유래한다. 만해가 〈님의 침묵〉이란 시집을 발표함으로써 당시 서구의 시를 번안하는 형식의 시 수준에 머물던 시단에 시 창작의 모범이 되었다.

이 시에서 '님'은 조국이고, '이별'은 일본에게 빼앗긴 조국과의 이별이다. 만해는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불교의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의 순환윤회의 진리를 근거로 제시하며 잃어버린 조국을 꼭 되찾을 것을 염원하고 있다.

〈님의 침묵〉에서 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이별과 만남이 둘이 아닌 불이(不二)의 사상적 근거는 〈유마경〉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이다.

〈님의 침묵〉 가운데 가장 부처의 자비사상이 잘 드러난 대표시가 '나룻배와 인'이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行人).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나룻배와 행인'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살면서도 부처님의 은혜를 모르고, 저버리고 배반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 날마다 스스로는 낡아가면서 그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대승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을 읊은 시이다.

'선사의 설법'에는 대승 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선사의 설법'은 만해의 혁명적인 선 법문이다. 선은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창조적인 인식의 전환을 추구한다.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을 받지 말고 사랑의 줄을 끊어라"는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고통을 면할 수 있음을 서술한 것이다. '선사의 설법'에서는 구도자인 선사의 깨달음의 세계인 대승 선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선사가 집착의 줄을 끊으라는 원론적인 설법을 하였는데, 만해는 이 시에서 대해탈은 속박에서 얻는다는 사실을 설파하고 있다. 고통스런 현실을 회피한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끝내 보리(菩提)를 얻는다.

만해 시조에 나타난 대승사상

만해의 시조는 〈한용운 전집〉(1978) 1권에 39수가 수록돼 있다. 그의 시조에도 깨달음의 세계를 읊은 선시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선시가 '춘주' 2수이다.

'춘주'는 "따사로운 봄날 대낮에 〈유마경〉을 읽는데 바람에 나는 꽃잎이 글자를 가렸다"로 시작한다. 처음에 붙인 제목 '공화란추(空華亂墜)'에서 알 수 있듯이 '허공을 나는 꽃(空華)'은 허공에 핀 꽃으로 본래 실체가 없는 번뇌망상을 상징하는 선어이다. 번뇌 망상을 없애고 진리의 길에 이르는 길은 참선의 체험뿐이다. 그러니 구태여 꽃 밑의 글자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선의 세계를 시화(詩化)한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사법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본체의 세계(이법계)가 서로 장애가 없이 원융한 화엄의 이사무애법계를 노래한 것이다.

만해의 '심우장(尋牛莊)'이라는 시조가 있다. 이는 1937년 〈신불교〉 제9집에 발표한 시조이다.

"잃을 소 없건 만은 찾을 손 우습도다/ 만일 잃은 씨 분명타 하면 찾은들 지닐쏘냐/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

'심우장' 초장 "잃을 소 없건마는 찾을 손 우습도다"는 우리의 본래 자성은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다. 따라서 잃어버릴 것도 찾을 것도 없는 자리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를 타고 소의 등 위에서 소를 찾듯이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찾는다. 본래마음(자성, 불성)을 찾으면 견성성불이다.

중장은 설사 마음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마음을 찾아서 지닐 수 있겠느냐는 뜻이다. 종장의 "차라리 찾지 말면 또 잃지나 않으리라"는 선종의 6조 혜능의 자성게(自性偈)의 뜻을 용사(用事)한 것이다. 혜능의 "본래무일물 하처염진애(本來無一物 何處染塵埃: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물들겠는가)"는 마음(一物)은 실체가 없어서 번뇌망상의 진애가 낄 수가 없으므로 닦을 것도 없다는 것이다. 찾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마음의 본래자리인 불성(자성)을 읊은 것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진영.

만해 한시에 나타난 대승사상

만해는 선시의 특성이 언어의 압축과 고도의 상징적 언어로 표현되듯이 가장 시어가 절제된 시체인 오언절구와 칠언절구가 대부분이다.

만해의 한시(총 165수) 가운데 '달(月)'을 소재로 하여 읊은 시가 많다. '월(月)'은 45회나 나타나는 시어이다. 만해의 시에서 달은 잃어버린 조국의 꿈과 희망, 생명을 주는 의미를 지닌다. 달은 조국 광복을 상징하는 빛이요, 항상 마음속에서 광명을 발휘하는 불성이다. 관월시(觀月詩, 詠月詩)가 만해의 한시에 6수 있다.

'월욕생' '월초생' '월방중' '월욕락' 4수의 연작 관월시를 짓기 전에 달을 보고 묘오(妙悟)의 경지에서 시작을 시도하는 '견월'과 달과 함께 하나가 되어 무아지경에서 노는 '완월'이 있다.

'월욕생(月欲生)'은 달이 막 떠오르려 할 때를 인상적으로 묘사한 시이다. 달이 뜨기 전에 뭇 별들이 먼저 나타나서 빛을 비추니 온갖 잡념과 번뇌가 사라져 울창한 숲 속의 고요와 함께 그 위에 달을 뜨려고 준비하고 있다.

'월초생(月初生)'은 달이 막 나올 때의 전경을 묘사한 시다. 백옥같이 깨끗한 마음의 달이 푸른 언덕 위에 나타나니, 산 속 시냇물 위에서는 황금덩이가 춤을 추며 놀고 있다.

'월방중(月方中)'은 달이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을 때의 전경을 읊은 시이다. 기구와 승구에서 달이 중천에 떠서 만국의 사람이 달을 바라보며 부처의 자비 광명에 흠뻑 젖어 환희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전구와 결구에서는 불성이 모양이나 크기가 없어서 우주에 하늘에 꽉 차 있어서 중생들의 눈과 마음으로 인식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월욕락(月欲落)'은 달이 지려 할 때의 전경을 읊은 시이다. 〈십우도〉의 '반본환원返本還源)'의 경계와 같이 달이 처음 푸른 언덕에 떠서 차츰 중천에 이르러 마음껏 광명을 발휘하다가 마지막으로 학이 내일을 위해 나래를 접고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달도 하룻밤의 활동을 정리하는 전경을 묘사한 것이다.

만해가 달을 보고 달의 변화하는 모습을 마음이 깨달음의 과정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표현한 것은 동방의 선종 선시사에서 처음 있는 창작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옥중시에 나타난 호국불교 사상

만해가 감옥에서 면회를 온 학생에게 써 준 '기학생(寄學生, 학생에게 부친다)'의 한시가 있다.

"보신(保身)하여 기와처럼 온전하면 삶이 치욕 되고(瓦全生爲恥)/ 옥으로 부서지면 죽음도 이름답네(玉碎死亦佳)/ 하늘 가득 가시 자르는 고통으로(滿天斬荊棘)/ 길게 한숨짓건만 하늘 달은 밝구나(長嘯月明多)"

목숨을 보전코자 기개를 굽히고 부끄러워하느니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젊은 학생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당송(唐宋) 대가의 시에 어깨를 견줄 수 있는 풍격을 갖춘 시이다. 온전한 기와(全瓦)처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부서져도 옥으로 사는 것이 이름답다는 시이다.

만해에게 선망하는 위인이 있었다. 안중근의 장한 쾌거를 읊은 '안해주(安海州)'와 매천 황현의 순교를 위로한 '황매천(黃梅泉)'이 있다.

안중근(安重根)은 해주 사람으로 만해와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이다. 조선 총독부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하르빈 역에서 사살하여 조선 청년의 기개를 만천하에 진동시킨 영웅의 역사적 사건을 찬양한 시이다. 두보의 시가 위대한 것은 당시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민중의 처참한 모습을 시로 읊은 인간애이다. 시인은 자신이 산 시대의 아픈 사건을 시로써 기록할 의무가 있다.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여 조선의 마지막 유학자 선비로서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책임과 수치를 자살로서 자신의 충절을 드러내 온 국민을 통분케 하였다. 만해는 이 시에서 매천의 죽음을 위로하고 국민이 그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을 것이라고 결구(結句)하고 있다.

만해가 〈님의 침묵〉에서 임진왜란 때 왜장을 보듬고 산화한 논개와 계월향의 의로운 죽음을 찬양한 것도 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열사와 의녀의 충절을 격동시켜 잃어버린 님을 되찾자는 다짐이다.

만해가 잃어버린 님(조국)을 찾는 길을 '무제(無題)'란 시조에서 "이순신 사공 삼고 을지문덕 마부 삼아 파사검(破邪劍) 높이 들고 남선북마(南船北馬)하야 볼까 아마도 님을 찾는 길은 그뿐인가 하노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 '남아(男兒)'의 시조에서도 "사나이 되야으니 무슨 일을 하야 볼까 밭을 팔아 책을 살까 책을 덮고 칼을 갈까 아마도 칼 차고 글을 읽는 것이 대장분가 하노라"고 조선의 백성이 가야할 이상적일 구국의 방향을 설파하고 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명 대사와 서산 대사의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중
문학평론가

2024 제9회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독일 종교학자 만프레드 후터 교수의 기조강연과
다양한 학문분야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활발한 학술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10.5(토) 10시~17시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 주최: (재)한마음선원 주관: 한마음과학원

YouTube 한마음선원 공식채널 생중계 자료집 다운로드: 자료집은 한마음과학원 사이트 (https://hans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미래사회, 과학 그리고 마음

● 기조강연: 대행선사의 한마음 천수(千手) 지혜와 실천
만프레드 후터(본 대학교 교수, 독일)

● 대행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어려움 고찰 및 해법 모색–한마음선원 신도 설문을 중심으로–
발표: 유정오(이반성초등학교 교사), 진복선(한마음과학원 회원), 허기준(전남대학교 교수)

●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론 기반 상담자를 위한 관법 프로그램 개발: '지혜로운 마음'을 중심으로
발표: 최명희(경북대학교 강사)

● 대행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대한 마음치유 연구: –위빠사나를 중심으로– 발표: 이광숙(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미래교육원 책임교수)

● 보시를 통해 본 물질과 마음의 관계: 대행선사와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보시행을 중심으로
발표: 박소진(신한대학교 교수)

● 마음챙김과 대행선사: 대학생에게 마음챙김 기반 명상을 가르친 사례 연구 발표: 글렌 최(세네카 폴리테크닉 교수, 캐나다)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⑱ 전북 고창 선운사

▶한줄 요약
4월엔 동백꽃, 9월엔 만발한 꽃무릇으로 유명한 선운사는 사찰 입구 개울 건너 바위 타고 오르는 덩굴나무 송악,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선사비문, 사천왕, 만세루, 대웅전과 삼존불, 벽화 속 관세음보살과 금강역사 등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많다. 그 가운데 만세루가 가장 정이 가는데, 다듬지 않은 통나무와 막대나무로 지은 모습에서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나무대로, 자투리 나무는 자투리 나무대로 다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준다.



꽃무릇으로 장엄한 불국토 나툰 지장보살

꽃무릇과 동백꽃으로 장엄하다

'동백꽃' 하면 떠오르는 절이 있다. 바로 전북 고창 선운사다. 선운사 동백꽃은 4월 말 무렵에 활짝 핀다. 이때쯤 대웅보전 뒤쪽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84호) 앞에는 인생샷을 찍고자 많은 사람이 붐빈다. 그런데 4월이면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그래서 선운사 동백은 동백이 아니라 춘백이라 해야 한다나.

또 선운사는 9월 중순부터 만발한 꽃무릇으로도 유명하다. 사찰 입구부터 꽃무릇이 붉은 빛으로 선운사를 장엄한다. 선운사, 전남 영광 불갑사, 전남 함평 용천사는 꽃무릇 군락지 3대 사찰이라고 할 정도다. 꽃무릇, 혹은 상사화의 꽃말인 '슬픈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독성이 있는 꽃무릇 뿌리의 추출물을 탱화나 단청에 바르면 좀이나 벌레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사찰에 꽃무릇 군락지가 많은 이유다.

이처럼 동백과 꽃무릇으로 널리 알려진 선운사이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많다. 사찰 입구 개울 건너 용솟음치듯이 바위를 타고 오르는 덩굴나무인 송악(천연기념물 367호), 부도밭에 있는 추사 김정희가 쓴 백파선사비문, 무섭기보다는 다소 해학적인 모습인 사천왕, 사천왕문과 대웅보전 사이에 있는 만세루, 대웅보전과 그 안에 모셔진 삼존불, 대웅보전 불단 뒤 벽화 속 관세음보살과 금강역사, 대웅보전과 쌍둥이 건물인 영산전, 화재와 도난 등 여러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몸을 나투고 계신 지장보살 등등.

그 가운데 만세루가 가장 정이 간다. 만세루는 대웅보전 앞에 있는 강당이다. 만세루가 그토록 정이 가는 이유는,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기둥과 대들보 등 건축 부재 때문이다. 기둥과 대들보 등이 특이하다.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라 다듬지 않은 울퉁불퉁한 통나무나 토막나무를 이었다. 그리고 두 갈래로 나뉜 나무는 대들보 위에 자리하여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법당 불사 후 남은 자투리 부재 등을 이용하여 지었다고 한다. 시주자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찰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우리 눈에는 쓸데없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나무대로, 자투리 나무는 자투리 나무대로, 다 소중하다는 가르침이다.

현재 선운사 만세루는 사찰을 찾는 사람이 차를 마시며 쉴 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찰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여러 법당을 참배한 뒤, 만세루에 앉아 차 한잔하는 여유를 가져보심이.



선운사 만세루. 법당 불사 후 남은 부재를 이용해 지은 이곳은 시주자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찰 대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현재 사찰을 찾는 사람이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중의 정성으로 연못을 메워 절을 세우다

선운사는 신라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과 백제 위덕왕 24년(577년)에 검단 선사가 창건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설이다. 신라 진흥왕(재위 기간 540~576년)이 만년에 왕위를 내주고 도솔산의 어느 굴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때 미륵삼존불이 바위를 가르고 나오는 꿈을 꾸었다. 이에 크게 감응하여 중애사(重愛寺), 선운사, 도솔사 등을 창건하였다. 현재 도솔암 조금 못 미쳐 진흥굴이 있다. 진흥왕이 묵었다는 그 굴이다.

그러나 당시 이곳은 신라와 세력다툼이 심한 백제의 영토였으므로 신라의 왕이 이곳에 사찰을 세웠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시대적 지리적 상황으로 볼 때 검단 선사의 창건설을 정설로 받아들인다. 검단 선사의 창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화가 있다. 선운사 미륵바우(바위)가 설화 하나를 전하고 있다. 미륵바우는 도솔암으로 20분 정도 가는 길에 있다.

선운사가 있는 자리는 원래 용이 살던 큰 연못이었다. 검단 선사가 연못의 용을 몰아내고 돌을 던져 연못을 메워 나갔다. 이때 마을에서는 눈병으로 힘들어했다. 수도하던 검단 선사 앞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미륵바우 아래의 돌과 숯을 연못에 던지면 눈병이 나으리라."

꽃무릇과 동백꽃으로 장엄된 경내
참배 후 만세루서 차한잔 여유도
지장보궁이란 너무도 큰 이름에서
지장보살 대한 대중의 존경 짐작


지장보궁의 지장보살. 일본 도굴범이 1936년 훔쳐간 것을 2년 만에 다시 되찾아 모셨다.

검단 선사는 이 말씀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미륵바우 아래의 돌과 숯을 가져다 던져 연못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눈병은 저절로 낫고, 연못도 금방 메워졌다. 이후에도 사람들은 미륵부처님이 나타났던 미륵바우에 정성을 다하였다. 정성에 응답하여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근심 걱정도 사라졌다. 미륵바우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연못이 메워진 자리에 절을 세우니 바로 선운사다. 검단 선사는 "오묘한 지혜의 경계인 구름(雲)에 머무르면서 갈고 닦아 선정(禪定)의 경지를 얻는다." 하여 절 이름을 선운(禪雲)이라 지었다.

또 이 지역에는 도적이 많았다. 검단 선사는 불법(佛法)으로 이들을 선량하게 교화시켜 소금을 구워서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가르쳐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매년 봄가을로 절에 소금을 공양 올렸다. 이를 보은염(報恩鹽)이라 한다. 마을 이름도 '검단리'라 하였다.

선운사가 위치한 곳이 해안과 그리 멀지 않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염전을 일구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염전을 일구어 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검단 선사가 절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마을 사람을 힘들게 하던 도적 등을 연못의 용으로 비유하고, 대중에 대한 검단 선사의 자비 방편을 이러한 설화로 전하는 것은 아닌지.

현몽으로 다시 돌아온 지장보살상

선운사에는 다른 사찰에서 보기 힘든 이름의 법당이 있다. 바로 지장보궁이다.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이다. 지장보살을 모신 법당을 보통 '지장전', '명부전'이라 한다. 그런데 지장보궁이라니, 너무도 큰 이름이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처럼 보궁은 전(殿)보다 격을 높인 법당이다. 지장보살에 대한 선운사 대중의 믿음과 존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아마 지장보살상의 신통한 능력 이야기도 한몫하였을 것이다.

지장보살상은 성종 7년(1476)에 높이 1m의 좌상으로 금동으로 조성되었다. 선운사가 모두 불에 탄 정유재란 때도 지장보살상은 화를 면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본인이 훔쳐 갔는데, 이를 되찾아 다시 선운사에 모셨다. 그 사연이 이렇다.

1936년 여름, 일본인 2명이 우리나라 도굴범과 함께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훔쳤다. 그리고 거액을 받고 일본으로 팔아넘겼다. 그런데 이때부터 지장보살은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지장보살상을 산 일본인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 지장보살상과 똑같은 지장보살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하루빨리 그곳으로 돌려보내 달라."

그 일본인은 이상한 꿈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지장보살은 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이후로 일본인은 병이 들고 가세가 기울었다. 꺼림칙한 마음에 지장보살상을 다른 이에게 넘겼다. 소장자가 바뀌어도 꿈은 계속되었다. 지장보살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꿈에 나타나 고향 도솔산을 언급하며 돌려보내기를 요구하였다. 그 역시 이를 무시하였고,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상황은 반복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소문은 퍼져나갔다. 그러자 마지막 소장자는 이러한 사실을 고창경찰서에 신고하고서 모셔가기를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1938년 11월, 당시 선운사 스님과 경찰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모셔왔다. 지장보살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보살이신데, 중생을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한편으로는 그들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도할 수 없는 중생이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자비란 단순하게 '오냐, 오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참당암, 도솔암으로 향해 걷는다.

〈불교학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0호 | A15 | 전면광고

속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마라.
이 세 가지를 법답게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소재
- 부 지 : 약 50여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 액 : 3억(절충가능)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론 적지,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법 당 : 시설완벽, 최상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시장과 지하철 입구 인접
- 마당있는 단독주택 방 3개(거실 법당)
- 보증금 : 1000만원/월세 80만원

스님 이민 관계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법당 법구 일체,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보시하고 갑니다

010-5399-122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나소로 458
- 절도량 600평, 바로 뒷산 5400평 총6000평
- 절도량 농막주택
- 현재 법회 운영 중
- 시설비 포함 총 2억9000만원
- 마을 5분 시내25분 거리
- 상담 답사 후 결정

선착순 010-3521-54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천로
- 부처님 원불 인등 산신 용왕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 시설비(상호 합의)
- 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010-3906-3711

도심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1동 678-3 동진상가 지하2층
- 규모 : 70평 이상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 삼존불 탱화 등 불구, 집기 일체
- 시설비 절충

010-6274-0828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000만원 끼고 6억원

010-6898-9114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1억 9000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확 낮춰서 올립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9500만원



010-4180-1788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사찰이나 펜션 전원주택의 최적지

모두가 떠나간 빈 공간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기고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에서 한시간 반거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놀산리 520번지

황토주택(30평) 1채 및 황토방 1채 송이버섯이 나는 야산과 야생화 및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냉장저장고로 사용가능한 150m동굴까지 있습니다.

- 총평수 : 약 9650평
- 매매가 : 6억 5천

010-4116-1571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4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K-미래학자 소재학 교수, 과학 명리, 과학 풍수 OPEN 세미나



* K-미래학자, 대한민국 미래예측학 박사 1호
* 미래예측학자, 과학명리학자, 과학 풍수학자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주임교수
* 동국대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원장
* 동국대 GFCA풍수지리 최고위과정 원장 교수
* 스포츠서울 그룹, 한컴 그룹 외 기업 고문, 자문
* 글로벌미래포럼 회장, 乾坤풍수지리학회 회장 외
*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및 석좌교수 역임
* 동방대학원 교수 및 초대 발전위원장 역임

소재학 교수 상담 및 교육 문의
010-8335-8001
02-585-0079

자연과학적 원리 근거,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이론체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시기 90% 이상의 정확도로 정밀 예측 가능한 K-미래학 석하명리[과학명리 동양미래예측학]을 창시한 국내 최고의 과학 명리학자 소재학 교수 특강

<자신만의 때를 찾는 법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공개>

2000년부터 모든 동양 역학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음양오행설의 모순과 원리를 규명하여, 미신적 요소 벗기고 과학화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성공과 실패의 시기가 규칙적인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10년, 60년, 600년 등 주기별로 구분하여 '인생사계절 석하리듬' 이라 명명하였으며, 특강이나 방송 칼럼 활동 등을 통해 '성공과 실패의 시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찾는 방법' 등 전파

나 이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60년 절대운					승			승	승	
천 간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B	B	A	A	DF	F	E	EE	DD	C
지 지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卯	寅
	FE	DA	D	EC	FA	BA	CA	FB	F	AF
10년주기	출발시기			형	운	시	기		승림프시기	
년도끝(년)	2	3	4	5	6	7	8	9	0	1
년도 천간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나이끝(세)	6	7	8	9	0	1	2	3	4	5
인생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석하리듬(상대운)	1기	2기	1기	2기	3기	1기	2기	1기	2기	3기
60년주기	15	21	27	33	39	45	51	57	63	69
	45	51	57	63	69	15	21	27	33	39



자체개발 K-미래학 스마트폰 어플 및 프로그램 활용 정확한 분석



명리 진로적성상담사 자격증 겸비
풍수지리 지도사 자격증 겸비

◉ 과학풍수, 자연과학 풍수지리 특강 : 9월 24일(화) 18:30 ~ 21:00
◉ K-미래학 과학명리(석하명리)특강 : 9월 25일(수) 18:30 ~ 21:00

◈장소 : 동국대학교 학명세미나실

▶사전 신청자 무료 참석, 100명 신청순
▶참가자 즉석 현장 생기 지역 살기 지역 명당 혈자리 분석 시연
▶기존 사주명리학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해도 정확히 맞지 않는 이유 공개 및 검증
▶아무리 좋은 명당을 차지해도 발복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 공개
▶기존 사주명리학과 풍수지리가 미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 공개
▶참가신청 : GFCA 사무국 010-8335-8001, 02-585-0079

♥동국대 G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9기 개강, 매주 수(水) 18:30~21:00

과학화된 역학, K-미래학 석하명리(과학명리) 1년(3학기) 마스터과정

불확실성의 시대, 정확한 성공과 실패의 시기, 자신만의 때를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학문, 검증 가능한 작명법, 타고 난 선천적 직업적성과 성격 체질,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싫어지는 시기와 콩깍지의 유효기간, 최상의 배우자 만나는 시기 찾는 방법 등을 제대로 배우는 유일한 과정

▶초중고급자 및 경력자 대상 ▶수업: 1학기 동국대 학술관, 2~3학기 방배동 사무국

♥동국대 GFCA 풍수지리 최고지도자과정 15기 개강, 매주 화(火) 18:30~21:00

과학화된 역학, K-미래학 건곤풍수(과학풍수) 1년 마스터과정

내 땅 내가 본다. 원리 위주 강의 및 현장 답사, 왕초보도 1년에 재대로된 맥을 잡는 과학 풍수 과정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00호 | A16 | 전면광고

맷돌이나 숫돌이 깎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땐가 다 닳아 없어지고, 나무를 심으면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새 크게 자란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선림보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람을 찾습니다

속명 : 지영숙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성장. 임덕점 모친 소개로 부산 저희집에서 일도 같이 하면서 살았음. 지금은 출가를 하였다고 들음.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010-5436-5801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정해생)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010-3152-2732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추석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⑱ 다산 정약용과 茶문화

茶를 사랑했던 조선 후기 대표 지식인

조선 후기 차를 활용한 부국론과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계책을 제안한 인물은 이덕리(1725~1797)와 다산 정약용(1762~1836)이다. 특히 다산의 차에 대한 식견은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라 생각한다. 물론 그가 강진으로 유배되기 이전부터 차를 알았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실제 어느 시기부터 차를 즐겼는지를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가 1778년 화순에 있을 때 지은 〈성주암에 올라(登聖住庵)〉에서 "차로는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아/ 거듭 맑은 돌 샘물을 마시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차의 진미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나이 19세 무렵 예천 정당의 동쪽에 위치한 반학정에서 지은 〈여름날 지정에서 절구 시를 짓다(夏日池亭絶句)〉에서 "어린 기생 차를 전해 주려고 대 사립문에 이르렀네(小妓傳茶到竹扉)"라고 하였다. 이어 1781년경 그가 지은 〈미천가(尾泉歌)〉에서는 찻물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홍수 만나 산에까지 물이 차도 넘치지 않고(巨浸稽山而不活)
가뭄 들어 쇳덩이가 녹는데도 마르지 않네.(大旱流金而不竭)
일천 사람 길어가도 모자람이 없고(千人來汲而不歉)
오물이 온통 널렸어도 더럽지가 않네(濊惡繞匝而不染)
옥처럼 맑은 우물이 넘쳐 천만 년을 흐르는데(玉甃溢兮絡古流)
맑은 약수 떠 마시니 목구멍이 상쾌하다(瓊漿挹兮爽咽喉)
용단 차를 다려 고질병을 다스리니(爲試龍團治癖疾)
해맑기는 수정이요, 달기는 꿀 맛 같네.(瑩如水精甘如蜜)
육우가 만약 오신다면 어느 곳에서(물을) 찾을까(陸羽若來何處尋)
원교의 동쪽이요, 학령의 남쪽이라.(員嶠之東鶴嶺南)

앞에 인용한 시는 다산이 20세 즈음에 지은 것인데, 미천은 좋은 샘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길어갔던 정황을 드러낸다. 더구나 그가 마셔본 미천 샘물은 목을 상쾌하게 만드는 물이라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다산 정약용 진영. 강진문화원 소장, 김호석 作.

강진 유배 직후 아암 스님 인연
다산, 차에 대한 식견 확장 계기
차 활용 국부론까지 저술하기도

그러므로 용단 같은 최상의 차를 이런 좋은 물로 끓여야만,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오래된 고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차의 효능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결국 좋은 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차의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산은 이미 20세의 나이에 차의 근본을 이해했던 인물이라 하겠다.

그가 강진으로 유배된 이후 1805년 차에 밝은 아암 스님과의 만남은 차를 통해 척박한 유배지의 환경을 극복할 매개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묵은 병을 치료하는 차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무튼 그가 차를 깊이 좋아한 계기는 연담 스님에게서 연유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연유를 살펴보면, 그의 부친이 화순 현감으로 부임한 것은 1777년경이다. 당시 연담 스님은 화순 동림사에서 수행하셨으니 다산의 부친과 교유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산이 이듬해인 1778년 화순 동림사에서 과거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연담과 부친의 인연 때문이었다. 특히 연담은 차에 밝았던 대흥사 고승이기에 동림사에 공부하던 다산에게 차를 대접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연유에서 다산이 차의 오묘한 세계를 짐작하게 한 계기는 연담에서 시작된 것이라 본 것이다. 참으로 사람의 인연은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연담 스님과 다산의 인연은 아암 스님(1772~1811)으로 연결되었는데, 이는 다산과 차의 만남은 우연은 아닌 듯하다. 강진 유배기에 차에 흠뻑 빠진 다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은 1805년 겨울 아암 스님에게 보낸 '차를 구하는 글(乞茗疏)'에서 "저는 요즘 차를 탐내어 약으로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이 그것이다. 차를 마시면 "막힌 것을 풀어주고 배 속에 생긴 덩어리를 제거하기" 하였기에 풍토병에 고생하던 그가 차에 의지하여 "마침내 이찬황의 고질적인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찬황은 당나라 사람 이덕유를 말한다. 차에 밝았던 그는 당대 대표적인 인물로 추앙되는 육우와 쌍벽을 이룬 인물로 평가된다. 이찬황처럼 차를 좋아하여 고질병이 생길 정도가 되었던 다산은 박학했던 학자답게 육우의 〈다경〉3편을 탐독해 육우가 말한 차의 핵심을 터득했다. 이어 차를 마신 후의 몸과 마음의 아름다운 변화 과정을 노래한 노동의 〈칠완다가〉을 읽어 차의 대체(大體)를 알아 버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차를 마시면, 사람의 정기(精氣)를 침식시켜 기운이 줄어든다는 기무경의 말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는 이미 강진 시절에 차의 이론이나 차의 정수를 관통했던 사실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다산이 차를 좋아하여 다벽(茶癖)을 얻은 것은 1805년경이라는 점에서 그가 제안한 차를 활용한 국부론은 우연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강진 유배 시절 차의 원리와 이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그이기에 차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두루 유익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의 차를 통한 국부론은 바로 〈상두지 둔전조(桑土誌屯田條)〉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영호남 곳곳에 차 밭이 있으니 쌀 1말 정도를 낼 세금을 차 1근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차 10근으로 군포를 대신 받치게 해 준다면, 수 십 만근의 차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둘째 이렇게 모은 차를 배를 이용하여 중국 서북 지방 시장에 팔면, 10만근의 차를 가지고 2만근의 은을 얻어서 은전 60만 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결국 한 두 해 만에 45둔(屯)의 둔전(屯田)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런 수치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차의 값을 산출한 방법이다. 바로 월차(越茶, 중국차)의 가격은 차 1냥이 은 2전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의 실증적인 차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차 전매 제도를 연구한 〈각다고(榷茶考)〉에서도 드러나지만, 그의 제안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당시의 정치상황이 아쉬울 뿐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㊱

1.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이자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제자이다.
② 수보리는 해공(解空) 제일이며,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이다.
③ 두타제일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한 가섭 존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④ 데바닷다는 부처님 열반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제일이라 한다.

해설 : 이번 회차에 다루는 문제들은 모두 부처님의 직계제자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각 문제의 보기를 통해 제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으로 부처님에 대한 시기질투가 대단하였고, 불교교단의 통치권을 달라고 하는 등 주제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부처님께 직접 비판까지 들은 인물이다. 데바닷타는 결국 부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다가 지옥에 산 채로 떨어지게 된다. 그는 특히 부처님의 후원자였던 빔비사라왕과 위제희부인의 아들 아사세 태자를 꼬여내 여러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리불은 지혜가 매우 뛰어나서, 종종 부처님의 설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② 목건련은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로, 지옥고를 받는 어머니를 위해 우란분재를 올린 주인공이다.
③ 마하가섭은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 첫 번째 결집을 주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는데 공을 세웠다.
④ 라훌라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 내는 역할을 맡았다.
⑤ 아난다는 부처님의 양모였던 석가족 여인들이 출가할 수 있도록 청하여, 비구니승가가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해설 : 라훌라에 대해서는 앞의 문제 ⑤의 내용을 참조.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나서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 가르침 대부분을 암송해내는 역할을 맡은 것은 아난다(아난)이었다. 그는 첫 번째 결집 외에도 부처님을 25년 동안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은 제자로 다문제일이기도 하다.

3.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출가 이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수행과 선행에 철저하여서 밀행제일로 불리는 인물은 누구인가?
① 목건련 ② 사리불 ③ 아난다 ④ 라훌라 ⑤ 마하가섭

해설 : 라훌라이다. 그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태자이시던 시절 생긴 아들이다. 태자는 출가를 결심한 날 아들의 탄생을 알았음으로 이를 한탄하며 출가에 장애(물)가 생겼다고 하여 이름을 라훌라(장애)이라고 지으셨다고 한다. 라훌라는 아홉 살이라는 너무 어린 나이에 출가한데다가 부처님의 친아들임으로 교단 안에서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천방지축으로 지내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부처님의 아들이란 사실로 거들먹 거리지 않고 이를 숨기고 선행과 수행을 닦아 밀행제일로 불리게 되었다.

4.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천안제일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동생이다.
②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는 부처님과 생년월일이 같다.
③ 다문제일 아난다는 25년간 부처님을 곁에서 시봉했다.
④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기원정사를 건립할 때 총감독했다.
⑤ 지계제일 우팔리는 출신계급이 가장 높은 바라문 출신이다.

해설 : 지계제일 우팔리는 계급이 낮은 이발사 출신이다. 바라문, 크샤트리야와 같이 출생신분으로 계급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은 카스트, 가진 직업에 따라 고귀함과 비천함을 따지는 것은 자티라 하여 이 둘이 반드시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우팔리의 자티가 이발사인 것은 알려져 있으나 그의 카스트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문에선 편의상 바라문과 비교한 듯하다. 부처님께서는 자티가 낮은 우팔리를 높은 계급들보다 먼저 출가시켰는데, 출가자들은 출가한 순서인 승납에 따라 위아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출가자에게는 계급이 없음(선후배는 있음)을 보여주셨다.

5.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최초의 비구스님은 교진여 등 다섯 수행자였다.
②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빔비사라왕 이었다.
③ 최초로 재가신자가 된 사람은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④ 오랫동안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들은 것은 아난이었다.
⑤ 최초의 결집을 주도한 것은 마하가섭이었고, 이때 율장을 암송한 것은 우팔리였다.

해설 : 부처님께 최초로 공양을 올린 사람은 타풋사(제위)와 발리카(파리)라는 상인이다. 그들은 보리수 아래에서 49일 간 명상을 하시던 때 부처님을 뵈옵고 공양물을 올렸으며 부처님께서는 공양물을 받기에 적절한 방식을 생각하셨으며, 이때 부처님의 뜻을 알아챈 사천왕이 최초의 발우를 만들어 부처님께서 상인들의 공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상인들 또한 부처님의 위대함에 감명 받았으나 최초의 재가불자(재가신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이때는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초전법륜을 굴리기 전임으로 교진여 등의 다섯 명이 최초의 비구가 되기 전이여서 인데, 왜냐하면 이 다섯 비구가 생겼을 때 승보가 탄생하며 이때 삼보라는 불자가 귀의하여야 할 대상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 삼보가 생긴 이후 이에 귀의한 최초의 재가신자는 야사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정답 : 1. ④ 2. ④ 3. ④ 4. ⑤ 5.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영적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빙의치유전문의'를 만나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숨기고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상담으로 빨리 벗어나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신기운천도 전문 도량
금강경독송수행 전문도량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⑯ 선오 스님의 '도토리 손칼국수'



▶한줄 요약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덧가루를 입혀가며 밀대로 잘 펴준 뒤, 반죽을 착착 접어 썰어준다. 면을 내는 것은 급하면 안 된다. 간격을 잘 맞추어 살근살근 잘라내야 끊어짐도 적고, 고르게 익어 식감이 좋다. 마지막으로 한껏 김 오른 냄비에 면과 채소를 솔솔 뿌려가며 한소끔 익혀주고, 고소한 양념장을 함께 내면 끝!

이젠 쉬이 만날 수 없는 진한 가을의 맛

또그르르, 톡톡.

산길을 걷는 이방인의 발 위로 도토리 한 알이 떨어진다. 늘 한 몸이었을 깍지 모자가 벗겨진 것도 모른 채 신나게 굴러가는 녀석, 얼른 잡아 손에 쥐어보니 제법 통통하다.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계절을 이기고. 숲은 또 절기를 지켜 제 몫의 결실을 품어낸 것이다.

반가운 도토리의 머리 위에 다시 모자를 꼬옥 눌러 씌워주고, 나무 밑동에 내려놓는다.

뭇 생명의 귀한 먹을거리가 되고, 땅의 양분으로, 어쩌면 훗날 거대한 나무가 될지도 모를 수백, 수천의 희망이 익어 가는 계절.

다시, 가을이 온다.





면을 내는 것은 급하면 안된다. 간격을 잘 맞춰 잘라내는 것이 핵심!

선오 스님의 도토리 손칼국수

재료 중력분 200g. 도토리가루 60g. 호두 3알, 아몬드 10알, 청/홍고추 각 1개, 무 1/3개, 표고버섯 5~10개, 다시마 30g, 애호박 1/2개, 당근 1/2개, 소금, 식용유, 국간장 3T.

만드는 법
1. 밀가루에 도토리 가루를 넣고, 소금 약간과 식용유 1T, 물 180 ~ 200㎖를 조금씩 넣어가며 질지 않게 반죽한다.(1~2시간 숙성 후 사용해야 식감이 좋다)
2. 무, 표고버섯에 물을 넣고 충분히 끓여준 뒤, 불을 끄고 다시마를 넣어 뚜껑을 덮어둔다.
3. 2에서 표고버섯을 건져내어 애호박, 당근과 함께 채를 썰어둔다.
4. 청/홍 고추는 반으로 갈라서 잘게 다지고, 호두와 아몬드도 잘게 다진다.
5. 국간장을 3T에 다진 고추와 견과를 넣어 잘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둔다.
6. 만들어 둔 반죽을 밀대로 얇게 밀어서 돌돌 말아 채를 썰고, 뭉치지 않게 펼쳐 둔다.
7. 채수가 끓으면 썰어 둔 국수를 넣는다.
8. 국수가 익은 다음 채소를 넣고, 다 익은 후 그릇에 담아 양념장과 함께 낸다.

오래전 그 가을에

"참나무에서 떨어지는 도토리 멧돼지가 먹으면 멧돼지 것이고 다람쥐가 먹으면 다람쥐 것이다."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말대사전에 실린 문장이다. 남과 북을 막론하고 도토리가 이 땅의 생명에게 얼마나 친근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선오 스님의 추억 속 도토리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처서가 지난 어느 볕 좋은 날, 문경의 한 발효식품연구소에서 만난 스님은 환한 웃음과 함께 옛 추억을 소환했다.

"제가 행자 시절을 보낸 암자는 해우소 가는 길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어요. 가을이 되니 나무에서 도토리가 똑똑 떨어지더군요. 너무 예뻐 하나둘 줍기 시작했는데, 그게 고난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지요(웃음)."

매일 오가며 주운 도토리가 커다란 통을 다 채울 즈음, 은사스님은 '그렇게 주워 모으기만 하면 안 된다, 어서 물에 담그라' 조용히 이르셨다. 생각지도 못한 도토리와의 한 판 겨루기가 시작된 순간이다.

산중 암자의 우물가. 홀로 끙끙대며 몇 번이고 물을 갈아 떫은맛을 빼주고 나자, 다음은 다시 바싹 말려줄 차례. 젖은 열매가 썩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며칠을 보내고 나니, 이번에는 돌멩이로 하나하나 두들겨 껍질을 벗겨야 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서야 겨우 손질한 도토리를 걸망에 지고 방앗간으로 향할 수 있었다.

도토리의 시간

"방앗간에선 도토리에 물을 잔뜩 넣고 갈아서 전분을 걸러요. 그 물먹은 가루가 어찌나 무겁던지. 산길을 오르는데 어깨는 끊어질 것 같고, 몸은 휘청거리고. 주저앉아 울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모았나, 다시는 도토리를 줍지 않으리! 굳게 다짐했었지요(웃음)."

작고, 가녀린 체구의 선오 스님에게 그 날이 얼마나 고되었을지는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한 일. 하지만 고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으니, 절에 도착해서는 한동안 젖은 가루를 말리고, 곱게 채를 내리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마침내 스님의 손에 주어진 자그마한 도토리 가루 한 봉지. 그날 다락 깊은 곳에 고이고이 모셔진 도토리 가루는 지금도 잊지 못할 맛으로 오래오래 남아있다.

어쩌면 스승은 열매를 줍는 제자에게 내내 알려 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어떤 것도 쉬이 주워 담거나,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혹여 그렇게 모여진 어떤 마음도 끝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이제 막 수행의 여정을 시작하는 제자의 마음도, 그 마음을 달래주던 도토리도 무심코 버려지지 않고 쓰임이 있기를. 그 가을 도토리도, 제자와 스승의 시간도 그렇게 함께 익어 갔는지 모를 일이다.

가을의 맛

"반죽이 예쁘게 잘 되었지요? 도토리 손칼국수의 식감은 시판 국수처럼 매끄럽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거칠어야 건강에도 좋지요."

은은한 연갈색의 빛깔, 둥글둥글 정겨운 모양새의 반죽이 선오 스님의 손안에서 춤을 춘다. 비록 오래전 그날의 도토리는 아니지만, 스님의 승소는 여전히 과거와 오늘의 가을을 잇는다.

무와 표고버섯을 푹푹 우린 채수는 구수한 향이 진동하고, 선을 긋듯 곱게 채를 낸 애호박, 당근, 표고버섯이 소복이 쌓였다. 마침 스님이 건네주신 간장 한 숟가락. 맛을 보니 마치 발효차를 마신 것처럼 은은한 향미와 짠맛, 단맛, 구수함이 차례로 입안을 맴돌았다.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드신 간장을 맛보고 자란 것이 큰 재산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장을 만들면 신기하게도 그 맛이 나거든요."

혀끝으로 기억되는 옛맛을 새로이 틔워낸 스님의 간장. 오늘은 이른 아침 텃밭에서 따온 고추와 견과류를 다져 넣어 양념장을 만들 예정이다. 기름을 쓰는 대신 견과류로 고소함과 영양을 더한 것.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면 고추씨를 털어주고, 단맛을 더 내고 싶으면 고추씨를 함께 넣어주세요. 고추씨는 매콤할 뿐만 아니라 단맛도 강하니까요."

드디어 도토리 손칼국수의 하이라이트인 면을 준비할 시간. 도토리 가루와 밀가루를 섞은 반죽에 덧가루를 입혀가며 밀대로 잘 펴준 뒤, 반죽을 착착 접어 썰어준다. 면을 내는 것은 급하면 안 된다. 간격을 잘 맞추어 살근살근 잘라내야 끊어짐도 적고, 고르게 익어 식감이 좋다. 마지막으로 한껏 김 오른 냄비에 면과 채소를 솔솔 뿌려가며 한소끔 익혀주고, 고소한 양념장을 함께 내면 끝!

새콤달콤한 참외장아찌와 아삭한 백김치까지 곁들이니 이만한 밥상이 또 있을까. 이제는 쉬이 만날 수 없는 진한 가을의 맛, 도토리 손칼국수 완성이다.

무유정법의 레시피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도토리의 따뜻한 성질 때문일까, 아니면 '오래전 봉인한 추억을 해제한 기분'이라며 말갛게 웃는 스님의 미소 덕분일까. 슬그머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청하며 귀한 국수 한 그릇을 비운다.

"출가를 생각한 것은 생로병사의 고락(苦樂)에서 시작되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상실은 6살 때 맞이한 할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시골 마을에서, 일하러 나간 어른들 대신 할아버지가 손녀를 봐주셨지요. 저는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6살 아이의 눈으로 할아버지의 상여가 떠나고, 또 땅에 묻히는 모습을 보며 막연히 삶과 죽음의 통증을 새긴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어머니를 꼬박 3년간 보살피던 시간, 그 시간만큼 깊어진 고민은 마침내 출가로 이어졌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배움의 여정이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구는 무유정법(無有定法)입니다. 고정된 법은 없다는 뜻이지요. 그저 제 몫에 따라 힘든 것이 소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힘들고, 삐걱대던 시간도 이 뜻을 되새기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 불교대학이나, 사찰음식 강연을 하는 시간에도 선오 스님은 자주 무유정법의 의미를 전한다.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없음을, 고착된 생각이 주는 고통을 내려놓고 더 자유롭기를 가르치고, 또 기원하는 것이다.

'레시피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어진 재료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담담히 전하는 스님의 이야기에 주저하던 이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오래전 무심코 예쁜 도토리를 줍던 마음은 이제 숲을 유영하며 더 너른 세상을 바라본다.

상실은 충만으로, 고통은 새로운 희망으로 끝내 나아가는 것. 계절은 그렇게 익어만 간다.

〈작가〉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대행 스님

한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하라

공부가 계속 잘되면 좋겠는데…

질문 이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잘될 때는 환희심이 나고 기분이 좋은데 공부가 잘 안될 때는 마음이 뭔가 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계속 잘되게 하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우리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모두 질서가 지켜지고 사람이 살아요. 길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질서가 지켜지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쓰자 하면은 길고 짧은 게 없이 평등한 공부를 하면서 이 평등치 않게 길고 짧은 거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평등한 거를 먼저 알아야 그 평등한 속에서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모든 것을 크든지 작든지, 내가 큰 데 들어가면 크게 되고 작은 데 들어가면 작은 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나 아님이 없느니라." 했어요. 원하는 자에게 전부 무조건 주기 때문이죠. 마음이 작은 데 들어가면 작은 것밖에 더 되겠어요? 소한테 들어가면 소가 되는 거고, 돼지한테 들어가면 돼지가 되는 거고, 돼지를 건질 때는. 사람도 돼지로 됐다가 소로 됐다가 말로 됐다가 뭐 별게 다 되니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지거든요, 자꾸.

그러니깐 부처님께서는 돼지가 됐다 소가 됐다 사람이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애가 됐다 늙은이가 됐다, 또는 새가 됐다가 곤충에 이르기까지 아니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나툼이죠. 모두가 이 원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입자가 돼서 모두 제각기 그쪽에 들어가면 그쪽에 들어가는 대로 원자가 돼서 모든 거를 다 해결하고서 한 찰나에 나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얽히고설킨 업보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그 입력이 됐던 것이 하나하나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놓으니까 거기 차근차근 입력된 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자기가 지은 거 자기가 전부, 얽히고설킨 거

그림 · 최주현

를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인내 있게 믿음 있게, 조금도 허탈히 마음을 먹지 말고, 오직 그 구멍은 털구멍 하나밖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 구멍밖엔 없어요. 그 털구멍이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아하. 안 되는 것도 네가 하는 거구나. 양면을 다, 저울추 가리키듯 양면을 다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구나. 아, 감사하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를 '아이고! 안 되는 거, 내가 되긴 됐는데 안 되는 것도 있더라.' 이럭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것도 되는 거고 되는 것도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게 없다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어요.

스님들처럼 수행하고 싶어요

질문 요즘같이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 시절에는 속된 말로 하면 스님도 참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젊었더라면 저도 스님이 되어 공부하고 싶은데 다음 생을 기약하고, 지금은 비록 머리는 길었지만 어떻게 하면 스님들처럼 수행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우리가 먹을 게 없어도 한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놓고 한 숟가락씩 먹어도 왜 웃고 먹을 수 있느냐. 왜 즐겁게 먹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울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한 그릇에다 숟가락을 죄 꽂아 놓고 먹는데 그 웃음이 납니까마는 그래도 환하게 법의 웃음이 나는 것은 잠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남의 마음을 알려면, 남의 고생하는 고를 알려면 별짓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중노릇을 하는 그런 차원도 스스로서 자기가 해서 자기가 그 차원의 그 진의를 받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가 진짜로 남의 것을 뺏어 먹고 이러는 거보다도 아주 그 마음이 강악해서 남을 해롭게 하고 악쓰고 화내고 온통 남을 섭섭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지옥문에 도달하는 것이니라." 그게 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저거 하면 이 차원에 의해서 어디를 간다,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자기가 해서 자기가 받는 거죠. 그래서 보살 문턱에 들어서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 무명초를 깎아 버리면 다 된다고 하지만 무명초는 방편으로 깎아 버리고 깎아 버리면 또 길러지고 하는 걸 배우기 위함입니다. 이 무명초를 깎아 버리듯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리게 되고 털끝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벗어 버리게 되면 함이 없이 정말 하는 거고 삶이 없이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천 년을 살겠어요, 만 년을 살겠어요?

근데 무명줄이라는 것이 끊어지고 또 이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명줄은 항상 영원히 그게 생명줄이죠. 생명줄이다 이러는 것은 생명에 관한 에너지 줄이다라는 얘기고 무명줄이라는 것은 이 남과 남이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그 이유로 인해서 무명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무명줄은 참 모든 거를, 우리가 전자에 살던 것이 잘못된 거라면 갚고 갚으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치고 갚고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남을 뺨을 한 대 갈겼으면 꼭 어느 땐가는 뺨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안 하려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차원까지 가지 못하면 그 자기 은사라도 저런 데로, 아주 심하게 다루는 데로 보내거든요.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해서는 거기 글로 태어나게 하거든요. 바로 거기 태어나게 해서 거기서 고생을 진탕 해서 그게 완전히 자기 마음이 죽어야 그때 다니죠. 이것은 알지 못하거나 진실이 아니라거나 이런다면 이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깐 항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죽으로 아무리 저거 해도 안으로다가 사악한 게 있으면 바깥으로 그냥 하염없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한 발짝 은커녕 반 발짝도 거기에 들어서지 못하죠.

우리가 그럼 착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착하면 모든 게 다 순조롭게 돌아가거든요. 좀 미련스럽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은 참 착하다 그럼 과거에 살던 그 업으로다가 지금 현재에 그렇게 사는데 요다음에는 그렇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 A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 A19면에서 계속

많이들 그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요다음 생에는 권리도 좀 갖게 하고 삶도 좀 갖게 하고 인연들도 잘 만나서 자식 부모를 잘 만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해서 어떻게 사나 그거를 또 참작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고 말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도 네가 하는 거고 살려도 네가 하는 거고, 네가 형성시킨 모습이 너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움죽거리고 사는데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렇게 간다면 앞서의 업이 이만한 덩어리가 있다면 이만한 덩어리가 빨리빨리 제거가 되면서 이게 되지만 말입니다, 그거 하나로 인해서 또 그 차원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만남이 없이 만나서 통해야 다른 데 부처님하고도 전부 통하게 되어 있어요. 내 부처하고 통해야 모든 부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다못해 지신 용신 뭐, 허공신 모두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서의 공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하나도 몰라 가지고는 거기 끼일 수가 없죠. 생각하면 중노릇하는 게 무척 어려운 겁니다. 밥을 먹으나 굶으나 누우나 자나 항상 이것은 어느 대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닙니다.

누가 왔다 갔는데 참 그분들이 고생을 무척 하더라. 근데 그게 보면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어떤 거는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저 정말 자기가 나오기 이전에 있던 데로 가서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영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딱 막혀서 그거를 차원을 벗겨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중노릇하기 쉽다고 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참 쉽죠. 옷 그냥 남이 주시는 거 입고 남이 주시는 거 먹고 그래서 모두 살고, 그래 편안한 줄 아시죠? 아주 편안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아신다면은 아마 깜짝 놀라면서, 놀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밤이나 낮이나 항상 나 아닌 나는 움죽거려야 하고 함이 없이 해야 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그러고 이렇게, 그거를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러지 알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인 거죠.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더라도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알아야 하니까 "한군데를 믿고 한군데다 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공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공부만 잘하시면 정말 이 나라도 남의 나라도 없고 내 나라도 따로 없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이 혹성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구가 내 동네죠.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우는 어린애를 더 먼저 안아서 먹을 걸 주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난히 앉아 계실 때는 살아가시는 거, 살아오신 거 그것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주 자기 주인공을 믿고 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얻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중 아닌 중이 되시죠.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겠습니까? 머리 깎는 거, 옷 입는 거, 생활 사는 것도 모두가 다르죠. 그 다른 생활을 그냥 '아이고, 이건 고생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도 중노릇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그맣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에 큰 우주가 여기에 붙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불 속에도,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운 것도 없는 걸 아시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는 걸 모르고 산다 이런 것도 아시고, 걸림이 없이 사실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더욱더 우리가 부모의 인연을 받고 이 세상에 나서 남들을 위해서 하기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남을, 오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굳게 닫힌 문을, 저승 문을 여는 셈이나 같죠. 굳게 닫힌 저승 문을 연다. 저승 문을 열 줄 알아야 이 사람들을 제도한다. 이 사람이 다니는 문이 문인 줄 알지 말라. 사람이 겸손하고, 좀 미련하더라도 인정이 있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이런다면 진짜 중이다 이겁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질문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참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일까요?

답변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입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더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예." "내 발과 네 발이 차이가 어떠하냐?" 하고 물었습니다. 동자 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고?" 하고 또 부처님께서 물었습니다. 동자 대답하기를 "내가 부처님한테 가면은 부처님이 하나가 되시고 부처님이 내게로 오면은 내가 하나가 되니, 어찌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까?" 했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또 물었답니다. 이리 가도 하나고 저리 가도 하나라니 말입니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고 부처님께서 또 물었답니다. 이 소년은 "박 넝쿨이 담 너머로 넘어가서 박이 열린 까닭입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또 "박은 그래 여여한가?" 했더랍니다. "박은 제 나무에서 익어서 맛이 좋습니다."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 만공에 꽃이 두루 피고 향기가 두루 나고 만 가지 맛이 나는구나. 그대로 그냥 그냥 익었도다." 했더랍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연결해서 침착하게 그 과정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경전으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내 마음 가운데서 '아, 양발이 같을 수가 있고, 너한테로 가면 네가 하나가 되고 얘한테로 오면 이게 하나로 되고, 둘이 아닌 고로 그 하나는 담 너머로 박 넝쿨이 넘어가서 박이 열린다.' 그 박도 익었어야죠, 또. 그래야 제맛이 나겠죠? 하하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마음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수없는 억겁을 통해 진화돼서 나오면서 그래도 선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인연이 없다면 모이질 않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손수건을 하나 들어도 인연입니다. 이 손수건을 내가 들어 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손수건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써 주니깐 바로 이 손수건이라는 빛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이 모든 생활 속에서 만나는 인연들도 같이 만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철 나와서 만남인데 이 만남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느냐, 구덩이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의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착하게 마음을 쓰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악하게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부드럽게 내 마음, 이 한마음 속에 더불어 같이, 내면이나 외부나 모든 것이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는 이 한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으시고, 거기다 맡기시고 어떠한 억울함도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 **어떠한 억울함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 **한마음에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 **물러서지 말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맡겨 놓고 '네놈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물러서지 말고,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시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자기라는 게 없어집니다. 부드럽게 말하시고 행동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렇게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면 아마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앞에 올 것입니다. 이 도리, 미묘한 도리를 여러분은 직접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모릅니다.

돈이 들어오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질문 저는 종업원 몇 명을 두고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다 맡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되는 쪽으로만 마음을 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강도 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다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두 일체 만물만생 또는 삼세, 과거·현재·미래를 한데 합쳐서,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증득해야 그게 알아져요.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⑱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올 뿐

염불, 독화살 뽑는 '구원의 지름길'

아침마다 온라인에서 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시즌5 70일차 공부날에 나눈 법담이다. 247쪽,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고, 짓지 않은 것은 내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복이든 화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올 뿐입니다"에서 경희(가명) 님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올 뿐이라는 법문을 들었을 때 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잊어버리고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데,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지은 업의 결과가 왔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라고 하자, 현숙(가명) 님이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인데 조잡한 생각을 하며 계산하고 측정할 때가 많아요. 부처님생명이라는 법문을 들어도 체득이 안돼서 일상에서 실천이 안되니, 법문을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도 나네요"라고 말했다.

은미(가명) 님도 "그런데 내가 심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인정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심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매일 정진을 모셔도 습이 어찌나 강한지 부처님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많고, 그때마다 염불하는데 염불하는 순간조차도 잡념에 휩싸여 있어요. 요즘엔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도 그대로 부처님 앞에 드러냅니다. 업장소멸을 내가 할 수는 없으니 그저 부처님께 맡기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아상도 부처님께 다 바치고, 지치거나 싫어하지 말자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생각도 다 내려놓자고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참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이야기했다.

솔직한 말씀들이다. 법문을 많이 듣기만 해선 내 것이 되기 어렵고 정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사수법회의 이름인 들을 문, 생각할 사, 닦을 수 '聞思修'는 명사가 아닌 동사로, 법문 듣고 정진 모시는 삶이 이어져야 한다.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부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하는 참회가 필요하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왜 나한테 왔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왔구나'하고 그냥 인정하는 것. 심었으니 왔겠구나. 내가 뭘 심었는지를 따지거나 왜 심었는지 평가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구나, 심었구나'를 인정하라고 여여 법사님께서도 늘 법문을 주셨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수많은 생에 복을 지은 덕분임을 알 수 있다. 수많은 생을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지었을까? 이번 생에서 기억되는 일만 기준으로 하니까 '나는 그런 일을 짓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일이 벌어진 거야'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인정하고 참회하는 게 인과법을 믿으며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올해 초 인도에서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참회를 했다. 업장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얼른 "부처님 참회합니다. 나무아미타불"하며 염불을 모셨다. 빠른 인정, 빠른 참회는 어쩌면 큰 축복이다. 법문을 들음으로써 씨름할 시간을 줄이게 된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실은 자기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다. 씨름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저 '일어났구나'하고 인정하고, 참회하고 발심하며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문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반가운 말씀이다.

모든 게 내가 짓고 받는 것

인정 안 될 때는 염불해야

은영님은 "10대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곳에선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협박을 하는 논리였다면 불교로 오니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고 하셨어요. 제게 항상 난제로 있던 것이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는가'였고 거기에 수긍할 수 없었는데, 모든 게 나의 선택이었다는 법문을 들으면서 구도가 바뀌니 빠르게 인정이 되고 삶이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남자라는 캐릭터 여자라는 캐릭터가 다 있는데 여자라는 걸 고집하거나 역할을 고집하고 사니까 힘들었던 거였어요. 이제 내가 짓고 내가 받으니까 너무 평등한 세상인 거죠. 정말 희망적이고 반가운 법문이었어요.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라는 법문을 믿고 본래 자리로 돌아와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솔한 이야기에 감사하며 부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유명한 독화살의 법문을 나눴다. 독화살을 맞았다면 독이 퍼져 죽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화살을 뽑는 것이다. 누가 쐈는지, 어디서 날아왔는지, 화살은 뭐로 만든 건지 따지고 분석할 새가 없다. '난 잘났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하는 마음들 때문에 빨리 인정이 안 될 땐 얼른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보자. 올 것이 온 것뿐이고, 그것은 실체가 아닌 현상일 뿐이니 허망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참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말고 얼른 밝음의 스위치를 켜라고 부처님이 불러주시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이야말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에 독화살을 뽑는 구원의 지름길이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온라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㉔ 무릎 퇴행성관절염 절골술

무릎 관절 바로잡는 '절골술'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성인에 있어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흔한 관절질환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지만 보행이 힘들어지면서 신체 활동이 감소해 심혈관 질환 발생 등 사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은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등의 보존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고령의 퇴행성관절염 말기의 경우 인공 슬관절 치환술로 기능 회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와 중년의 퇴행성관절염은 인공관절보다는 절골술을 시행해, 본인의 관절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방법인 절골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골술이란

외상 및 퇴행성 변화 등에 의한 슬관절의 내측 또는 외측에 중등도 이상의 관절염이 있으며, 만70세 미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입니다. 절골(折骨)은 뼈를 자른다는 뜻으로 특정 부위의 뼈를 자른 후 일정량의 뼈를 제거하거나 공간을 벌려 내반슬(O자다리)과 외반슬(X자다리)인 다리를 교정하여 변화시키게 됩니다. 절골 부위는 강한 금속판을 이용하여 나사못으로 고정하게 되며 재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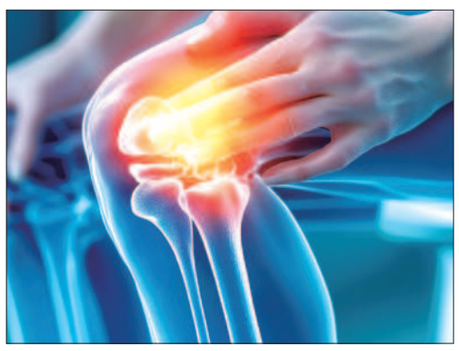
절골술의 종류

절골술은 대퇴골과 경골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관절염의 위치에 따라 근위 경골 절골술, 원위 대퇴 절골술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한 내반슬(O자다리)에 동반된 무릎 내측 관절염에서는 주로 내측 근위경골 개방형 절골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반슬(X자 다리)이 동반된 외측 관절염의 경우 내측 원위 대퇴 폐쇄형 절골술이 이뤄집니다.

시행 대상자는 △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중등도이며 심한 외·내반이 동반된 경우 △후외측 인대를 포함한 만성 인대 손상으로 무릎에 불안정성이 생긴 경우 △슬개골의 반복적인 탈구와 동반된 다리가 부정정렬인 경우입니다.

동반 시술

절골술은 관절내시경과 함께 시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연골, 연골판 및 인대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연골에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 나이를 고려해 연골재생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골판 역시 부분절제술과 봉합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인대 등의 큰 인대가 손상된 경우, 수술 시 동시에 시행하거나 금속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인대 재건술을 할 수 있습니다.



만70세 미만 시행 가능 수술법

특정 부위 뼈 잘라 교정 진행

과도한 음주, 흡연 절대 불가

절골술의 결과 및 재활과정

절골술은 아래 3가지 항목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수술 후 적절한 정렬을 얻었는가.

2) 환자의 몸에서 치유 반응에 의하여 퇴행이 진행되고 있던 관절 내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3) 재활을 통하여 기능, 특히 근력 회복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

예를 들어 아무리 수술이 잘 됐어도 재활이 미흡하면 최종 결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반, 재활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환자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치유 반응은 사실 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재활은 치유 반응을 좋은 쪽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이러한 치유 반응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은 인대 재건술, 연골 재생술, 연골판 봉합술, 절골술 등 환자의 관절 내 구조물을 재건 및 재생하려는 수술 후 결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는 흡연에 의한 미세 혈류의 차단으로 치유 반응이 지연돼, 재생되는 조직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수술 1~2주 전부터 수술 후 3개월 내에는 완전히 금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도 금연은 장기적인 결과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골 시술 및 연골판의 봉합술 등을 시행했는가에 따라 재활 과정 및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6주간의 목발 보행과 부분 체중 부하가 요구됩니다. 또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퇴사두근의 강화 및 발목 펌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골술은 젊은 환자들이 인공관절수술을 받지 않고 인대와 연골판이 보존된 본인 관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약 10년 정도는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효
거인병원 관절클리닉 과장



전법 일기

부처님 법으로 맺어진 인연 천년전우, 함께하리라 군승!

2017년 6월 30일 군종 75기로 임관했다. 사명감을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첫 소임지는 5사단 연대에서의 시작이었다. 사단마다 상징하는 모토가 있는데, 5사단은 '천년전우(千年戰友)'이다. '전우(戰友)'라는 존재가 천 년을 이어나갈 만큼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첫 소임지를 가기위해 지도를 보니 위도상 개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경기도 끝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곳에서 첫 법회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여름이었다.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 첫 법회였다. 오전 9시에 대대 법회를 시작하기에 내가 있는 법당에서는 늦어도 오전 8시 20분에는 출발해야 대대 법당에서 여유롭게 법회가 진행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전날에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 법당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여 발 디딜 틈도 없는 빼곡이 앉아 있는 법당에서 첫 법회를 진행하였다.

내가 맡은 연대법당은 오전 10시 30분 법회 시작이라 대대에서 40분정도 진행하고 연대 법당으로 와야 했다. 첫 법회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없이 지나갔다.

점심을 먹고 GOP 안에 있는 법당에 가서 진행을 하였다. 연대 법당에서 가는 시간만 50분! 점심공양을 간단히 하고 전방으로 향했다. 몇 개의 문과 검문소를 거치면서 긴장 속에 GOP 법회도 무사히 마쳤다. 전방에서의 법회에 참석한 용사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GOP 법회와 수색대대 법회를 마치고 연대법당에 도착하니 오후 5시였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신병교육대 야간법회를 하고 법당에 오니 오후 10시 30분이 되었다.

영화 〈황진이〉를 보면 서경덕 선생의 질문으로 황진이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다.

"자연이 너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은 자연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삶에 연연하는 너의 이기적인 마음이다."

"제가 그 마음을 버린다면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모두가 너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리요, 그게 너의 참모습이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법회를 하고 법당에 돌아와 차를 한잔하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면서 영화 〈황진이〉에 나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첫 소임지, 부처님 법 전하는 전법의 길에 첫걸음을 하였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군포교의 원력을 통해 장병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고통을 나누면서도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는 군승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수종 스님
육군 32사단 호국대원사 주지



송마나의 **시절인연**

제주 법성도와 감로수

〈法性圖〉

제주도 불교 성지순례 '선정의 길'을 두 차례 나누어 순례했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덕사(善德寺)로 들어가는 고즈넉한 숲길은 세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무기력한 시간을 일으켜 세우는 것 같았다. 일주문을 지나자 탁 트인 경관이 신생의 설렘을 안겨 주었다. 오층 석탑을 지나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大寂光殿)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대적광전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 법성도(法性圖)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신라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요약하여 진리의 세계를 7언(言) 30구(句)의 게송으로 요약하여 54각의 사각인(四角印) 속에 새겨 넣은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제주도의 형상처럼 연못물 위로 네모반듯한 대리석에 조각된 법성도가 진리를 드러내고 있었다.

법성도를 에워싼 연못물에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멀리서 병풍을 두르고 있는 한라산 자락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내려앉았다. 빨강, 하양, 얼룩무늬 잉어들이 유유자적 노닐고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연못 바닥이 훤히 보였다.

깨끗한 것이 물의 본성일까? 물은 시냇물처럼 땅 위를 흘러가면서 깨끗해지고, 땅속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깨끗해진다. 물은 호수처럼 고요히 가라앉아 깨끗해지고, 바다처럼 세상의 온갖 오염을 받아들여도 정화하여 깨끗해진다. 물은 언제나 깨끗한 물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아마도 물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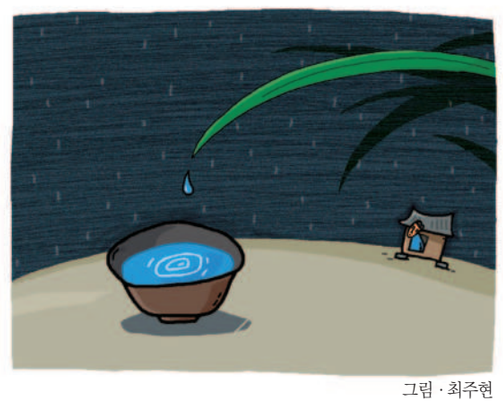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깨끗한 물은 만물을 살려주는 생명수가 된다.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생존할 수 있을까. 지난 8월, 그 뜨거운 목마름에 우리는 고량진미보다는 깨끗한 물 한 잔을 먼저 찾았다. 동물이나 초목도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뿐이랴, 물이 없으면 더러워진 몸을 어떻게 씻고, 공장 용수가 없으면 공장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까.

물은 깨끗할 때가 물이지 깨끗하지 못하면 물이 아니다. 생명은 물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생명은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에서 물은 성스러움, 순결함, 거듭남을 상징한다.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은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한 물을 그들의 머리와 손에 부었다. 예수가 요단강에 잠겨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입문할 때 욕조에 온몸을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거행한다. 인도의 바라나시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힌두교인이 찾아와 강물 속으로 몸을 담근다. 불교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에는 아기 부처님 상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한다. 이것은 중생이 오욕의 때를 벗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한다. 즉 깨달음을 얻어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깨끗한 감로수는 병을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관세음보살과 약사여래불은 호로병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곤 한다. 병에 담긴 감로수(甘露水)는 달콤한 이슬, 부처님 말씀이다. 감로수는 육체에 깃든 병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법성도가 조성된 연못물이 유난히 깨끗한 이유를 알 것 같다. 연못 둘레에 서 있는 관세음보살상의 호로병에서 감로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청정한 감로수가 '화엄일승법계' 아닌가.

〈작가〉

기자칼럼

생명나눔 30돌, 그 행복여정을 축하하며

매년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SAVE9)이다.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나눔의 의미가 담겼다. 서울시는 2014년 9월 9일을 맞아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길 바라며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했다고 한다.

불교계에서 장기기증하면 바로 떠올려지는 단체가 있다.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대종사가 이사장 소임을 맡아 이끌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다. 올해 10월,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장기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데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권선뿐 아니라 생명나눔 문화확산을 목표로 환자치료비 지원, 불우이웃 동기 등을 통해 남녀노소할 것 없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왔다.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본부의 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다각화하기도 했다. 자살예방 캠페인, 국제구호사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30주년을 맞아 캄보디아에 20억원 상당의 의료물품을 전달한 생명나눔은 앞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한 1994년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열악했던 시절이다. 그러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묵묵히 앞만 보며 달렸고 현재 25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탄탄한 단체가 됐다.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정신이 팽배한 시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0년을 한결같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의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생명나눔으로 걸어온 행복여정 30년, 미래의 30년도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외치는 희망찬 행복과 감동이 묻어난 자비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 더 힘차게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임은호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학생에게 템플스테이 할인을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시험 다 끝났는데 이번에는 템플스테이 갈까?"

"그럴까, 근데 비싸던데"

"그래, 얼만데?"

"한 10만원 정도할 걸"

"우리 넷이면 40만원이네"

"식사도 채식만 하고, 침대도 편의시설도 없는데 왜 그렇게 비싸지"

"그러면 차라리 호텔에서 방 잡고 맛있는 것 사다 먹으면서 편히 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말시험 기간에 학교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된 여학생들의 대화다. 젊은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거리감 없이 가려한다는 반가움과 더불어 템플스테이 비용이 그렇게 비쌌나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때까지 필자는 템플스테이 비용을 3만 원 선으로 알고 있었다. 바로 컴퓨터를 켜고서는 템플스테이 사찰과 비용을 검색해보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가 전국 사찰의 템플스테이 비용과 프로그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해주었다.

검색 결과, 비용은 성인 기준 1박 2일에 1인당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했다. 물론 비용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개인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의 대중화를 통한 포교 효과를 차치하고서라도 템플스테이 비용이 대중

템플스테이 참여 대학생 SNS 참여서
자발적인 불교 대중화 모습 엿보기도
대학생 할인, 전법이자 청년불자 양성

호텔보다는 저렴해야 합리적이다. 비즈니스호텔이나 관광호텔에서 평일에 2인 1실로 1박을 하면 15~17만 원 정도한다. 대중 호텔 숙박비가 1인당 7만 5000원~8만 5000원임을 감안하면, 템플스테이 비용을 이보다는 할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비용 정보를 살펴보면, 대부분 성인, 중고생, 초등생, 미취학으로 구분은 하면서도 절대 다수의 사찰들이 1인당 동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비용 구분에 의하면, 무엇보다 대학생과 청년이 그냥 성인에 포함되어 버린다. 중고생과 초등생, 미취학 즉, 청소년과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비용 걱정을 별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청년, 특히 대학생은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 봄, 불교계에서 대학생 할인을 해주는 '청춘 템플스테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바 있다. 전국 97개 템플스테이 사찰이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대학생들에게 참가비를 1만 원으로 할인해주는 것이었다. 이 기간 참여한 많은 대학생들이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힐링의 소감을 각종 SNS와 블로그에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토록 한국불교가 희망해온 불교의 대중화를 참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주고 있는 것이다.

향후 템플스테이 비용 구분에서 대학생을 별도로 정하여 상시 할인해주었으면 한다.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청춘 템플스테이'와 같은 대학생 할인 프로그램을 매년 시험기간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여러 번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생 전법은 장학금 수여와 법회 참석 유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템플스테이는 불교의 대중화이며, 대학생 할인은 대학생 전법이자 청년 불자 양성이다.

'무아'라는 '앎'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이런 개념 없는 놈을 봤나!"

개념으로 사는 우리에게 개념이 없다니 당연히 욕이다. 하지만 깨달은 성자에겐 욕이 아닌 지당한 말씀이다. 그들은 개념의 세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칭과 개념으로 산다. 언어로 생각한다. '개념을 실재로 간주하는 희론은 공성에서 소멸된다'는 중론의 가르침은 불교적 통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명칭이 세상을 지배한다' '인식되는 세계는 명칭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뇌과학 등의 일치된 견해다.

개념의 뭉침이 앎이다. 앎을 통해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인공지능이건 생명체는 모두 마음을 갖는다. 인공지능이 생명체라니? 마음이 있다니? 그렇다! 비록 디지털 개체지만 앎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기에 마음을 갖춘 생명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젖은 생명체'가 아닌 '마른 생명체'다. 앎의 수준은 미미하지만, 앎을 학습하고, 인식하고,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세포 생명체 못지않다. 오히려 언어나 이미지 생성 능력은 인간을 추월한다. 앎의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다. 언어 이해와 사유 그리고 추론 능력은 한참 떨어지지만 무한 반복과 통계분석을 통해 스스로 조금씩 진화해가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다.

앎 통해 대상 아는 것이 마음
깨달음이란 마음 변환이 아닌
예전 없던 앎 새로 생겨난 것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가? 자아의식을 토대로 언어적 앎, 개념적 앎을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고도의 이해와 사유와 추론 능력을 갖춘 최상위 지배자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인간이 축적해온 앎이 궁극일까? 붓다는 단언한다. 무명의 앎에 불과하단다.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는 인간이 구축해온 알량한 앎이란 한낱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음일 뿐이란다. 무서운 속도로 앎을 형성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과 대조된다.

무명의 앎을 진리의 앎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이 깨달음이다. 앎의 전면적 교체다. 깨달음이란 마음의 상태 변환이 아니다. 앎의 교체다. 그 어떤 초월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앎이 바뀌지 않는 한 깨달음이 아니다. 깨달음이란 예전에 없던 앎이 새롭게 생겨나는 혁명적 사건이다. 어떤 앎인가? 무아에 대한 앎이다. 무아라는 초월적 마음 상태에 머무는 일이 아니다. 그저 자아의 본질적 부재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다. 무아라는 'something'을 보거나 머무는 일이 아니다. 단지 자아의 'nothing', 즉 명칭이었을 뿐이었음을 직접 목도하는 최상의 사건이다. 명칭과 개념을 극복한 이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번뇌가 자리할 수 있겠는가? 해탈이니, 열반이니, 자유니, 지복이니 조차 발붙일 수 없는 행 없는 행만이 이어질 뿐이다. 〈쌍윳따니까야〉 구절로 마무리한다.

"무엇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까?" 세존께서 답하신다. "명칭이 모든 것을 짓누르고, 명칭보다 더 나은 것이 없노라. 명칭이라는 하나의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노라."

社 說

조계종 종무기관 효율적 운영 기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이후 30년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로 운영됐던 조계종이 총무원 1원 체계로 다시 변화한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23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첫 안건으로 '총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 개정으로 향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총무원 10부·실·소 13국'으로 개편된다.

이번 총무원법 개정안을 위해 종단 집행부와 '중앙종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통합이라는 종헌 개정 틀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8차에 거친 회의와 공청회 개최해왔다.

탈종교화로 인한 불교 인구와 출가자 감소는 더 이상 교육원과 포교원이 별원 형태로 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각 원별로 자체 사업에만 몰두하다보니 행정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나왔다.

총무원법 개정으로 총무원 종무회의를 통한 집중적이고 책임성 있는 종책 시행과 단일한 통합 종무행정 시스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는 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가자 감소와 포교 역량 강화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전략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 통합 종책연구기관 구성도 주목할 만 하다.

총무원법 개정으로 종단의 효율적 운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불교, 기후위기 극복위한 환경보살 되자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고, 가을의 문턱을 넘었다는 지금도 더위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구촌이 기후변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는 강남대로에 3만 명이 모여 '907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기후행동(상임대표 일문 스님),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등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행진에 앞서 법회를 열고 생명 공존 세상을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환경보살이 돼 정토세상을 만들자고 당부했으며,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원경 스님은 성명서에서 〈법화경〉을 인용하며 불자들의 기후정의행진 참가 의의를 짚었다.

이날 행사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인류가 목도한 기후위기의 책임이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자본주의 시스템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화경〉에는 '삼계화택(三界火宅)'의 비유가 있다. 직역하자면 세상이 불타는 집이라는 말이다. 지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삼독심(三毒心)에 그 원인이 있다. 불타는 집에서 나와야 함에도 탐욕에 취해 그대로 있는 것은 모두 공멸하는 행위다. 화택에서 탈출하는 것은 우리 모두 '환경보살'이 되는 것이다. 불자들부터 환경보살의 삶을 살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중국 서하사 승랑대조사 다례재 봉행



대한불교삼론종(총무원장 혜불)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국 남경 서하사에서 승랑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다례재에는 종정 혜승 스님을 비롯하여 승정원장 진봉 스님, 총무원장 해불 스님, 승정 지운 스님, 종회의장 지경 스님, 교리연구원장 남륜 스님, 종회의원 응진 도광 혜안 묘현 스님, 묘법연화사 묘덕 스님, 천용사 성례 스님을 비롯하여 불자 20여 명이 동참했으며, 소흥 운문사를 방문하고 소흥불교협회 회장 정방 스님 등과 삼론학 발원지인 가상사 복원사업을 논의하였습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1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dongguk UNIVERSITY

영캠프

Dongguk University
Young Camp - Festival with Buddhism

YOUNG CAMP



일시 · 장소

2024.09.24.(화) 17:00 – 21:00, 장충체육관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현대불교 특집

온 국민 행복 이르는 길 ‘선명상’ 대중화에 있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의 한반도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유엔(UN) 산하 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발표하는 국가 행복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행복 지수는 ‘6.058’로 순위는 60개국 중 52위다.

그 뿐인가. 한국은 저출산 1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여기에 마약, 도박 등 각종 중독문제가 빠르게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이다. 작금의 한국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괴롭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 것은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스님이 말하는 선명상의 핵심은 ‘고통을 없애는 것’에 있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 광장은 거대한 명상센터가 된다. 2024 불교도 대법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이다.

일체 고락(苦樂)을 끊어 스스로를 행복에 이르는 길, 선명상 정진에 동참해보자. 첫 번째 실천이 될 ‘2024 불교도 대법회’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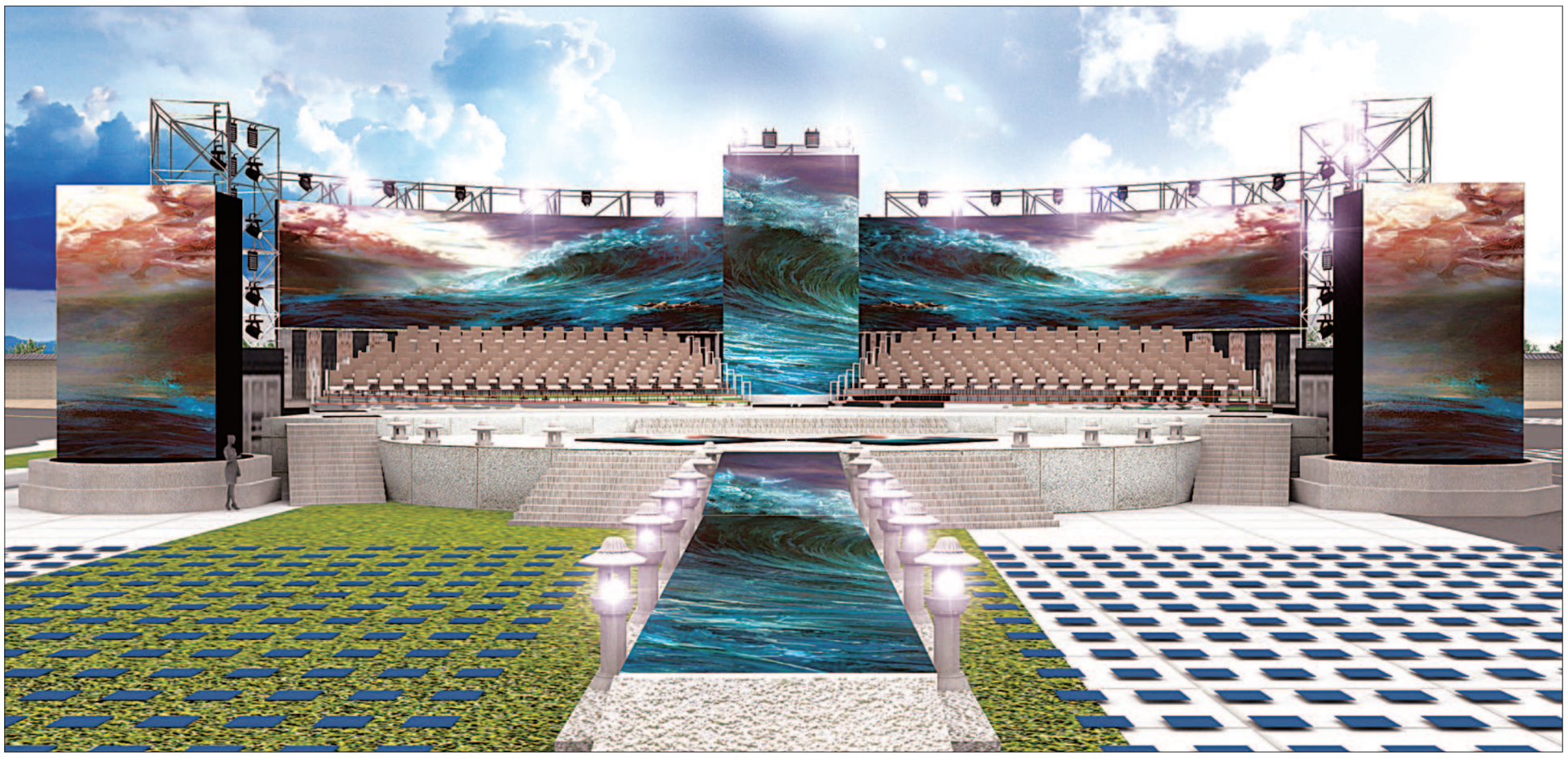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미리보는 불교도 대법회

초가을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개최되는 것. 전국에서 스님과 신도 3만 명이 동참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미래 정신문명의 시대, 국민들의 정신을 이끌 K-선명상 제시는 물론 전통불교의식 재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SEON MEDITATION SUMMIT 2024



'2024불교도 대법회'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의 행사장 조감도. 3만명이 5분간 명상하는 '국제선명상대회'도 함께 열린다. 사진제공=조계종

정신 건강 선도할 선명상, 광화문서 만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공동체 규범 제시할 '수계법회'

한국불교 최고 지도자 스님들이 직접 법을 설하며 수계의식을 이끄는 장엄한 법석이 펼쳐진다. 9월 2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생명존중과 상생의 근본 위에 욕망과 미움 등 감정의 절제를 서원하며 K-선명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한국 불교 전통의 서원 의식이 선보여 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수계의식에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 제시된다. 이번 수계의식은 전통 불교의식의 장엄한 연출효과를 통한 국민공감과 감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원로의장과 전계대화상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선다. 장궤합장과 큰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됐다.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부문별(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노동자)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한다.

'승보공양법회'로 공경 메시지 전달

불자들이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의식인 승보공양법회는 오후 3시부터 광화문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승보공양 의식은 신뢰와 존경, 존중과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계종이 앞장서서 승보공양의 의미를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하고자 한 것.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인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승보공양의 의미를 알리는 영상으로 시작되며 개식, 신도대표 인사말, 대종 오타, 정법계진언, 공양게, 운심게,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축원, 가사, 치사, 사홍서원으로 진행된다. 조계종은 승보공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ARS도 개설했다. 060-700-7070으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 원을 후원할 수 있다.

'국제선명상대회' 5분 명상 공개

한국불교 1700년의 지혜를 담은 선명상과 세계적인 명상가들의 프로그램을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9월 28일 광화문서 불교도법회
사부대중 3만명…5분 명상 선봬
108개 선명상법 제시로 마음평화
수계의식 · 승보공양 · 음악회도

여는공연에서는 진관사 비천무팀이 평온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고 선한 에너지를 전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지는 '선명상의 정의, 지금 여기 바로 마음평안에 이르는 명상' '선명상의 설명과 종류' '한국 선명상의 전통은 간화선이다'를 주제로 한 영상은 대중들의 선명상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PT 발표로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다. 우선멈춤, 쉘패스명상, 방하착명상 등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될 계획이다.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명상센터 건립, 템플스테이 및 명상센터 연계 등 다양한 사업계획과 함께 선명사 안내서,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 공개가 이어진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 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선명상이 이어지는 5분간, 광화문 일대가 고요와 평안으로 물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명상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마무리 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이 하루 5분간 선명상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무대위 명상지도자는 총 9명으로,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해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진파, 차드 멩 탄, 팝루스님, 직메 린포체 등 해외연사 5명, 금강 스님, 그리고 선원수좌회 스님 2명이 함께한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평화 포퍼먼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아로마 향이 나는 연꽃 모양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며 '자기연민' 시간을 갖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동 · 환희 가득 '음악회'

마음의 평화, 국민행복을 위한 선명상 선포 축하무대가 장엄하게 열린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음악회는 내 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로 꾸며진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사회로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가수 윤하와 최예림, 김태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 아이돌 B1A4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형LED를 활용한 무대연출과 특수효과를 통해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K-선명상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

총본산 조계사,
세상과 함께하며 부처님법을 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국민들의 마음평안을 발원하고 한국전통불교의 정신이 깃든 선명상을 통해 마음과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미리보는 불교도 대법회

SEON MEDITATION SUMMIT 2024

'K-선명상' 매력속으로…전국이 명상으로 물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말, 전국 곳곳에서 선명상 향연이 펼쳐진다.

국민들의 마음평안을 발원하고 한국전통불교의 정신이 깃든 선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대규모 국제선명상 축제 '2024 국제선명상대회(SEON MEDITATION SUMMIT 2024)'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을 비롯해 다양한 유관 기관에서 개최된다.

국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선명상의 적극적인 보급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특정 계층이 아닌 범국민적 명상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9월 27일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회를 시작으로 이튿날인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공식 개막식이 진행된다.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1개 주요 사찰 및 학교에서 명상 체험부스, 해외명사 초청 특강 및 명상 시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모두가 함께 선명상 즐기기'가 펼쳐지는 '전국 선명상 축제'가 병행된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 대전 **보문고**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구글 명상가 차드 멩 탄이 '뇌를 깨우는 15초의 기적! 명상'을 주제로 선명상 특강을 펼친다. **중앙승가대**에서는 9월 30일 오후 3시부터 툽텐 진파 박사 초청 특강이 열린다. 'Mind life로 확인하는 명상의 힘'을 수행과 포교 관점에서 푸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청년세대를 위한 자리도 마련된다. 군종특별교구 **호국연무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군장병 2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이순간, 행복한 삶! 명상 콘서트'를 연다. 곽정은 작가의 강연과 상담에 이어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의 디제잉이 펼쳐진다. 서울 **홍대선원**은 9월 29~30일 양일간 'Just be! 홍대선원 선명상 WEEK'를 진행하고 선태극권, 드로잉, 싱잉볼명상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부산 **쿠무다**는 9월 27일 오후 5시부터 송정해수욕장에서 선명상축제 부산전야제를 실시한다. 108배 경진대회 등 풍성한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선명상 축제는 전국 사찰에서도 이어진다. 서울 **조계사**는 9월 29일 오전 11시 행복한 수행자로 불리는 직메 린포체 초청 특별 법회를 실시한다. '진정한 깨달음의 기준! 자비와 지혜'를 주제로 강연과 실참이 60분간 이어진다. 서울 **봉은사**는 9월 29일 오후 3시부터 '봉은사 선명상 축제'에서 해외·국내 연사 강연을 진행한다. 툽텐 진파와 금강 스님이 강연과 실참을 지도하며 AI상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 **서고사**는 서고사세계평화명상센터 개관을 기념하며 9월 29일 오후 2시 차드 멩 탄을 초청, 강연과 실참을 진행한다. 명상 수행과 행복한 삶을 주제로 하며 첼리스트 정호 스님 등이 연주하는 클래식 명상음악 공연은 덤이다. 평창 **월정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 지도자 팝루 스님와 함께하는 초청강연을 진행한다.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 修行'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사례 중심으로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실시된다. 오대산 선재길을 걸으며 걷기 명상, 생생야행, 선요가 명상 등이 진행된다.

9월 27일~10월 1일, 전국 11개 사찰·기관서 선명상 향연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는 명상' 국제 컨퍼런스로 폐막
사부대중 "K-선명상 문화 대중화 위한 초석 될 것" 기대

부산 **범어사**에서는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로시 조안 할리팩스 초청 강연이 이어진다. '죽음명상! 죽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강연은 싱잉볼 명상을 경험할 수 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남양주 **봉선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1100팀을 대상으로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마음챙김축제'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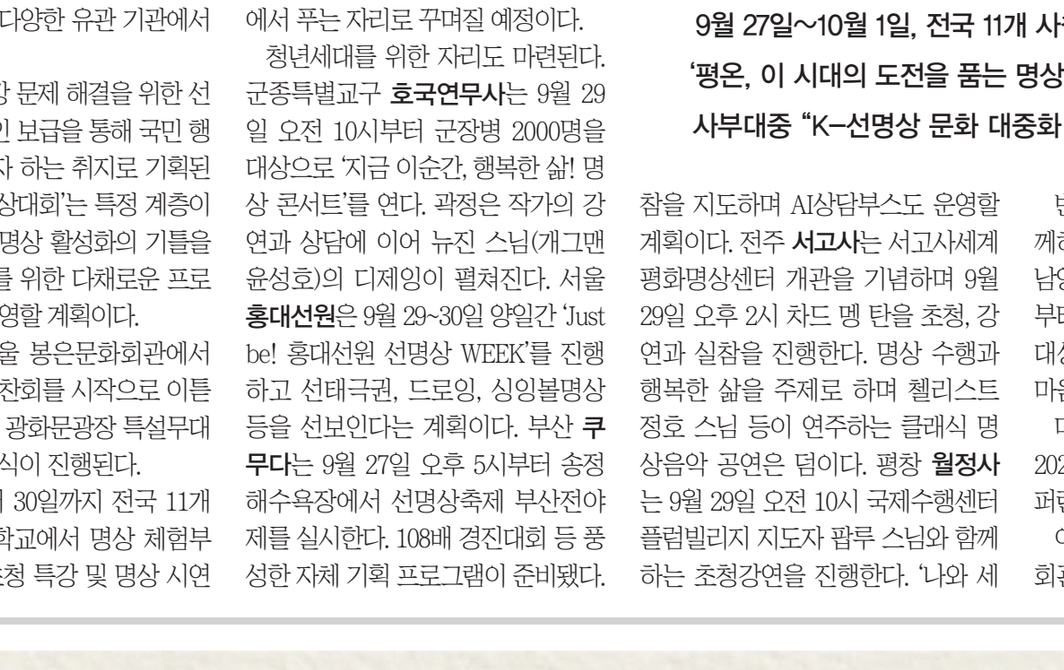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10월 1일 컨퍼런스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봉은문화회관에서는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는 명상'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영원한 지혜, 선명상'을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세계 명상 지도자들이 발제와 대담이 이어진다.

컨퍼런스는 △'선명상'의 나아갈 길(신경철, 대한명상의학회) △안의 고요, 밖의 실천: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위한 명상 (로시 조안 할리팩스, 우파야 선 센터 주지) △불이의 알아차림, 치유를 가져오는 내면의 힘(팝루 스님, '마인드풀니스 인 벨' 편집장) △오래된 지혜와 경쟁사회의 명상(차드 멩 탄, 명상프로그램 'SIY'개발자) △내면의 빛: 불안과 우울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명상의 기술(직메 린포체, 수행 안거센터 운영자) △자비를 품다: 다정한 사회를 위한 통찰(툽텐 진파, 마인드&라이프 의장)이 발제된다. 이어 강연자 모두가 참여해 '평온, 이 시대의 도전을 품은 명상'을 주제로 대담이 이어진다.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UN 세계명상의 날 지정 요청 내용이 담긴 '2024 국제선명상대회 결의문'을 채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2024 불교도 대법회

왜 수계 · 승보공양법회 인가

삼귀의·오계, 온 국민 지킬 규범

왜 '수계' 받아야 하나

불자 규범 넘어 윤리이기도
오계 실천, 국민 행복 완성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매년 봉행하는 삼귀의오계 수계대법회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영취산에 계실 때이다.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은 밧지국을 정벌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왕은 부처님께 신하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밧지족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쭤보라고 하였다. 신하는 부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밧지국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신하에게 직접 답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아난에게 일곱 가지 질문을 하신다.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다.

"아난아, 밧지국(피정복 국가) 사람들은 아라한을 존경하고, 성자에게 공양 올리며, 어느 나라의 성자가 자기 나라를 찾아오면 그 성자를 존중하며, 공양 올리는가?"

아난이 '밧지국 사람은 수행자와 성자를 잘 모신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자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국가라면, 그 나라는 번영만 있을 뿐 절대 쇠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승가(僧伽)와 국가 발전을 동시에 설한 7불퇴법(七不退法)으로 〈대반열반경〉에 전한다. 국가든 승가든 승보인 수행자와 성인에 예의 지킬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육방예경(六方禮經)〉은 초기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재가자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 등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설하고 있다. 이 경전은 재가자가 심신(心身)을 청정히 한 뒤에 여섯 방위에 절을 하는 것인데, 동쪽을 향해서는 부모, 위쪽은 승려와 바라문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내용이다. 곧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삼가고 사람 간에도 마찰이 없이 살 수 있는 윤리 기준을 말하고 있다.

앞 경전 내용은 개인이 행복하고, 성자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는 집단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계종에서 불교도대법회를 행사한다. 단순히 불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더불어 발전코자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에 행사 시작에 불자로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살겠다는 서원이 '삼귀의와 오계'이다. 삼귀의 오계는 불교를 넘어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사상이라고 본다.

먼저 삼귀의(三歸依)를 보자. 필자는 불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불자로서 무엇을 믿느냐?' 대체로 사람들의 답변은 '부처님 믿는다. 불교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불법승 삼보를 믿는다'고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불하시고, 최초의 제자들인 5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곧 불보·법보·승보가 완벽하게 구성됨으로서 불교라는 종교 테두리가 완전체를 이루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데는 불보·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승보가 없기 때문이다. 곧 삼위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 오계(五戒)를 보자. 첫째는 불살생인데,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며,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 불살생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포함된다. 즉 스토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인권 침해, 갑질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둘째는 불투도인데, 그 어떤 것이든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무소유 실천인데, 무조건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배분해 널리 나눔을 실천한다.

셋째는 불사음인데, 근자 들어 심각한 범죄가 사음이다. 곧 성희롱 · 성폭력 등 성적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는 불망어인데, 거짓말을 삼가는 것을 넘어 상대에 진심이 담긴 말을 해주고, 칭찬하며,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불음주인데, 지나친 음주는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 또한 바른 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음료나 마약 등을 근절해야 한다.

불교도 대법회에서 실시하는 의식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실천하던 방식이다. 즉 불자들이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뒤에 부처님께 수계를 받았다. 둘째, 재가자는 6재일(8, 14, 15, 23, 29, 30일)을 지켰다. 이는 재가자가 일정하게 정한 날에 사찰에 가서 스님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으로 치면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불교라는 종단은 출가자와 재가자 이중구조이다. 승려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재가자에게 법을 베풀어 참 삶의 길을 제시한다. 재가자는 승려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시와 공양으로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요, 윤리라고 본다. 이렇게만 실천하면 개인이 행복하고, 국가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이다.



정운 스님
북촌불교문화연구원장

보시바라밀 실천·완성하는 길

왜 '승보공양'인가

공양=보시, 대승보살 이루는 법
승보공양법회 일상화 필요하다



백중을 맞아 열린 마산 정법사의 승보공양법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공동체는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또 불교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마다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공동체가 그리고 불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그리고 그 존중과 배려의 실천으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기대한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불교도 대법회는 그러한 장을 불교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목적이다. 전통 수행법의 핵심을 공감하고 나누는 간화선 곧 선명상대회와 함께, 전통 수행법이 추구하는 삶을 자기화하는 구체적 실천으로서 오계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가 함께 개최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승보공양법회일까?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공양하는 것은 불자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승보공양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승보공양이 경전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였던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고려사에는 수백 회 이상의 승보공양법회가 '반승(飯僧)'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억불의 나라였던 조선왕조실록에도 반승(飯僧)의 금지 여부가 조정 대신들의 논쟁거리가 될 정도였다.

달리 말하면 불교도들이 불교도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가 승보공양이었고, 그것이 불자의 중요한 실천덕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웃 대만불교에서는 승보공양법회를 '공승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도 하다.

승보공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전으로 〈우란분경〉이 있다. 우란분재 곧 백중의 유래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지만, 사실 이 경전이 강조하는 것은 승보공양의 중요성이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란분재이지만, 그 우란분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름 안거를 끝마치며 안거 수행하는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自恣)하는 승가에 대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

"청정한 계와 성현들의 도가 구족하니, 그 공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승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6종(種) 친속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며, 의식(衣食)이 저절로 이를 것이다."

공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공경하여 받들고, 공경하여 받드는 대상이 추구하는 바를 스스로도 받아 지니며, 공경하여 받드는 대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는 보시의 의미이기도 하다.

경전에서 붓다가 말씀하신 공양을 받을 이들은 안거를 마치고 자자하는 승가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자신의 삶으로 하기 위한 수행에 전심전력했던 출가수행자들이다. 그들이 받아들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본래적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며, 그러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불자들은 스스로가 추구해야 하는 자기 삶의 방향성을 배우고 좇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보공양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이끌도록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역사 속에서 반승(飯僧) 혹은 승보공양의 모습이 불교도의 실천 행위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 내 삶을 불교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승보공양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마침내는 승보공양 자체가 하나의 법회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히 한국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불자로서의 첫 번째 실천 덕목으로서 보시바라밀이 강조되어 왔다. 보시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보시바라밀의 완성은 육바라밀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 익힘의 방법 그리고 완성의 방법으로서 일상의 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실천된 것이 바로 승보공양이고 승보공양법회인 것이다.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계기로 불자들의 일상적인 실천덕목으로 승보공양법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2024 불교도 대법회

왜 지금 선명상인가

선명상 대중화, 21세기형 전법 화두



기후위기, 양극화 등 번뇌 산적
갈등 해결 위해 중도, 화쟁 필요
중도 이끄는 최고 방법 '선명상'
국민 위한 '선명상' 보급은 탁견
선명상 수행, 국민운동 거듭나야

현대 인류의 괴로움과 번민

이번 여름은 참으로 대단했다. 어느 기상학자는 이번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화탕지옥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망상이 저절로 들었다. '챗 GPT'로 상징되는 인공지능(AI)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인간은 자신이 만든 기계인 인공지능에 목숨 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류가 과연 지구에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앞으로 인류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명사적인 위기에 지혜를 모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도 깊어가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 만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직면한 문제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사회는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더 심하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 많았다고 한다. 매일 35명, 1시간에 1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구나 한국은 저출산율 1위이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살률과 출산율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 심지어 노동 시간도 1위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다.

문명 위기와 중도 지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재앙적 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권마저 대립 갈등으로 방향성을 상실할 때 종교계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한국불교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중생의 고통을 구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금이 바로 한국불교가 한국사회와 인류 문명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이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출현한 불교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와 우주 만물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에서 말씀하신 "괴로움과 즐거움을 떠나 중도를 깨쳤노라"한 중도대선언은 현대 인류가 마주한 양극화와 대립 갈등, 전쟁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이다.

일찍이 신라 원효 대사는 부처님의 중도를 '화쟁(和諍)'이라 하여 모든 사상과 견해를 회통하는 지혜로 나투었다. 한국 역사에서 불교의 지혜는 삼국통일과 후삼국의 통합과 치유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전쟁을 하며 대치하고 있고 동과 서, 남녀, 노소, 빈부 등등 다양한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불교의 중도 지혜는 매우 중요한 통합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재와 통합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짚어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양극화와 대립 갈등,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한국사회와 현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현대 문명 대안, 중도와 선명상

부처님은 인간의 근본 괴로움인 생로병사의 문제를 중도의 깨달음으로 해결하셨고 그 중도의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다. 원효대사의 화쟁도 실은 중도의 지혜이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한국사회와 인류의 문명사적인 문제도 결국 중도, 화쟁의 지혜로 풀어야 한다.

문제는 '중도, 화쟁의 지혜를 바르게 이해하여 정견을 세우고 실천하는 불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한국불교에는 다행히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화두로 마음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선이 성성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화두 참선법인 '간화선'이다.

간화선은 비록 중국에서 출현하였지만, 당나라·송나라 시대에 통일신라와 고려, 일본에까지 전파된 동아시아 보편 사상이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간화선이 탄생한 중국은 공산화와 문화혁명을 거치며 선맥(禪脈)이 단절되어 버렸다. 또한 일본에도 간화선이 전해졌지만, 일본의 간화선은 교학과 뒤섞여 직지, 돈오선의 전통이 점수로 변질돼 버렸다. 이런 까닭에 우리 한국불교에는 조사 간화선의 직지, 돈오선 종풍이 그대로 활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까닭에 지금 한국불교의 간화선은 한국사회에 인류 문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도 지혜와 실천적인 힘이 잠재되어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결집하느냐 이다.

선명상 대중화의 가치와 의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취임하자마자 선명상의 대중화를 제1종책으로 내걸고 광폭 행보를 하여 왔다. 현장 명상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명상 이론과 프로그램 개발에 정진하여 지난 5월 템플스테이 선명상 1박2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 전파가 되었고, 지금은 선명상 8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교육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9월 28일 광화문에서 국제선명상대회를 열고 국민 행복을 위해 선명상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5분 명상의 실천 등 선명상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동안 진우 스님께서 각종 언론 인터뷰와 법문, 강연에서 말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조계종은 간화선이라는 가장 빠른 깨달음 수행법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고준하고 산중에서 스님들 위주로 공부하다보니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는바 대중적인 명상을 간화선과 융합하여 쉽고 현대적인 선명상 프로그램를 개발하여 보급하자는 것이다. 진우 스님이 말하는 선명상은 '지금 바로 마음 평안에 이르는 명상'이다. 이것은 간화선의 직지, 돈오의 종지를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간편하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현대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간화선의 장점을 살피고 명상의 대중성을 활용하여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국민들의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덜어주자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을 물론이거니와 종합병원, 심리상담, 스포츠, 학교 등 사회 전반에 명상붐이 크게 일어나 광범하게 치유 명상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있다.

필자가 알기에는 삼성전자만하더라도 경북 영덕에 대규모 명상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돕고 있다.

이처럼 명상이 보편화, 대중화되는 시대에 한국불교와 조계종이 간화선이 최상승이라는 자만감에 빠져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불교의 존재 의의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종책은 탁견이자 참으로 시절인연이다.

선명상 대중화의 과제와 전망

조계종 차원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는 21세기에 맞는 전법 방향이고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그림이다. 그동안 기도, 불공, 문화유산 관리 위주의 종단과 사찰 운영에서 지혜와 자비를 계발하고 실천하여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불교로의 전환이다.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쉬운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의 길이 선명상의 대중화에 담겨 있다.

다행히 우리 한국불교에는 간화선이라는 직지, 돈오의 탁월한 선 전통과 총림, 선원에 2천명 가까운 전문 수행자들이 있고, 수천 명의 전법행을 하는 출가 수행자들이 있다. 또한 21세기 들어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한 템플스테이도 국민 대중의 광범한 호응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템플스테이는 중요한 트렌드가 될 정도로 자리 잡았다. 이것이 한국불교의 저력이고 가능성이다.

선명상 대중화는 이와 같은 간화선 전통과 대중적인 명상, 그리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한 단계 더 대중화, 심화, 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간화선은 치유 명상의 대중성을 참조하여 좀 더 쉽게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들이 좀 더 깊은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조계종단 차원에서 기획되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지도 인력 양성, 템플스테이 사찰의 선명상 특화사찰로 지정 운영 방안, 전국 사찰과 명상센터의 연결과 플랫폼형 홈페이지 구축 안내, 선명상앱 개발 지원 등이 단계별로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진우 스님은 국민 행복 프로젝트로 5분 명상운동을 제안한다. 누구라도 종교에 관계없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선명상을 배우고 익힌 뒤 하루 5분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노와 사, 갑과 을, 남과 여 등등의 분별을 넘어 온 국민이 마음 평안으로 가는 길이 선명상에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그것을 과학적인 연구나 모범 사례를 정리하여 알려나가 그야말로 국민운동이 되고 인류 세계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겸 사무총장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



사부대중 일동

부처님 법 전법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 실버인력뱅크/구리 인창경로식당

2024 불교도 대법회

한국 찾는 세계적 '명상 마스터' 들

세계 명상가 5인, '지혜로 가는 길'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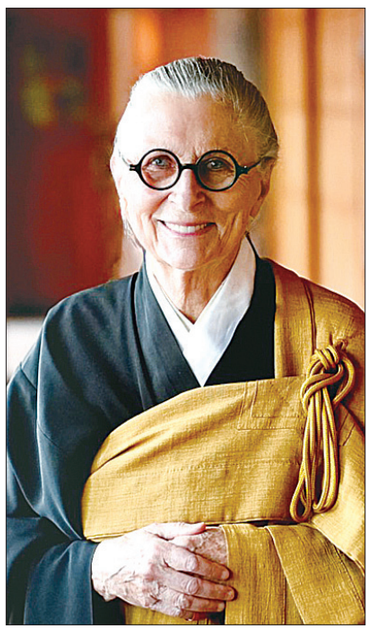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9월 27일부터 10월 1일 개최하는 대규모 선명상축제 '2024 국제선명상대회'에 세계 명상 마스터들이 참석한다.

방한하는 세계 명상 마스터들은 미국 '우파야 젠(선)센터' 주지이자 불교 지도자인 로시 조안 할리팩스를 비롯한 마인드&라이프 의장 툽텐 진파, 전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차드 멩 탄, 플럼빌리지 수행지도자 팝루 스님, 평화와 교육 팔모 센터 설립자 직메 린포체 등이다. 이들은 대중들에게 선명상이 현대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전하고 직접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그 가치를 나눌 예정이다.

다섯 명상 마스터들은 '전국 선명상 대회'와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에서 만날 수 있다. '전국 선명상 대회'는 9월 27~30일 전국 11곳의 사찰과 기관에서 선명상을 보급하기 위해 개최된다. '선명상 국제 컨퍼런스'는 10월 1일 서울 봉은사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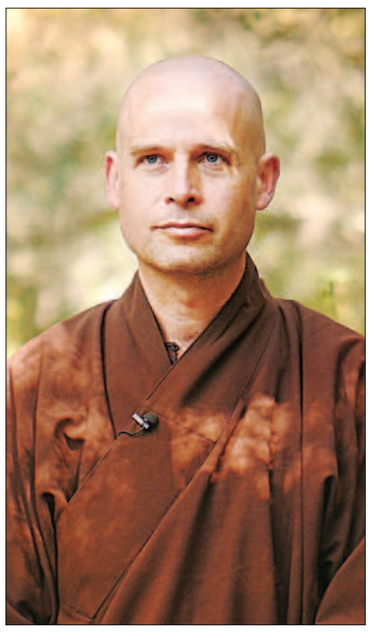
본지에서는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는 세계 명상 마스터들의 약력과 저서 등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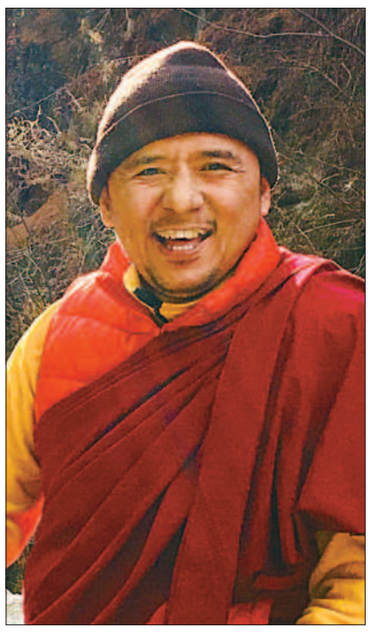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 진파


차드 멩 탄


팝루 스님


직메 린포체

임종 돌봄의 선구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

세계 참여불교계의 리더이자 임종 돌봄의 선구자 로시 조안 할리팩스(Roshi Joan Halifax)는 명상을 실천하며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불자가 되길 제안한다.

'죽음과 함께 하는 삶'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그는 세계적인 선사(禪師)다. 한국불교 세계화의 문을 연 숭산 스님의 제자였으며 틱낫한 스님과 선불교 지도자 버니 글래스맨(Bernie Glassman)에게도 법등을 이어받았다.

조안 할리팩스는 미국 콜롬비아대와 마이애미대 의과 교수를 역임하고 미국 하버드대, 조지타운대 등에서 죽음에 대해 교육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에게 임종 직전 환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교육하는 '죽음과 함께 하는 삶'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현재 뉴멕시코 주 산타페에 불교연구와 사회운동을 이끄는 '우파야 젠(선)센터(Upaya Zen Center)'를 설립하고 50년 이상 참여 불교의 길을 걷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을 명상하다(2019, 민족사)〉 〈연민은 어떻게 삶을 고통에서 구하는가(2022, 불광출판사)〉 등이 있다.

그는 9월 30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리는 '범어사 선명상 축제' 명상가로 나서고 10월 1일에는 '내면의 고요, 외면의 실천 :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위한 명상'을 주제로 봉은사에서 강의한다.

마인드&라이프 의장

'툽텐 진파'

달라이 라마의 통역가로 유명한 툽텐 진파(Thupten Jinpa)는 불교와 과학의 교류를 위해 설립된 '마음과 생명 연구소(Mind and Life Institute)' 상임이사회 의장이다.

승려 출신인 그는 티베트 간덴 사원의 살체 불교대학에서 불교 교학 박사에 해당하는 게쉐 학위를 받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툽텐 진파는 스탠포드 의과대 부설 '자비심과 이타심 연구 교육 센터(CCARE, Stanford Center for Compassion and Altruism Research and Education)'에서 '자비계발수행법(CCT, Compassion Cultivation Training)'을 개발했다. 현재는 CCARE의 자문위원이자 캐나다 맥길대학 티베트 불교철학 부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본인의 저서 〈두려움 없는 마음(2019, 하루헌)〉 〈보살핌의 경제학(2019, 나무의마음)〉과 더불어 달라이 라마의 저서 〈달라이 라마 반야심경(2017, 하루헌)〉 등을 편집하기도 했다.

툽텐 진파는 9월 29일에는 서울 봉은사, 9월 30일에는 중앙승가대에서 강의한다. 10월 1일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비를 품다 : 다정한 사회를 위한 통찰'을 주제로 발표도 진행한다.

구글 'SIY' 개발자

'차드 멩 탄'

구글 최고의 인기 직원 교육 프로그램 '내면검색(SIY, Search Inside Yourself)'의 개발자 차드 멩 탄(Chade-Meng Tan) 역시 한국을 찾는다.

과거 국제기업 구글의 창업공신이자 엔지니어였던 그는 우울증으로 고통 받던 중 티베트 비구니스님을 통해 불교 명상 수행법을 접했다. 스님의 주도로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한 이후 점차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명상의 힘과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세계 곳곳의 선승들, 뇌 과학자, 심리학자들과 함께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감성지능(EI) 강화 프로그램 SIY를 개발했다. 이 교육을 받은 이들 대부분은 이전보다 감정조절에 능숙해지고 자신감과 인관관계 리더십이 향상됐다고 전한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일곱 차례 지명된 '10억 개의 평화 운동(One Billion Acts of Peace)'의 공동회장이기도 한 차드 멩 탄은 비영리조직 '내면검색 리더십 연구소(Search Inside Yourself Leadership Institute)'를 창설해서 구글 직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내면검색 프로그램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저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2012, 알키)〉는 출간 즉시 미국 유명일간지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 외에도 〈기쁨에 접속하라(2017, 알키)〉 등의 저서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내면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했던 그는 9월 29일 대전 보문고를 방문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명상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일에는 '오래된 지혜와 경쟁사회의 명상'을 주제로 현 시대 명상의 중요성을 전달한다.

플럼빌리지 수행지도자

'팝루 스님'

틱낫한 스님이 세운 국제수행센터 플럼빌리지의 명상지도자 팝루 스님(Brother Phap Luu)은 선명상대회에서 내면의 힘에 대해 강의한다.

한국의 선불교를 해외에 알린 숭산 스님에게 선명상 수행 지도를 받은 그는 플럼빌리지 미국 수행처 '디어파크 사원(Deer Park Monastery)'에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했다. 플럼빌리지에서 발행하는 잡지 '마인드풀니스 벨(Mindfulness Bell)'의 편집장이기도 하다.

그는 불자와 비불자 청년들이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건강하고 자비로운 사회를 만드는 '웨이크업(Wake Up)'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더불어 '웨이크업 투어(Wake Up Tour)'와 '웨이크업 스쿨즈(Wake Up Schools)'를 진행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 소재한 여러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수행을 알리고 공교육의 마음챙김 명상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음챙김 수행과 유기농 농업, 공동체 생활을 결합한 해피팜(Happy Farm) 활동을 주도하는 그는 9월 29일 산사가 아름다운 평창 월정사를 방문한다. 이에 월정사는 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과 전나무숲에서 선요가 명상, 생생야행, 걷기 명상 등을 계획 중이다.

행복한 수행자

'직메 린포체'

특유의 통찰력과 유머로 티베트 불교의 철학을 동서양의 관점으로 풀어내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전하는 툴쿠 직메 린포체(Tulku Jigme Rinpoche)도 한국에 온다.

직메 린포체는 미국 오리건 주 유진에 비영리단체 '평화와 교육 팔모 센터(Palmo Center for Peace and Education)'를 설립하고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안거 센터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방면의 학문 결합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중독, 우울증, 불안 등을 다르마(Dharma), 특히 티베트 마음수련법 로종(Lojong) 수행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이런 해석에 더해 신경과학, 심리학, 경제학, 의학, 생태학, 전통 명상과 같은 학문 교류로 해답을 찾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다양한 종교의 조화와 이해, 수용 및 나눔을 증진하기 위해 종교간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9월 29일에는 서울 조계사 특별법회의 법사로 나서며, 10월 1일 봉은사에서는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는 명상법을 설파할 예정이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진우 스님 법문으로 만나는 선명상

“선명상은 간화선으로 가는 바른 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의 대중화와 국민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선명상(禪冥想)’ 보급에 앞장서 왔다. 특히 스님은 올해 3월과 7월에 열렸던 ‘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주제의 출가열반정진주간 법회와 ‘사회 리더와 함께 하는 선명상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부대중에게 선명상의 정신과 수행법을 공유했다.

본지는 진우 스님의 해당 법문들의 요점을 정리해 선명상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간화선의 대중화와 국민정신 건강 회복을 위해 ‘선명상(禪冥想)’ 을 법문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진우 스님이 제안한 선명상 6선

‘5초 우선멈춤 선명상’ | 사람이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걸리는 시간은 5초. 이때 우선 멈춤을 하면 감정의 진폭을 줄이고 스스로를 평안케 할 수 있다.

‘무시(無時)로 선명상’ | 단 5분이라도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자신을 살펴보는 명상법. 숙련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염불이나 화두를 수행할 수 있다.

‘쉘패스(Shall pass) 선명상’ | 본인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효과적. 모든 것이 무상(無常)하기에 힘듦과 어려움도 지나간다고 믿는 명상법.

‘그림자 선명상’ | 현상은 모두 마음의 소산. 무슨 일이 있든 마음의 그림자라고 자각해, 고락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명상법.

‘놓음 선명상’ | 일체를 그대로 놓는 ‘방하착(放下着)’ 명상법.숙련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인과와 업이 저절로 사라짐.

‘삼수(三受)야 가라 선명상’ | 현상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인과와 분별에 걸리고 윤회의 순환에 빠지니, 일체를 부처님과 연기법에 맡기는 믿음이 포인트인 명상법.

선과 명상은 다르지 않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여 년 전에 비해 불자들이 감소하고 청년들이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어려워하는 현상을 목격했다. 이에 스님은 선명상 아카데미 1강에서 “선과 명상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천명하고 명상을 통해 종국에는 간화선 수행까지 정복할 수 있는 ‘선명상’을 선보이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선과 명상이 삼독심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히 만드는 지점에서 동일선상에 있다고 역설했다.

“선은 산스크리트어 ‘디야나(dhyana)’에서 온 말이다. 빨리어 ‘자나(jhana)’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선나(禪那)로 음역됐고 줄여서 선(禪)이라 했다. 이는 조용하게 생각한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의미다. 명상 자체가 선이다.”(‘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법문 중)

진우 스님은 명상과 선, 이 둘은 같은 의미를 공유하되, 명상은 간화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임을 강조한다. 근기가 낮은 사람이 쉬운 명상법들로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 선정에 들게 된다. 그 상태에서 화두를 들게 되면 곧바로 최상승 간화선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선명상 가운데 간화선이 최고지만, 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명상부터 하라는 것이다.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다 보면 그게 선정이 된다. 선정 속에서 간화선의 화두 하나를 들면 생사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선명상으로 찾는 마음의 평안’ 법문 중)

괴로움의 원인, 감정

우리는 왜 ‘선명상’을 해야 할까.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이고, 마음은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까. 진우 스님은 괴로움은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즐겁다, 괴롭다, 반복되는 감정으로 업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불교에서는 감정, 생각, 인식을 통틀어 ‘마음’이라 일컫는다. 그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감정’이다. 경전과 논서에도 그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이유는 인간의 고통과 그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기 위함이다.”(선명상 아카데미 2강 중)

진우 스님은 ‘사성제(四聖諦)’를 강조하며 감정이 괴로움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설한다.

“우리는 감정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감정을 명확하게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질량은 0.1g, 0.1㎜도 다르지 않고 똑같다. 이에 즐거움 만큼 괴롭고 괴로운 만큼 또 즐거움이 일어난다. 다만 그에 따른 대가로 결과가 나타나는 시간만 다를 뿐이다.”(선명상 아카데미 2강 중)

현상이 육근(六根)과 육경(六境)을 어지럽혀 괴로움이 일어난다. 진우 스님은 우리가 실체 없는 현상에 감정을 얹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과 〈반야경〉에서 현상을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또는 공(空)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이 현상에 주관적 감정을 자꾸 얹기 때문에 업이 계속 발생한다. 이 업과 분별 감정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을 인과라 하고 여기서 ‘윤회’가 일어난다.”(선명상 아카데미 3강 중)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감정을 일으키는 ‘나’를 살필 것을 진우 스님은 거듭 주문했다. 현상은 현상일 뿐,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괴로움은 여전히 있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 문제는 감정을 일으키는 ‘나’인 것이다.

진우 스님에 따르면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얹어서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바로 알게 되면 감정이 잦아들어 평안한 곳에 이를 수 있다. 피안(彼岸), 니르바나(涅槃, nirvana)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우 스님은 이 같이 설한다.

“감정의 진폭이, 파장의 크기가 업의 크기다.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에 따른 괴로움도 함께 커진다. 기분 좋을 일이 많지 않은 사람은 기분이 나빠질 일도 많지 않다. 감정의 파동이 점점 작아져 진폭이 사라지는 것이 마음이 일여(一如)한 상태다. 감정선이 일여하게 나타나야 아침, 낮, 저녁, 밤이 평안하다. 결국 문제는 대상이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감정을 일으키는 ‘자신’이 괴로움의 원인이다.”(선명상 아카데미 7강 중)

감정이 사라진 마음, 중도심

결국 문제는 ‘감정’이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현상에 끄달리게 된다. 이에 분별이 생기고 업이 발생한다. 이 업은 생사를 일으켜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게 만든다. 그러나 탐욕·분노·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貪瞋癡 三毒心)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있다. 바로 선명상이다.

선명상을 통해 감정을 고요히 할 수 있다면 피안의 세계에 이르고 완전한 행복이 이뤄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해탈(解脫), 열반(涅槃)의 세계라고 한다. 근심과 걱정과 슬픔, 고통과 번뇌 즉 우비고뇌(憂悲苦惱)를 벗어난 궁극의 평화로움을 의미한다.

고통에서 벗어난 마음, 완전한 행복에 이른 마음은 어떨까. 진우 스님은 ‘중도심(中道心)’이라고 설명했다. 중도심은 즐거움에도 괴로움에도 그 어떠한 감정에도 끄달리지 않는 청정한 마음 상태다. 계속 반복되는 감정의 인과가 끊겨 나간 것이다.

“부처님이나 마음을 깨친 역대 조사, 보살, 아라한들은 고락, 감정의 업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감정의 업이 없으니 기분 나쁠 일이 없다.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도 사라졌다. 괴로움이 사라지니 즐거움도 자취를 감췄다. 이를 ‘해탈’ ‘중도’ ‘견성성불’ ‘아뇩다라삼먁삼보리’라고 표현한다. 즉 고락 감정의 순환 고리가 끊겼다는 것이다.”(선명상 아카데미 2강 중)

이어 진우 스님은 감정이 사라져 중도심에 이르면 저절로 보살행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잦아드는 감정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평온한 중도의 상태에 이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이 깨끗해지는 신구의 삼업청정(身口意 三業淸淨)이 저절로 이뤄진다. 일체가 청정해지면 업이 청정해지고 일체중생을 돕는 대승 보살행(菩薩行)을 할 수 있다.”(선명상 아카데미 5강 중)

〈임제록〉의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入處皆眞)’은 보통 ‘어느 곳에 가든 스스로가 주인공임을 잊지 마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우 스님은 이를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고락(苦樂)’이라고 하는 ‘감정윤회’가 완전히 사라진 경지로 새롭게 해석했다. 감정이 사라져 중도의 마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애자재한 주인공(主人公)이 되는 길이다.



2024 불교도 대법회 성공기원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2024 불교도 대법회

2024 불교도 대법회

무아의 평화, 세계평화

수계법회 · 승보공양법회

광화문광장 특설무대

- **수계법회 / 9월 28일(토) 오후 2시**
  -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수계
  (8월 31일까지 사찰별 접수, 교구본사 제출)
- **승보공양법회 / 9월 28일(토) 오후 3시**

승보공양 ARS 060-700-7070

*불자님들의 승보공양 후원으로 불(佛), 법(法), 승(僧) 삼보께 공양을 올립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 개막식

9월 28일(토) 오후 4시 /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 **대한불교조계종 선명상 선포**(총무원장 진우스님)

음악회

9월 28일(토) 오후 7시 /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

- 내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

- **출연진**

: 비텐스(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프로젝트 그룹),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최예림(JTBC 풍류대장 출연), 김태연, 이승기, 최정원(뮤지컬 배우), 마이클리(뮤지컬 배우), 윤하(대중가수), B1A4(남자 아이돌)

전통문화(전통등) 전시 및 체험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광화문광장 옆)

- **전통등 전시 / 9월 23일(월) - 28일(토)**
- **전통문화 체험행사 / 9월 25일(수) - 27일(금)**

: 명상체험, 전통문화체험, 템플스테이 체험 등